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0.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내달 1일 직장인 검진 실시  
날짜: 201404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6100000135  
ID: 01100201.201404261000001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원장 김태선)는 오는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평일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직장인과 자영상인 등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처방 및 결과상담 등을 실시한다.<br/><br/>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2014년 들어 매월 셋번째 일요일에 평소에 시간을 내기 힘든 자영상인 및 근로자 등을 위한 일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다.<br/><br/>김태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건협 부산센터는 평일과 같은 이용시간으로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검진을 진행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근로자의 날에 평소에 손자를 돌보는 어버이들의 검진을 예약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현재 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PET-CT, 1.5T 초전도MRI, 128CH-CT 및 HD급 내시경검사기 등 최신장비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검진에서는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등 각종 예방접종도 가능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1.txt

제목: 폐암 치료에 'LDK378(세리티닙)' 희소식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5100000202  
ID: 01100201.201404251000002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실패한 환자서 반응률 58%<br/><br/>[쿠키 건강]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 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실패한 환자가 포함된 환자군에서 58%의 반응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전문지 NEJM에 게재됐다.<br/><br/>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가 포함된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br/><br/>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용량으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은 7개월로(95% 신뢰구간: 5.6-9.5개월) 나타났다.<br/><br/>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전체반응률은 59%로,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를 비롯해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도 매우 높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br/><br/>이번 연구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br/><br/>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br/><br/>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Alice T. Shaw 박사는 "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의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 이내 재발될 경우 치료 옵션이 없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br/><br/>노바티스 측은 이번 연구 결과를 미국FDA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br/><br/>한편 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2.txt

제목: 노바셀테크놀로지, 뇌종양 유발 새로운 원인물질 규명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191  
ID: 01100201.201404241000001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동반진단 맞춤형 치료제 개발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국립암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악성 신경교종(Glioma)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악성 신경교종은 흔한 뇌종양 중 하나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악성 신경교종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저산소증 증상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악성 신경교종은 공격성이 높고 종양환경 형성을 위한 혈관신생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br/><br/>뇌종양의 5년 생존율은 65% 이상이지만 악성으로 알려진 신경교종은 38%,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은 7%에 불과하다. 또 수술로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재발 위험이 높고,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실시해도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br/><br/>노바셀테크놀로지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이용해 악성 신경교종 세포의 저산소증 특이 분비단백질체 분석연구를 통해 NCB301, NCB302를 새로운 악성 신경교종 바이오마커로 발굴했다. 또 전사체를 이용한 생물정보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악성 신경교종환자에서도 과발현돼 있음을 확인했다. 기능 및 기전연구를 통해 NCB301, NCB302가 악성 신경 교종세포의 이동성을 직접 조절하는 것을 규명해 표적치료제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br/><br/><br/><br/>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span class='quot0'>NCB301, NCB302는 바이오마커 및 표적치료제가 부재했던 악성 신경교종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3.txt

제목: “홍삼 항염증 작용, 분자적 기전 입증”  
날짜: 201404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4100000261  
ID: 01100201.201404241000002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홍삼이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계통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홍삼의 항염증 작용에 대한 분자적 기전이 최초로 밝혀졌다.<br/><br/>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 연구팀은 24일 '홍삼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연구'를 통해 면역반응이 과발현돼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날 경우 홍삼추출물이 어떤 기전으로 염증반응을 개선시키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염증지표인 산화질소의 생성과 염증유전자들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점과 이러한 작용이 염증분자마커인 ATF-2, CREB 및 IRF-3의 활성 저해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염증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염증반응은 세포 및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국부적인 또는 전신적인 방어기작으로 주로 면역계를 이루는 체액성 매개체가 직접 반응하거나, 국부적 또는 전신적 작동 시스템을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연쇄적인 생체반응에 의해 유발된다.<br/><br/>그러나 염증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위염, 염증성 장염 등의 소화기질환,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그리고 세균성 폐렴, 기관지 폐렴, 대엽성 폐렴, 레지오렐라 폐렴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과 같은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들 염증반응이 장기적으로 과발현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하여 심장질환, 각종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평균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홍삼의 꾸준한 섭취는 부작용 우려 없이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span>”고 전했다.<br/><br/>이 연구 결과는 국제 SCI급 대체의학 저널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4년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4.txt

제목: 노바티스 항암신약 ‘LDK378’, 임상연구결과 NEJM 게재  
날짜: 201404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215  
ID: 01100201.2014042310000021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LDK378, ALK 양성 비소세포암 환자에서 7개월 기간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 달성<br/><br/><br/><br/>[쿠키 건강] 노바티스에서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진행성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양성(ALK+)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1일 400mg 이상 투여한 결과58%의 전체 반응률과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을 달성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오브메디슨(NEJM)지에 게재됐다.<br/><br/>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총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바티스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br/><br/>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앨리스 T. 쇼(Alice T. Shaw)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에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돼 재발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br/><br/>NEJM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내약용량의 LDK378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이 입증됐다.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59%의 전체반응률(ORR)이 보고됐다. 관찰된 반응을 통해 LDK378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를 비롯하여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br/><br/>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 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br/><br/>비소세포폐암은 가장 흔한 폐암으로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2~7%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증식시키는 ALK 유전자 재배치가 일어난다. 주로 ALK 음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보다 비흡연자이고 젊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다.<br/><br/>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사장이자 항암제 개발 및 의학부 글로벌 책임자 알렉산드로 리바(Alessandro Riva) 박사는 “<span class='quot0'>NEJM에 게재된 주요임상결과는 노바티스에서 LDK378 첫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FDA가 승인신청서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FDA와 전세계 보건 당국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이 중요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br/><br/>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br/><br/>현재 LDK378에 대한 여러 건의 주요 임상연구가 전세계 30여 개국의 300여 개 이상의 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5.txt

제목: 일동제약-가천대 길병원, 공동연구협약 양해각서 체결  
날짜: 2014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199  
ID: 01100201.201404231000001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일동제약과 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이 22일, 인천 송도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br/><br/>체결식에는 길병원 이근 병원장, 가천대 노연홍 부총장, 일동제약 정연진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br/><br/>세 기관은 신약 및 의료기기, 진단시약 등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임상연구, 인적자원, 학술정보, 인프라 공유 등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교류하기로 합의했다.<br/><br/>길병원 이근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일동제약과의 협약을 통해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일동제약 정연진 부회장은 “<span class='quot1'>제약회사와 학교, 의료기관은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다는 목표는 하나이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일동제약은 난치성감염증, 암, 당뇨병 등을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신약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및 가천대 길병원과의 이번 연구협약을 통해 R&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br/><br/>한편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의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지난해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6.txt

제목: 조인메디칼, 유방 자가검진기 ‘브레스트스캔’ 국내 출시  
날짜: 201404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3100000185  
ID: 01100201.2014042310000018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의료기기 수입업체 조인메디칼(대표 변박연)은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가정용 유방자가검진라이트 ‘브레스트스캔(Breast-Scan)’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br/><br/>이탈리아 브레메드(BREMED)사 제품인 ‘브레스트스캔’은 기존의 주관적인 촉진검사 방법과는 달리 가슴 조직 세포를 투과하는 강력한 적색 LED를 통해 유방조직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다.<br/><br/>620~640nm 특수파장의 적색 LED 빛을 유방 아래에 밀착해 위로 비추면 반대편에 투과돼 유방암이 주로 발생하는 혈관부위나 유관부위의 악성종양 등과 유방조직의 울혈, 멍울, 양성종양(물혹) 등으로 인해 검게 나타나는 그림자 부분을 본인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제품이다.<br/><br/>유럽 CE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으며, 이전 검사일 표시기능으로 월 1회 정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회사 측은 “<span class='quot0'>다만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검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변박연 대표는 “<span class='quot1'>유방암은 암환자 9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한국 여성 암 1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증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심각한 이상 징후가 있어야만 내원 검사를 하는 한국 실정이 안타까웠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새로운 개념의 가정용 유방자가검진라이트의 보급으로 유방암 조기진단에 일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7.txt

제목: 부산과학기술상 5명 선정  
날짜: 20140422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068  
ID: 01100201.201404221000000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2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13회 부산과학기술상 시상식을 가졌다.<br/>수상자는 민도식(부산대 분자생물학) 한진(인제대 의대) 김성장(부산대 의대) 김도상(부경대 응용수학) 정해영(부산대 약대) 교수 등 5명이다.<br/>부산대 민 교수는 새로운 암 유전자 가능 물질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연구해 항암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인제대 한 교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병인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20여년간 연구했다.<br/>부산대 김 교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각종 암 진단과 치료 방안 연구로 핵의학 분야의 임상학적 기술 진보에 크게 기여했다. 부경대 김 교수는 의사결정 이론의 핵심 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수리적 모델을 개발했다.<br/>부산대 정 교수는 인체 노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노화의 분자염증가설 이론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8.txt

제목: 국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임상 효과 입증  
날짜: 201404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2100000194  
ID: 01100201.201404221000001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 주도, 9개 대학병원 네트워크 10년 연구 결실<br/>유럽혈액학회 공식 잡지 Haematologica 4월 온라인 판에 게재<br/>[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가 주도한 국산 백혈병 치료제인 라도티닙(슈펙트)의 임상 2상 연구결과가 혈액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에 게재됐다.<br/>라도티닙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아시아 최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치료제다. 국산 항암제를 한국 의사가 주도적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임상 연구해 국제적인 학술지에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서 전체 성인백혈병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와 그 중에서도 기존 백혈병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교신저자)·동아대학교병원 김성현(제1저자) 교수팀은 기존 항암제 치료로 인해 강력한 내성이 생겨 유전자의 일부가 변형된 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거나,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22세에서 75세의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77명에게 임상 1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라도티닙 400mg을 1일 2회 복용하게 하고 총 12개월을 추적 관찰했다.<br/>그 결과 65%인 50명은 치료 시작 후 12개월까지 발병 시점에 비해 혈액 내 암 세포가 10배 이상 감소하는 주요염색체반응을 얻었다. 또한 주요염색체반응이 24개월 이후까지 유지되는 비율은 87%로 치료 효과가 지속됨을 증명했다.<br/>전체 환자의 47%인 36명은 필라델피아염색체가 완전히 제거된 완전염색체반응을 치료 시작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얻어 우수하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였다. 치료 후 96%는 12개월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86%는 질환이 급성기로 진행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생존하는 것으로 관찰됐다.<br/>치료 중 관찰된 주요 부작용은 혈구 감소, 피로감, 황달 등이었으나 치료 용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부작용이 개선돼 안전성도 우수함이 확인됐다.<br/>김동욱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라도티닙이 개발돼 다국적 제약사의 기존 백혈병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 한국이 약 값이 제일 싼 나라가 됐으며 서울성모병원의 주도로 국내 9개 대학병원 연구진이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 임상연구를 진행해 얻은 이번 연구결과로 한국 의학의 위상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span>”고 말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미 임상 2상시험을 통해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하지 못해 다른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성골수성백혈병들에게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적절한 복용용량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데 주목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한편 라도티닙은 2003년 일양약품에서 개발했고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팀이 주도적으로 전임상 및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했다. 2011년 11월까지 한국, 인도, 태국의 12개 대학병원에서 2상 임상 시험이 완료되자, 2012년 1월 한국 식약청은 라도티닙을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승인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09.txt

제목: 선병원, 암치료 세계 석학 초청 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264  
ID: 01100201.201404211000002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이 유성선병원 암센터 개원과 암 치료 2300명을 돌파를 기념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세계적인 암 전문가 초청 ‘암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br/>이번 심포지엄 첫날인 17일 일본 메디폴리스병원 양성자암치료센터 민 리(Min Li) 박사가 ‘최신 양성자 암치료’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으며, 18일에는 세계적인 면역치료 전문가인 도쿄 세타클리닉 마사시 사이토 박사가 ‘최신 암진단과 면역치료요법 지견’ 주제를 발표했다.<br/><br/>심포지엄은 암 치료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새로운 임상 연구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임상치료와 연구 성과들을 공유했다.<br/><br/>민 리(Min Li) 박사는 발표에서 “<span class='quot0'>양성자 암치료는 양성자를 가속 암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암 조직만을 정확하게 공격해 부작용이 적어 암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폐암, 간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선병원은 양성자 암병원인 메디폴리스병원과 오는 5월 MOU를 체결하고 양성자 치료법 개발을 위한 암 환자 치료 교류 및 의사연수 교류, 정기적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br/><br/>‘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자체 개발한 암 표적 진단키트를 통해 암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뇌종양과 췌장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사례를 보여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br/><br/>선병원은 마사시 사이토 팀이 개발한 암 진단키트를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암 조기진단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br/><br/>선승훈 의료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암을 극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암치료 경쟁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0.txt

제목: 완도 미역귀 130톤 기능식품 원료로 활용  
날짜: 201404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21100000150  
ID: 01100201.20140421100000150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해림후코이단 원료, ‘이롬셀 이뮨푸드’에 적용<br/><br/>[쿠키 건강]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본격 활용된다.<br/><br/>해림후코이단은 최근 황성주 생식으로 잘 알려진 건강전문기업 이롬의 면역력 올인원 제품, ‘이롬셀 이뮨푸드’에 100%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이 사용됐다고 밝혔다.<br/><br/>이롬셀 이뮨푸드는 천연 면역물질인 미강발효분말, 운지버섯, 겨우살이추출물분말 등이 함유된 프리미엄 면역 증진 제품으로 최근 리뉴얼을 통해 미역귀 후코이단까지 함유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br/><br/>이번에 제품 업그레이드용으로 사용된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로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특이한 기전이 일본 암학회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다.<br/><br/>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1100편을 넘는 수준이며, 암 세포 자살유도 이외에도 ▲종양의 혈관신생 억제를 통한 암의 성장억제 ▲면역력 증강을 통한 암 억제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 억제를 통한 암의 전이 억제 등이 밝혀지고 있다.<br/><br/>특히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효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황산기의 함량이 30% 이상으로 모즈쿠 등 다른 해조를 활용한 후코이단보다 두배 가량 높아 더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br/><br/>해림후코이단 측은 “제품을 처음 리뉴얼하는 올해만 연간 400kg, 생미역귀 약 130톤 분량의 후코이단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적용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1.txt

제목: 항암제 개발 트랜드, 이제는 속도 전쟁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8100000167  
ID: 01100201.2014041810000016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다중약물 동시평가 임상 진행<br/><br/>[쿠키 건강] 최근 항암제 임상시험에 변화의 새 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과학자와 제약기업이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까지 시간과 비용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br/><br/>기존 임상시험이 단일 약물 평가에 집중했다면 도입된 연구는 여러개 약물을 동시에 평가한다. 6일 발표된 혁신적 폐암 치료 연구에 따르면 영국 자선암연구소(CRUK)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14개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br/><br/>비소세포폐암 대상의 이번 연구는 체내 면역체계를 가속화시키는 2개 화합물을 포함 아스트라제네카의 12개 실험약물이 사용된다. 더불어 화이자는 특정 희귀 폐암에 승인을 받은 크리조티닙(상품명 잘코리)과 유방암에 효과를 보인 실험약물 팔보시클립(palbociclib)을 제공한다.<br/><br/>각 약물은 초기 15~20명 환자에 투여돼 신속한 과정을 거쳐 대규모 시험으로 나아가며 이점이 없는 약물은 빠르게 제외된다.<br/><br/>주목할 점은 대개 특정 약물을 연구의 중심에 세우는 것과 차별화 됐다는 것이다. 제시된 연구는 유전자변이를 타깃으로 진행성 폐암에 작용하는 여러 약물 가운데 보다 적합한 약물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둔다.<br/><br/>일부 암에서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는 환자의 1~2% 미만에서 보고되는 등 지극히 드물어 한번에 1개 약물만을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도전과도 같기 때문이다.<br/><br/>이에 새로운 경향은 다양한 유전자 결함을 가진 환자의 암 표본 프로토콜을 제시해 연구자들이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앞서 언급된 2개 제약사와 42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CRUK 총 잭임자 Harpal Kumar는 "새로운 접근법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판을 새로 짤 것"이라며 "환자에 적용되는 약물 선택에 있어 시험 설계의 주안점이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br/><br/>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7, 8월경 시작될 The National Lung Matrix 연구는 항암치료제 연구방식을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같은 노력은 환자 유전자 프로파일에 따라 조율해 가는 맞춤형 유전체 의학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더불어 전통적으로 약물시험의 표준지침이 치료약물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을 비교해 왔지만 여기서 무작위 환자 선정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이는 특정 치료가 유전자적으로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를 나타낸다면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의 무작위 선정 방법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에 기인한다.<br/><br/>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고 규모가 작은 임상시험은 통상적인 약물 승인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비용 절감은 물론이다.<br/><br/>이번 다중약물 임상에 참여한 아스트라제네카 혁신의약부 책임자인 Menelas Pangalos는 "아직 비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약물개발에 비용-효과적인 면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또 화이자 종양사업부 상무인 Mace Rothenberg는 "이번 연구가 효율적이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특정 환자군에 집중한 틈새시장 공략에 적절하다"고 밝혔다.<br/><br/>Kumar는 "새로운 약물이 연구 진행 중에 추가될 수 있으며 다른 제약기업도 적절한 시일 내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폐암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다른 유형의 종양에도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한편 제휴를 맺은 미국 암연구소는 지난 11월부터 5개 폐암 치료 실험약물을 평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다약제-다중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2.txt

제목: 강동경희대병원 ‘우리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 선봬  
날짜: 201404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6100000165  
ID: 01100201.2014041610000016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이 체계적인 ‘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br/><br/>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함께 협진 관리 시스템을 살려 전문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 관리를 제공한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강동구 드림스타트센터 주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아동 6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 사업을 진행, 후원하면서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br/><br/>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체측정(신장, 체중, 비만도, 체지방), 청력, 안과 등 기본 검사와 더불어 폐기능, 초음파, 심전도, 심장기능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br/><br/>성장기에 꼭 체크해야 할 치과 진찰 및 파노라마 검사와 함께 영양상담이 더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알아보는 한방검사(경락기능검사, 맥진)과 이에 따른 한방병원 교수진의 전문 상담도 진행된다.<br/><br/>특히 건강검진은 침(타액)을 분석해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한 눈에 체크해 보는 ‘유전체 분석 검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유전체 분석 검사는 내 몸에서 발병할 수 있는 6대 암과 29가지 질병의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다.<br/><br/>정종구 강동경희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아이 건강검진은 성장기 자녀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span>”라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자신의 건강 플랜은 일찍 계획할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향후 학습능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3.txt

제목: 널리고 널린 암 정보에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26  
ID: 01100201.20140415100000326  
카테고리: 사회  
본문: ‘암’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단어다.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고 싶겠지만 문제는 인터넷 포털에 ‘암’을 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br/>그렇다면 어디에서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국가암정보센터’로 암환자 및 가족,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이다. 100여 종의 암 자료는 물론, 다양한 맞춤형 암 정보를 제공하는데 리플릿,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 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 예약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br/>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등도 정확한 암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r/>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br/>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 또 환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참고하면 좋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4.txt

제목: 널리고 널린 암 정보에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날짜: 201404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39  
ID: 01100201.20140415100000039  
카테고리: 사회  
본문: ‘암’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단어다.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고 싶겠지만 문제는 인터넷 포털에 ‘암’을 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br/>그렇다면 어디에서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국가암정보센터’로 암환자 및 가족, 암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이다. 100여 종의 암 자료는 물론, 다양한 맞춤형 암 정보를 제공하는데 리플릿,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 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 예약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br/>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등도 정확한 암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r/>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br/>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 또 환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참고하면 좋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개인별 유전자 따라 맞춤형 치료… ‘암 정복’ 선도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7  
ID: 01100201.2014041510000004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용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표준적 암 치료법은 더 이상 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췌장암처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암이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고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본격 나서고 있다.<br/>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란 암환자 개인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고 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다. 암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숨어 있다. 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종양도 분자적 특징이 다르고 종양이 퍼지는 기전도 다를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그 환자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사진)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소장은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암의 발생기전이 상당 부분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암 발생기전 단계마다 작용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유전자만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암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치료 단계부터 환자에게서 특이한 유전자형이 발견된다면 약 선택부터 달리해서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암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폐암, 대장암, 악성 흑색종 환자 5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올해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체 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 소장은 “<span class='quot0'>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표적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 연구의 지표가 될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곳의 암 수술 경험 및 환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span>”고 말했다.<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지난 2006년 선진국형 통합진료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소위 빅4라는 대형병원에서도 통합진료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암의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의가 한 방에 모여 치료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이 낯선 암환자가 각 분야의 명의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치료에 대한 확신도 설 것이다.<br/>이에 대해 유창식 암센터 소장은 “젊었을 때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일을 한다. 가령 어려운 환자 사례가 찾아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한다”며 “우리 병원도 과학적 어려움, 재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만 ‘우리가 못하면 환자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풍부한 고난도 수술 및 치료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6.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개인별 유전자 따라 맞춤형 치료… ‘암 정복’ 선도  
날짜: 20140415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458  
ID: 01100201.2014041510000045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용한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표준적 암 치료법은 더 이상 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췌장암처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암이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고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본격 나서고 있다.<br/>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란 암환자 개인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고 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다. 암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숨어 있다. 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종양도 분자적 특징이 다르고 종양이 퍼지는 기전도 다를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그 환자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사진)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소장은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암의 발생기전이 상당 부분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암 발생기전 단계마다 작용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유전자만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암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치료 단계부터 환자에게서 특이한 유전자형이 발견된다면 약 선택부터 달리해서 불필요한 고통과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암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폐암, 대장암, 악성 흑색종 환자 5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올해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체 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창식 소장은 “<span class='quot0'>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표적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 연구의 지표가 될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곳의 암 수술 경험 및 환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span>”고 말했다.<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지난 2006년 선진국형 통합진료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소위 빅4라는 대형병원에서도 통합진료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암의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의가 한 방에 모여 치료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이 낯선 암환자가 각 분야의 명의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치료에 대한 확신도 설 것이다.<br/>이에 대해 유창식 암센터 소장은 “젊었을 때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일을 한다. 가령 어려운 환자 사례가 찾아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한다”며 “우리 병원도 과학적 어려움, 재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만 ‘우리가 못하면 환자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풍부한 고난도 수술 및 치료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맞춤형 암 치료 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7.txt

제목: 홍삼,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 강화 효능  
날짜: 20140415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49  
ID: 01100201.2014041510000004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일부 식품업체에서 암 환자에게 좋은 제품이라며 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암 환자에게 이롭다면 의사들이 먼저 추천을 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먹이겠지요. 아마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홍삼의 경우 암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 개선이나 장기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이점이 있지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말이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다수는 진단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완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항암작용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주변의 권유로 혹은 소문만 듣고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br/>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br/>다만 홍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간접 증명이 된 만큼 수술로 인해 축난 몸을 보양하자면 섭취해도 괜찮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각종 바이러스,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br/>이는 조재열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와 이만휘 경북대학교 교수팀의 ‘홍삼 유래 산성 다당체에 의한 대식세포의 분자적 활성 기전’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F-κB, AP-1, STAT-1, ATF-2, 및 CREB 등 면역단백질의 핵 내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인자(산화질소, 활성산소 및 종양괴사인자 등)들이 활발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규명했다.<br/>한 대학병원 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으로 홍삼이 항암작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홍삼을 먹어서 암세포가 아주 작아졌다는 엄청난 효과는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으니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8.txt

제목: 홍삼,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 강화 효능  
날짜: 20140415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30  
ID: 01100201.2014041510000033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일부 식품업체에서 암 환자에게 좋은 제품이라며 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암 환자에게 이롭다면 의사들이 먼저 추천을 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먹이겠지요. 아마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홍삼의 경우 암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 개선이나 장기의 체력을 보강해주는 이점이 있지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말이다.<br/>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다수는 진단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완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항암작용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주변의 권유로 혹은 소문만 듣고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br/>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br/>다만 홍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간접 증명이 된 만큼 수술로 인해 축난 몸을 보양하자면 섭취해도 괜찮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각종 바이러스, 세균을 사멸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br/>이는 조재열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와 이만휘 경북대학교 교수팀의 ‘홍삼 유래 산성 다당체에 의한 대식세포의 분자적 활성 기전’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F-κB, AP-1, STAT-1, ATF-2, 및 CREB 등 면역단백질의 핵 내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인자(산화질소, 활성산소 및 종양괴사인자 등)들이 활발하게 분비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규명했다.<br/>한 대학병원 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적으로 홍삼이 항암작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홍삼을 먹어서 암세포가 아주 작아졌다는 엄청난 효과는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으니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19.txt

제목: 카엘젬백스, 섬유증 억제 효과 특허 출원 완료  
날짜: 2014041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32  
ID: 01100201.201404151000002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차세대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GV1001’이 섬유증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br/>일반적인 암 조직에서 세포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유발하는 섬유증은 항암치료제 및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항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이번 출원은 ‘GV1001’이 췌장암 조직에서 유발되는 섬유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규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항암치료제가 암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향상 시켜, 소량의 항암제의 투여로 부작용 감소 및 효율적인 치료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GV1001의 섬유증 억제효능은 기존 항암치료제의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항암치료제와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536  
ID: 01100201.201404151000005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또 해림후코이단은 웹사이트 www.fucoidanmall.or.kr에서 후코이단 무료 샘플신청을 받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1.txt

제목: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31  
ID: 01100201.201404151000003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2.txt

제목: 해조의 섬 완도, 항암의 섬으로 재탄생… 후코이단 생산사업 주도  
날짜: 20140415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1  
ID: 01100201.201404151000000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4월 11일 개막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완도 미역귀로 만든 항암성분 후코이단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책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완도군이 항암 후코이단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 1996년 일본 암학회를 통해 ‘암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물질이다. 이후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현재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SCI급 논문만 1100편이 넘는다.<br/>연구가 계속되면서 후코이단의 항암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 공인된 항암효과는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 덩어리의 성장을 멈추는 기능 △암세포의 혈소판 점착을 억제해 암의 전이를 막는 기능 등 4가지다.<br/>완도군은 후코이단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3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금을 조성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설립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완도군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 10톤 규모의 후코이단 전문기업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완도가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완도군이 이처럼 후코이단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완도산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의 품질이 좋기 때문. 실제로 완도산 미역귀로 생산한 후코이단은 품질의 평가기준인 황산기의 함량이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후코이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즈쿠 후코이단이 보통 15% 이하의 황산기 함량에 비해, 완도산 미역귀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은 30%를 넘는다.<br/>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해림후코이단의 연간 후코이단 생산량은 생미역귀로 환산해 2000톤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코이단 전용 생산시설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3.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일양약품 신약 ‘슈펙트’] 백혈병 1차 치료제 허가 받나  
날짜: 201404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8  
ID: 01100201.201404151000000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산 18호 백혈병 치료제 신약인 일양약품의 ‘슈펙트’(사진)가 1차 치료제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임상3상 환자 등록이 완료되고 약물 투여와 관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약물 투여와 관찰을 마치면 3년 6개월에 걸친 임상3상 시험이 완료된다.<br/>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일양약품의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한 슈펙트는 현재 2차 치료제로 출시돼 있다. 또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다국가 다임상 3상이 환자등록이 완료된 가운데 막바지 진행 단계에 있다. 슈펙트는 2011년 8월부터 2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했다. 향후 치료 기간을 마치는 대로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골수성 백혈병 초기 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다.<br/>일양약품은 임상3상을 완료하는 대로 1차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임상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강보험 약가재협상, 출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일양약품은 오는 2015년 중순께 1차 치료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br/>이와 관련 지난 3월 21∼22일 일양약품은 ‘다국가, 다기관 슈펙트 연구자 미팅’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미팅은 지난 2월 28일부로 임상3상 환자등록이 완료된 슈펙트의 ‘다국가, 다기관 임상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슈펙트 임상에 참여한 국내외 연구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br/>김성현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내성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혈액종양 임상의가 진행한 ‘다국적 임상 2상 24개월 F/U update 결과’를 발표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슈펙트는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24개월까지 지속되면서 장기간 복용에 따른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복용 초기에 주로 발생했지만 일시적이었거나 용량 감량 및 일시적 복용 중단으로 잘 조절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슈펙트 복용 후 장기간 약효가 입증됐음을 재확인했다</span>”고 발표했다.<br/>슈펙트의 큰 장점은 저렴한 약가에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 치료제라는 점이다. 2차 치료제로도 경쟁 약물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1차 치료제로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경우 다시 인하된다.<br/>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아시아 최초로 출시된 슈펙트는 전 세계 4번째 백혈병 치료제로서, 조만간 1차 치료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고가여서 백혈병 치료제를 처방 받기 힘들었던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슈펙트는 세계적인 혈액학회저널 등을 통해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됐으며 경제적 약가와 우수한 효능·효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4.txt

제목: 진료 외 병원 생존방법 ‘제품 컨설팅’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275  
ID: 01100201.201404151000002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MCC, 5월 삼성서울병원 공식 센터로 편입<br/><br/>[쿠키 건강] “병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엔드유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제품의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더 보완한 제품을 개발하게 만들 수 있다. 헬스케어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전문적인 시장의 세분화가 이뤄지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br/><br/>산업통상자원부 BMCC(바이오메드커텍트센터) 센터장이자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방사익 교수는 1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문위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span class='quot0'>헬스케어 3.0 시대에는 병원이 의료서비스만이 아닌 헬스케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span>”고 제언했다.<br/><br/>이름 그대로 바이오와 의료를 연결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BMCC는 산업부 과제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지만, 임상시험센터처럼 연구부원장 산하에 병원 소속으로 정식 편입되기로 했다.<br/><br/>그간 자문위원단을 꾸려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병원 생존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수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논문을 쓰고 진급을 할 수 있는 만큼 R&D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탓이다.<br/><br/>또한 병원이 하나의 거대 헬스케어산업을 이어줄 수 있다. 방사익 센터장은 “헬스케어 2.0 시대에는 병원이 그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이었다면, 3.0시대에는 IT, 건설, 자동차, 가전, 보안 등 이종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한다. 제약-서비스, 제약-진단기기 등의 사업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병원의 사업영역이 발병 후 진단, 치료에서 발병 전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질병이 다 나은 다음의 사후관리 역할까지 하며, IT혁신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공간 제약이 극복되고 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br/><br/>방 센터장은 “병원을 벗어나더라도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24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해 질환관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투약방법, 운동, 식생활 등을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예방, 진단 분야가 계속 고성장할 전망이며, 바이오 역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로 내다봤다.<br/><br/>이런 과정에서 병원이 치료제, 의료기기 개발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물린다. 화이자는 심혈관, 중추신경 등의 연구소를 MGH캠퍼스 내로 이전했고, 브리밍햄 여성병원과 다나파버암연구소는 암환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br/><br/>병원이 중개연구를 통해 환자의 미충족 니즈를 수렴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초연구 모델 결과를 예측·해석하고 융복합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방 센터장은 “병원주도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병원이며, 타업계와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다. 바이오의료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중개연구는 물론, 병원과 산학연 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피력했다.<br/><br/>◇개발 도움뿐 아니라 사업수정·중단에도 큰 의미<br/><br/>실제 제품 컨설팅에서 의미있게 진행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br/><br/>BMCC는 매년 7~10건의 On-Demand 컨설팅, 4~5건의 In-Depth 컨설팅을 정부 출연 연구비로 지원해왔다. 의뢰제품들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차기 개발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품화됐으며 일부는 사업을 수정하거나 중단, 실패에 따른 막대한 자원낭비를 차단할 수 있었다.<br/><br/>지난해인 4차년도까지 총 29개 기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발단계 상승 45%, 시장진입 17%, 진척 없음 10%, 사업 수정 및 중단 28% 등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위험을 미리 예방해 큰 투자손실을 막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br/><br/>실제 사례를 보면, 바이오알파에서 출시한 음압치료기에 대해 다국적 기업 제품과의 비교 임상을 거쳐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에 수출 기회가 열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이끌었다.<br/><br/>옵티메드에서는 미국, 유럽 등을 타깃으로 한 일화용 내시경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교수진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사용자인 의사들의 조작의 편리성을 더한 내시경을 최종 개발하기에 이르렀다.<br/><br/>BMCC는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 기획연구에 참여, 첨단 의료복합단지 커넥트 및 컨설팅 시범사업 모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산업인력개발원으로부터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인 의료기기로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 하반기부터 의료기기에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br/><br/>방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병원에서도 5월부터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적인 R&D를 수행하고 병원 중심의 바이오 의료 에코시스템을 주도해 가는 허브로 발전해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융복합 연구 촉진자 역할뿐만 아니라 비진료영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R&BD(기술사업화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5.txt

제목: [삼성, 백혈병 논란 입장 표명]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 2년 후 사망… 사건 발단된 ‘황유미씨 사건’  
날짜: 20140415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167  
ID: 01100201.20140415100000167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황유미씨는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혈병 발병이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정부가 나서 반도체 사업장의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다.<br/>2010년 황씨의 유족과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 4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안전보건컨설팅 회사를 불러들여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공장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물질이 모두 외부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고 판단했다.<br/>판결 한 달 뒤 근로복지공단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업체 조사결과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낸 뒤였다. 그렇지만 삼성을 향하는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삼성전자는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br/>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재생불량성 빈혈(혈액암의 일종)을 산재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첫 혈액암 산재 인정 사례였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노력 끝에 산재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종류가 기존 9종에서 21종으로 늘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도 14종에서 35종으로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br/>2013년 1월 삼성전자는 피해자 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이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와 협상이 진행됐다. 2013년 12월 첫 번째 본 협상이 시작됐다.<br/>그러나 이 사이에도 삼성전자에 불리한 사례들이 쌓여만 갔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김경미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r/>당시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발암 의심 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개봉해 45만명이 관람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황씨 사건에 대한 반향을 일으키며 이번에 삼성전자가 입장을 표명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br/>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6.txt

제목: [암정복 프로젝트]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신정범 상무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4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9  
ID: 01100201.201404151000000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항암 치료의 역사를 바꾼 HER2 표적 단일클론 항체 항암제 ‘허셉틴’, 혈관형성 억제 항암제 ‘아바스틴’, 단일클론 항체 항암제 ‘맙테라’. 이 항암제들은 각각의 독특한 작용기전으로 치명적인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환자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의약품이다. 올해로 119년의 역사를 가진 로슈그룹은 이들 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약사이자, 전 세계 1위의 항암제 분야 리더다.<br/>한국로슈도 ‘혁신’을 지향하는 로슈그룹 전략에 따라 한국인에게 항암제, 면역억제제, 항바이러스제 등 혁신적인 신약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신임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으로 임명된 신정범 상무는 지난 4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슈는 항암제 분야의 리더로서 다각화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암 치료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며 “혁신적인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15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만이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비결”이라고 말했다.<br/>최근 한국로슈는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보험급여 적용을 이뤄냈다. 이에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신 상무는 “사실 글로벌 본사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에는 해당 의약품의 효능, 경제성 평가를 설명해야 하고 글로벌 본사에는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약가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도 사기업이므로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한국의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br/>로슈그룹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알려져 있다. 한 해 그룹 매출의 18%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슈그룹은 매출의 약 18.6%인 87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0조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R&D에 투자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이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span>”라고 비유했다.<br/>실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유럽연합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2013’에 따르면 로슈그룹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세계 2000개의 기업 중 제약 기업의 투자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br/>로슈그룹은 전세계 8개국에 18개 곳의 R&D 시설을 보유했다. 일본의 쥬가이 제약을 포함한 3개의 독립된 연구 개발 부서도 가지고 있다. 로슈그룹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제넨텍은 인수 후에도 독립적인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막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외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Open Innovation’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 등 150개 이상의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특히 로슈그룹은 한국인 의료진과도 많은 협력관계를 이뤄내고 있다. 신 상무는 “<span class='quot0'>한국의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로슈도 이 같은 우수성을 인식하고 임상 초기 단계부터 국내 우수 연구진의 참여를 확대해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로슈는 2002년 이후 총 99건의 다국가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총 508개 기관 및 5183명의 환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했다.<br/>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일궈낸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상무는 “로슈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실패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진정 혁신을 원한다면 한국 제약사도 실패를 용납하는 기업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7.txt

제목: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당일 진찰·당일 검사 원칙… 2013년 총 402건 수술 시행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050  
ID: 01100201.20140415100000050  
카테고리: 사회  
본문: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양정현·의료원장)는 지난해 총 402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월 평균 33.5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지난 2005년 8월 새 병원이 문을 연 이후의 누적 수술 건수는 1565건이다. 현재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됐다.<br/>유방암센터는 특히 유방암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최신의 유방촬영, 초음파, 조직검사 기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을 도입했으며, 당일 진찰과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전문의들 간의 협진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장비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 혹을 작은 상처만 남기고 깨끗이 치료하고 있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유방암 진료 및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시림프절 생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유방절제술 등 최신의 수술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가슴의 절제 없이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의 비율이 80.8%(325건)로 미국이나 유럽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br/>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병기별로 보면 1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기가 32.3%, 0기가 17.1%, 3기가 10.2%, 4기가 2%, 기타 0.5%로 나타났다.<br/>이러한 성과로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평균 99.2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전문 인력 구성 여부를 비롯해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전신상태 평가 기록,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병리학적 기록보고서의 충실률과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다수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9월 유방암센터를 개설한 뒤 그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술이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span>”고 평가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8.txt

제목: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당일 진찰·당일 검사 원칙… 2013년 총 402건 수술 시행  
날짜: 201404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5100000360  
ID: 01100201.20140415100000360  
카테고리: 사회  
본문: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양정현·의료원장)는 지난해 총 402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월 평균 33.5건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지난 2005년 8월 새 병원이 문을 연 이후의 누적 수술 건수는 1565건이다. 현재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됐다.<br/>유방암센터는 특히 유방암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최신의 유방촬영, 초음파, 조직검사 기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을 도입했으며, 당일 진찰과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전문의들 간의 협진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장비인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 혹을 작은 상처만 남기고 깨끗이 치료하고 있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유방암 진료 및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시림프절 생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유방절제술 등 최신의 수술 기법을 도입해 시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가슴의 절제 없이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의 비율이 80.8%(325건)로 미국이나 유럽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br/>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병기별로 보면 1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기가 32.3%, 0기가 17.1%, 3기가 10.2%, 4기가 2%, 기타 0.5%로 나타났다.<br/>이러한 성과로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평균 99.2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전문 인력 구성 여부를 비롯해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전신상태 평가 기록,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병리학적 기록보고서의 충실률과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다수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br/>양정현 센터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9월 유방암센터를 개설한 뒤 그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술이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span>”고 평가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29.txt

제목: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 한국 폐암환자엔 효과 적다  
날짜: 2014041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041  
ID: 01100201.201404141000000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돌연변이 유전자 표적 암 치료제가 한국인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6∼7명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사진) 교수와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 1605명을 대상으로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와 기존의 항암제의 약효를 평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11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br/>EGFR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자극, 각종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신호를 전달하는 유전자이며, 폐암 환자의 30∼40%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br/>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겨냥하는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표적 암 치료제는 이 유전자가 정상인 폐암 환자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 이들에게는 기존 항암제가 훨씬 더 잘 듣는다는 말이다.<br/>이번 연구결과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음성)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했을 때가 이레사 등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치료군의 전체 생존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임상시험연구가 끝난 후 받은 후속치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0.txt

제목: [‘중독국가’ 대한민국①] 뇌 쾌락중추 고장… PC방 죽돌이, 술독에도 쉽게 빠져  
날짜: 20140414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4100000048  
ID: 01100201.2014041410000004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①게임, 연쇄중독으로 가는 문<br/>인터넷게임·도박·알코올·마약(약물)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4대 중독’으로 꼽힌다. 4대 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흡연(10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추산)이나 암(14조원·국립암센터 추산)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면 8~11배 높다. 중독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br/>◇‘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중독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중독 성향을 갖게 되면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건 더 쉬워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새로운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br/>박형준(가명·33)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에 중독됐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며 게임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씨는 게임 중독 때문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중독 성향은 없어지지 않았다.<br/>박씨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다. 대학 졸업 후 조리사자격증을 따서 식당에 취직했지만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돼 수차례 해고를 당했다. PC방에서 게임하며 가볍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부터 술기운이 오르면 본격적으로 폭음을 하는 게 이제 그의 일상이 됐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술을 마시면 게임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금방 기분 전환이 되고 훨씬 강렬하다</span>”고 말했다.<br/>관동대 명지병원 김현수 교수는 “<span class='quot1'>박씨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게임이 주는 보상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pan>”며 “<span class='quot1'>10대 시절의 게임 중독이 중독생활의 뿌리가 됐다</span>”고 설명했다.<br/>40대 가장인 최병우(가명)씨는 심심풀이로 인터넷게임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례다. 우연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면서 중독의 늪에 빠졌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도박에만 열중했다. 인터넷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경마 경정 경륜까지 손을 댔다. 결국 이혼 위기에 놓이고서야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br/>최씨는 아내와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만 봐도 또 빠져들 것 같아 PC방 근처도 가지 않고 스마트폰도 안 쓴다”면서도 “게임과 도박은 매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게임에)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br/>◇게임 중독, 연쇄 중독의 시작=술 도박 약물과 달리 인터넷게임은 아동·청소년에게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나 자정 이후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셧다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게임 자체를 중독 행위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게임업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게임과 중독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게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br/>하지만 지난 1월 대만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음주로 이어지는 ‘중독의 연쇄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2000년 16세 청소년 1468명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다음 4년 뒤 20세가 된 이들의 음주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br/>결과는 16세 때 PC방을 드나들며 학업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의 고위험 음주율이 PC방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68명 가운데 25.9%는 20세가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이 가운데 16% 정도는 한 달에 3번 이상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군에 속했다.<br/>가톨릭대 의대 이해국 교수는 “<span class='quot2'>청소년기에 오락 목적으로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지나친 음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span>”라고 말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데다 밀집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br/>◇중독자의 ‘뇌’는 닮았다=모든 중독자의 뇌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접할 때 비슷하게 반응한다. 정상인의 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중독자의 뇌는 전두엽의 쾌락중추가 급격히 활성화된다.<br/>정신의학 연구저널에 발표된 2009년 논문에 따르면 게임중독자에게 게임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 뇌의 쾌락중추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부위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에게 술이나 마약 사진을 보여줬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비슷하다. 게임과 같은 행위도 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다.<br/>뇌의 쾌락중추가 고장 나면 조절력을 잃게 된다. 중독의 연쇄성은 이런 이유로 일어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게임 중독으로 10대부터 쾌락중추가 활성화되면 평생 중독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어린 시기에 중독에 빠뜨리는 게임 중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1.txt

제목: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 일부 폐암환자만 효과 본다  
날짜: 2014041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3100000162  
ID: 01100201.2014041310000016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돌연변이 유전자 표적 암 치료제가 한국인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6∼7명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사진) 교수와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 1605명을 대상으로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표적 암 치료제와 기존의 항암제의 약효를 평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11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br/>EGFR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자극, 각종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극신호를 전달하는 유전자이며, 폐암 환자의 30∼40%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br/>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겨냥하는 이레사, 타세바 등 소위 표적 암 치료제는 이 유전자가 정상인 폐암 환자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 이들에게는 기존 항암제가 훨씬 더 잘 듣는다는 말이다.<br/>이번 연구결과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음성) 환자들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했을 때가 이레사 등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치료군의 전체 생존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임상시험연구가 끝난 후 받은 후속치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2.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건 달성  
날짜: 201404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2100000123  
ID: 01100201.201404121000001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은 지난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br/>지난 2011년 4우러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3년 만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달성에 성공했다.<br/>센터에서 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74·남)씨는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고 이 분야에서 로봇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 로봇수술을 선택했다”며 “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이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로봇수술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br/>한편,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br/>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3.txt

제목: “암줄기세포백신치료로 암 치료 유효율 높인다…CTC검사도 병행”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416  
ID: 01100201.201404111000004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생활] 일본 전역 35여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암치료 면역세포배양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새로운 암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을 지난해 12월부터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암세포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CTC(Circulating Tumor Cell·혈액순환종양세포) 검사를 도입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5종 복합면역 요법’과 ‘수지상세포 획득 면역백신 요법’이 결합된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에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2012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치료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신간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하여 의학박사로서, 암치료 전문병원장으로서, 세포치료 배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암환자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암치료를 위해 나아갈 방향, 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암 환자에게 희망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br/>CTC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다. 이러한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더불어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여줄 수 있다</span>”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br/>구라모치 박사는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시행해 온 5종복합면역요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를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암치료 유효율 70~75%)으로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구라모치 박사의 새로운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암치료 방법으로 CTC검사와 함께 암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4.txt

제목: “수지상세포치료에 이어 암줄기세포백신치료로 암 치료 유효율 높인다”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417  
ID: 01100201.2014041110000041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생활] 일본 전역 35여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암치료 면역세포배양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새로운 암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을 지난해 12월부터 암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암세포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CTC(Circulating Tumor Cell·혈액순환종양세포) 검사를 도입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5종 복합면역 요법’과 ‘수지상세포 획득 면역백신 요법’이 결합된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에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2012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암 면역치료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신간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하여 의학박사로서, 암치료 전문병원장으로서, 세포치료 배양 전문가로서, 그리고 암환자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암치료를 위해 나아갈 방향, 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암 환자에게 희망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br/>CTC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다. 이러한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이다.<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더불어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여줄 수 있다</span>”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br/>구라모치 박사는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시행해 온 5종복합면역요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를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신(新)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DC-AIVac/WT1:암치료 유효율 70~75%)으로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br/>‘암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요법’(DC-AIVac/CSC요법)은 구라모치 박사의 새로운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암치료 방법으로 CTC검사와 함께 암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5.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돌파  
날짜: 201404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1100000307  
ID: 01100201.2014041110000030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사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로봇수술이 100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br/>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한 이후 3년만에 이날 이모(74)씨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br/>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른 반면 통증·출혈이나 상처감염 위험성은 적다. 또 복강경 수술에 비해 신경손상이나 주변조직 손상도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로봇수술은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로봇수술을 받은 이씨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은 뒤 로봇수술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다만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여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br/>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6.txt

제목: MBN 리얼다큐 숨, 미래항암제 후코이단 조명  
날짜: 201404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10100000230  
ID: 01100201.20140410100000230  
카테고리: 사회  
본문: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 사례자로 출연<br/><br/>[쿠키 건강]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의 암 극복기가 MBN 방송 리얼다큐 숨에 소개된다.<br/><br/>4월 10일 10시에 방영되는 ‘신비의 바닷속 영약, 해초’ 편에 미역귀 후코이단을 먹고 전립선암을 완치한 이정식 사장의 사례가 방영되는 것.<br/><br/>미역귀, 다시마 등 갈조류에 주로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체내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면역증강 기능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억제기능 △암의 전이를 막는 암세포 혈소판 점착 억제 기능 등이 알려져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br/><br/>실제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후코이단을 항암치료와 병행 처방하는 의사가 늘고 있을 정도로 효과를 공인받고 있다.<br/><br/>리얼다큐 숨에 소개된 이정식 사장은 37년간 해조류 무역업을 해온 해조 전문가.<br/><br/>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동진행한 후코이단 생산 국책사업의 단독사업자로 선정돼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했으나 2007년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는 아픔을 겪는다.<br/><br/>그러나 엄격한 식이요법과 직접 만든 후코이단 음용을 통해 전립선암을 완치, 현재는 후코이단 및 해조식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br/><br/>후코이단을 통한 이정식 사장의 암 극복기는 4월 10일 10시 MBN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7.txt

제목: EGFR 돌연변이 없는 폐암환자, 기존 항암제가 효과적  
날짜: 201404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9100000225  
ID: 01100201.2014040910000022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표적항암제 이레사나 타세바 보다 효과 좋아,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br/>[쿠키 건강]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없는 폐암환자 치료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가 EGFR 표적항암제인 ‘이레사(Iressa)’나 ‘타세바(Tarceva)’ 보다 효과적이라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br/>현재 EGFR 돌연변이 음성 폐암환자는 국내 폐암환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사진 왼쪽), 이준구 전문의(가운데),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 의학통계실 한서경 교수(오른쪽) 공동연구팀은 EGFR 표적항암제와 기존 항암제 치료를 비교한 11개 임상시험의 1605명 환자 치료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br/>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의학저널인 미국의학협회지(JAMA) 9일자에 게재됐다.<br/>공동연구팀은 표적항암제 효능에 논란이 있어 온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군에서 최선의 치료 약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행했다.<br/>연구팀은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한 경우가 EGFR 표적항암제로 치료한 것 보다 암의 진행속도가 느리고(중앙 무진행 생존기간 6.4개월 대 4.5개월), 종양크기도 더 많이 감소(반응율 16.8% 대 7.2%)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이들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와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에서 모두 관찰됐다.<br/>연구팀에 따르면 두 치료군 간에 전체 생존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임상시험 이후 받은 후속치료에 의해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팀은 향후 EGFR 돌연변이 음성환자에서는 EGFR 억제제보다 기존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br/>폐암은 국내 암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이다. 그러나 최근 표적항암제의 등장으로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표적항암제인 이레사 혹은 타세바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군은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EGFR 돌연변이 음성인 나머지 60% 환자에서 이레사, 타세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있었다.<br/>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EGFR 돌연변이 음성 환자군에 대한 치료 방침 설정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과 ‘란셋(Lancet)’ 과 더불어 세계 3대 의학저널로 꼽히는 ‘JAMA’에 게재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8.txt

제목: CJ헬스케어, R&D로 승부  
날짜: 201404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8100000188  
ID: 01100201.201404081000001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CJ헬스케어가 신약 및 개량신약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지난 4월 1일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에서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한 CJ헬스케어는 출범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하여 2020년 매출 1조의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출사표를 던졌다.<br/><br/>올해로 만 30년을 맞은 CJ그룹의 제약사업은 86년 간염예방백신인 ‘헤팍신-B’를 순수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하면서 R&D 포문을 열었다. 90년에 고도의 정밀화학 기술이 필요한 기초 원료 물질인 7-ACA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며 R&D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1998년 신성 빈혈치료제 EPO제제(제품명: 에포카인)를 세계 3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EPO를 보급하며 의약품의 국산화에 앞장섰다.<br/><br/>30년간 쌓아온 R&D기술력을 바탕으로 CJ헬스케어의 순환, 대사, 소화, 항암 계열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등의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br/><br/>먼저 CJ헬스케어의 이름으로는 처음 출시될 신약으로 새로운 기전의 역류성 위식도염 치료 신약(과제명 CJ-12420)이 개발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 29조원, 국내 2450억원(IMS)의 규모로 매 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역류성 위식도 질환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CJ-12420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P-CAB,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라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미 임상 1상에서 기존 PPI제제보다 빠르고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와 뛰어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출시 목표 해인 2018년 출시될 경우 국내 및 세계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치료제이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CJ헬스케어는 현재 CJ-12420에 대해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임상 3상 IND 승인을 목표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이 외에도 CJ헬스케어는 표적항암제 및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IBS(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신약 R&D로 미래 성장동력을 축적하고 있다.<br/><br/>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2세대 EPO 개발이 진행 중이다. EPO제제(신성빈혈치료제/제품명 에포카인)개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CJ헬스케어는 2019년 출시 목표로 기존 1세대 제품 대비 투여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개선한 2세대 EPO의 IND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치료제 시장이 세계 11조원, 국내 1200억원의 규모를 띄고 있어 향후 CJ헬스케어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개량신약으로는 나날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성질환 및 암 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고혈압+고지혈, 당뇨, 항암 등 순환, 대사, 암 질환을 중심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해 관련 치료제 시장지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전략이다.<br/><br/>CJ헬스케어는 자체 개발 및 병원, 벤처, 연구기관 등과의 C&D(Connect&Development)를 활용해 다양한 질환 군의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순환, 대사, 소화, 암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Heal the world, better life로의 비전을 실천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39.txt

제목: 마크로젠, 차세대 시퀀싱 서비스 확대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308  
ID: 01100201.20140407100000308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쿠키 건강] 국내 대표 유전자 분석업체 마크로젠이 자사의 차세대 시퀀싱 서비스 라인에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아이온 토렌트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br/>마크로젠은 유전자 시퀀싱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국 기반의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이미 2011년부터 라이프 테크놀로지스의 아이온 프로톤, 아이온 PGM 등 최신의 차세대 시퀀싱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br/>최근에는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아이온 앰플리식 엑솜 인증 서비스 업체’ 에 가입했으며 엑솜 시퀀싱 및 아이온 앰플리식 핫스팟 암 패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br/>김형태 마크로젠 대표는 “아이온 프로톤과 아이온 PGM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마크로젠은 가장 포괄적인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엑솜 시퀀싱과 아이온 앰플리식 핫스팟 암 패널 서비스를 통해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가 가속화되길 기대하며 최고 품질의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0.txt

제목: 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 혈액 속 암 세포 검출·분리 기술 개발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354  
ID: 01100201.201404071000003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국내 연구팀이 혈액 속의 암세포를 손상 없이 검출해 분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br/><br/>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사진) 연구팀은 최근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혈중종양세포, Circulating Tumor Cells)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손상 없이 검출·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화학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Angewandte Chemie(인용지수 13.734) 3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br/><br/>일반적으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원발 부위를 벗어나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암세포 숫자가 매우 적어 검사가 쉽지 않았다.<br/><br/>조영남 박사팀은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과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 10억개의 혈구 중에서 1개의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고민감도 검출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검출된 암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br/><br/>이렇게 분리한 암세포는 추가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조영남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혈중종양세포 외에도,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 유래 유전자 및 단백질의 효율적인 검출 및 분리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 관련 진단 및 치료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br/><br/>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지난해 12월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1.txt

제목: [메디컬 뉴스] ㈜금강보청기, 보청기 렌탈 서비스 새로 시작 外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047  
ID: 01100201.20140407100000047  
카테고리: 사회  
본문: 보청기 렌탈 서비스 새로 시작<br/>㈜금강보청기는 전국 100여 개 자사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 난청인들에게 월 3만원대부터 보청기를 1∼3년간 빌려주는 보청기 렌탈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고가여서 장만하지 못했던 난청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자는 금강 보청기 렌탈 서비스 전용 전화(1588-5233)로 먼저 상담한 후 가까운 전문 센터를 안내 받아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보청기를 맞추면 된다. 6개월 내 분실 시 무상 재제작 서비스도 실시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보청기는 본인 소유가 된다.<br/>척추건강 지침서 '미니맥스…' 펴내<br/>우리들병원은 수술의 위험성과 비(非)수술 요법의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척추건강지침서 ‘미니맥스 척추시술’을 펴냈다. 이상호 이사장 등 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최소 상처 척추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만8000원.<br/>10일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br/>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위원회(위원장 정구용)는 10일 오후 4∼6시 김옥길홀에서 ‘이화 생명나눔 캠페인’ 행사를 갖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유명철 이사장이 ‘생명을 나누면 세상을 살린다’, 한국장기기증원 하종원 이사장이 ‘한국 장기기증의 현황과 미래’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희망 서약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전달식도 열린다(02-2650-2837).<br/>'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 공동 출간<br/>연세암병원 노성훈 병원장과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이 암 치료 중 체력 유지를 위한 식사 원칙과 요리법을 소개한 ‘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를 공동 출간했다. 수술 후 회복 단계별 요리와 함께 항암치료 중 식사가 어려울 때 무슨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건강 간식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1만7000원.<br/>아토피 치료제 '엘리델' 독점 판매<br/>㈜대웅제약은 최근 한국메나리니와 비(非)스테로이드성 아토피 치료제 ‘엘리델’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엘리델은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국소면역조절제로 경·중증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2.txt

제목: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 덴마크에서 자궁경부병변 감소 효과 확인  
날짜: 201404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7100000239  
ID: 01100201.201404071000002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다실 접종한 1993~1994년 출생 여성,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 80% 위험 감소<br/><br/>[쿠키 건강] 덴마크에서 4가 HPV(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제품명 가다실)이 도입된 후 실제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게재됐다.<br/><br/>덴마크 지역사회 암연구센터(Danish Cancer Society Research Center)는4가 HPV 백신이 지난 2006년에 덴마크에 도입된 이후 자궁경부병변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팀은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덴마크에서 태어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PV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출생연도별로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해 데이터를 추적 조사했다.<br/><br/>연구 결과, 4가 HPV백신을 접종받은 1991년에서 1994년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3년에서 1994년에 출생한 여성의 자궁경부전암병변 3기의 위험은 최대 80%까지 감소했으며 2기와 3기를 통틀어 자궁경부전암병변 위험이 73% 감소했다.<br/><br/>HPV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의 세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궁경부 전암병변의 단계가 높을수록 자연퇴행률은 낮고 자궁경부암 진행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김진오 한국 MSD 의학부 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덴마크의 연구발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도입된 4가 HPV백신 가다실이 자궁경부전암병변 위험에 대한 감소 효과를 실제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MSD는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통해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4가 HPV 백신 가다실은 HPV 16,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HPV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132개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HPV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52개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됐다.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26세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9~26세 남성 및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과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3.txt

제목: [암과의 동행] 갑상선학회,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입장은?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189  
ID: 01100201.2014040410000018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 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정재훈)가 공식입장을 밝혔다.<br/><br/>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독 갑상선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과 달리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방문하여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또한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병원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넣어 갑상선암의 조기진단이 급증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밖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 진료권고안이 법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 까닭에 실제 진료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하지만 이런 조기진단만으로 급증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국가암통계자료를 보면 1cm 이하의 미세유두암과 1~2cm 이상의 큰 갑상선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학회는 19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 연령층이 아님에도 갑상선암이 최근 10년간 약 2.3배 증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상선암 발생에 환경적 인자보다 유전적 소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쉽게 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이외에도 요오드의 과다섭취, CT나 PET 검사 등과 같은 의학적 방사선 피폭의 증가, 비만인구의 증가 등이 일부 갑상선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후보인자들이라고 설명했다.<br/><br/>◇직경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직경 1 cm 를 넘는 암은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이상 장기간 추적한 결과 등에 근거한 것이다.<br/><br/>다만 “추적관찰을 하다가 종양이 커지거나 주위로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될 때에 비로소 세포검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지난 2010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권고안에서 갑상선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다 하더라도 직경 0.5cm 이하인 경우 주위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br/><br/>학회는 직경 1cm 를 넘는 암의 경우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률과 재발률을 의미 있게 낮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직경 0.6cm와 1cm 사이 종양의 경우가 애매하지만 재발률을 낮추고, 암의 크기가 0.6~0.8cm 이상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경과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 미국갑상선학회에서도 이런 경우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br/><br/>◇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 올바른 표현인가?<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무엇보다 먼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미분화암처럼 진단후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뒤늦게 재발하고 뒤늦게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br/><br/>즉, 누적 사망률은 진단 후 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10~30년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더욱 최근에 문제가 되는 1cm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이르고 앞으로 최소 10년 후에나 판단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암만 치료하라?<br/><br/><br/><br/>학회는 1cm 이상의 갑상선종양도 의사의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암이 매우 커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경우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br/><br/>갑상선종양의 위치와 크기, 목의 두터운 정도,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촉지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초음파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br/><br/>또한 암이 여러 장기로 원격 전이되는 경우 전이 장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br/><br/>◇갑상선암 과잉진료 보다 비합리적인 제제가 더 큰 해악<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록은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제를 가하면 더 나쁜 해악이 될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br/><br/>이어 “개인이 자기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이라며 “만약 갑상선종양이 발견된다면 의사는 지금까지 입증된 자료에 근거해 제시된 진료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br/><br/>특히 “치료 계획은 각 개인의 의학적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정확한 진행 상태파악 및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의료 행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4.txt

제목: 한방 암 면역치료 시행 ‘하나통합한의원’, 핵심은 티버스터  
날짜: 201404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252  
ID: 01100201.201404041000002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200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은 K(58·여)씨. 이후 여덟 번의 항암치료와 30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7월 종합건강검진에서 복막에 전이된 위암이 발견됐고, 2012년 8월까지 11차 항암치료를 받던 K씨는 혈소판수치 감소로 항암 휴식기를 가졌다.<br/><br/>항암 휴지기에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은 K씨는 한방 암치료와 식생활 개선,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했다. K씨는 하나통합한의원이 독자 개발한 천연 항암 조성물 ‘티버스터(T.buster)’를 복용했다. 지난해 5월 K씨는 복막 전이 위암 판정을 받은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컴퓨터단층활영 검사에서도 복부의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br/><br/>이에 대해 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20% 이내의 증가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항암제를 시작하기 보다, 항암치료 휴지기를 가지면서 항암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고 몸의 균형과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span>”이라고 조언했다.<br/><br/>이처럼 하나통합한의원은 기존 항암치료와 병행해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암치료 지쳐있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한방 암 면역치료의 주안점은 환자들의 휴지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신체의 안정을 통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어 내는 ‘면역력 관리’에 있다.<br/><br/>◇독자 개발 ‘치종단(티버스터)’ 임상결과 학술지에 발표<br/><br/>암세포 휴지기에 신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 올리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한방 암 면역치료의 원리이자 목적이다. 이는 암 세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한방치료에 의해 보완된 몸으로 2차 항암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것을 뜻한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각종 암에 적용되는 한방치료와 면역치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증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현재 하나통합한의원이 시행하는 면역치료와 항암치료 방법은 우루시올(urushiol·옻나무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치종단과 치종탕이 있으며, 약침치료와 뜸, 침, 식이요법 등이다.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2'>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말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이 2012년 12월부터 독자 개발해 처방중인 치종단을 암환자 48명에게 적용한 결과,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복용해도 간기능 검사상 이상을 나타낸 환자는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복용기간이 9.3개월로 간기능검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관찰됐다. 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세계적 권위의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하기도 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현재 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마치고 제품을 선보였다.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 의료진이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 티버스터에 대한 임상결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연령·병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치종단(Ⅱ) ‘티버스터’는 구분에 관계 없이 단독치료 3개월 후 시행한 1차 관해평가에서 67% 이상, 단독치료로 12개월 후 시행한 2차 관해평가에서 36% 이상 안정상태(SD)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3'>한방 암 면역치료도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근거중심의학 기반의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개인별 맞춤치료와 통합의학을 통해 암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5.txt

제목: 서울대병원 장진영 교수, 세계간담췌학회 최우수 구연상 수상  
날짜: 201404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293  
ID: 01100201.201404041000002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사진)까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간담췌학회(IHPBA)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br/>장 교수는 2000편이 넘는 발표 연제 중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이는 한국인 수상자로는 최초이다.<br/>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국제 다기관 연구 결과를 통한 췌장암 전구병변의 악성 위험 평가를 위한 진단모델 개발’ 제목으로 학술대회 4일차인 지난달 26일 Best of Best Plenary Oral Session에서 소개됐다.<br/>췌장암은 전형적인 선진국 질환으로 알려져, 연구나 진료가 서양이나 일본 위주로 진행됐으나, 이번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췌장 진료의 수준 및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반증한다.<br/>장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2000년 이후 한국에서도 췌장암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국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췌장암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적절한 수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에 이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이 연구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7개 대형 병원과 일본의 동경의대, 오사카의대병원 등 20여개 이상의 유수 대형병원이 참여한 국제적인 연구인데, 이것을 처음으로 국내 학자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br/>장 교수는 국내 의료진으로서는 유일하게 2010년부터 세계췌장학회 주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췌장암 전구병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췌장암의 치료 성적 향상 및 적절한 치료대상을 정하는 췌장암 치료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br/>이에 대해 장 교수는 “췌장암의 치료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췌장암 조기진단을 위한 도구개발 함께 적극적인 수술 및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병행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췌장암이 치료 불가능한 암으로 여겨졌으나, 조기발견 췌장암의 경우 치료 후 완치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진행 중인 췌장암 조기진단 종양마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췌장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6.txt

제목: 방송 프로그램서, 한의학 현재와 미래 집중 조명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56  
ID: 01100201.2014040210000025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Early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Non-Small-Cell Lung Cancer’라는 논문은 기존의 공격적 치료 위주의 암치료 패러다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싸.<br/><br/>전이성 폐암 환자가 완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벼운 공격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공격적인 ‘표준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보다 삶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생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암 치료 시 암 ‘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표준치료’보다 암 환자 ‘몸’을 중시하는 치료가 오히려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하나의 역발상이었다.<br/><br/>벚꽃이 만개한 환절기에 주변에서 흔히 면역력 증진, 면역력 강화와 같은 면역력과 관련된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60kg의 성인의 경우,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0~10,000내외의 암 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br/><br/>이런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면역감시체계’에 의해 인지되고 제거되고 통제되어 암 발생이 억제된다는 것이 ‘종양면역학’에서 밝혀지고 있다.<br/><br/>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로부터 면역력을 부여받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면역학습을 통해 2차성징이 이루어질 때까지 면역계가 성숙되어 온전한 ‘면역감시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면역감시체계는 건강 신체에서는 온전히 정상 기능을 발휘해서 암을 억제하지만, 흡연, 바이러스, 화학물질, 방사선, 자외선, 스트레스와 같은 발암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암의 억제력을 넘어선 발암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된다.<br/><br/>이렇게 발생한 암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와 같은 공격암치료와 더불어, 암을 스스로 억제하는 ‘면역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인적 치료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br/><br/>미국, 독일을 필두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통합암치료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조명하고, 미래 부가가치의 근원으로써의 한의학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자 ‘우리의학,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1일 오후 10시에 심층 조명됐다.<br/><br/>미국의 MD앤더스암센터와 중국의 악양병원을 거쳐 통합암치료의 세계적 흐름을 익혀온 방선휘한의원의 방선휘 한방내과전문의는 “<span class='quot0'>한의학의 치료기술을 통해 초기암의 수술전후 관리부터 말기암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분에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효과는 WHO에서도 공언한 바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7.txt

제목: 과일·야채 권장량 倍 늘려야… “야채가 과일보다 4배 효과”  
날짜: 20140402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094  
ID: 01100201.201404021000000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하루 야채 및 과일 섭취량은 5접시(접시당 80g으로 전체 400g)다. 이를 배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일보다 야채가 4배나 건강에 더 좋다는 점도 확인됐다.<br/>영국 런던대(UCL) 연구진은 영국인 6만5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연구결과 야채나 과일을 최소 하루 7접시 먹는 사람은 1접시 이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조기사망률이 42% 줄었다. 또 5∼7접시를 먹는 사람의 조기 사망률은 36%, 3∼5접시는 29%, 1∼3접시는 14% 감소했다. 최소 7접시를 먹는 사람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5%, 심장병 사망률은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방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 7접시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고, 10접시가 최적의 숫자</span>”라고 주장했다. 하루 5접시의 WHO 권장량을 최소 2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를 이끈 오이놀라 예보데 박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아무리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더 먹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글래스고대 나비스 사타르 박사는 “<span class='quot1'>하루 7접시 이상 먹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야채와 과일에 보조금을 지급해 비용을 낮추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에서는 야채가 과일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야채의 경우 접시당 16%씩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과일은 접시당 4%에 불과했다. 통조림에 들어간 냉동 과일은 사망률을 오히려 17%나 증가시켰다. 당분 때문이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2 플러스 5’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호주는 하루 과일 2접시와 야채 5접시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염병과 공공보건 저널’에 실렸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8.txt

제목: 국립암센터 자체개발 면역세포치료제, 임상 1상 식약처 승인  
날짜: 201404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215  
ID: 01100201.2014040110000021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은 폐암, 위암, 및 췌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터티엔티셀(TERTiNT Cell)의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br/><br/>국립암센터는 2009년부터 다양한 고형암 환자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유래 세포독성 T 세포치료제’ 개발을 수행해 왔다. 지난 3월 21일 터티엔티셀(TERTiNT Cell)의 제1상 임상시험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돼, 표준 치료에 실패한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착수한다.<br/><br/>hTERT(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는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단백질로, 대부분의 암세포들이에 많이 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세포들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터티앤티셀(TERTiNT Cell)은 hTERT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치료 대상 환자는 사전선별검사를 통해 hTERT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확인된 환자로 표준 치료에 실패한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환자들이다.<br/><br/>이진수 원장은 “<span class='quot0'>표준 치료에 실패하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많은 폐암, 위암,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립암센터는 자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제로, 버킷 림프종, 비인두암, 호지킨 림프종, 림프세포증식 질환 및 위암을 위한 앱비앤티셀(EBViNT Cell)과 악성 뇌종양(악성신경교종)을 위한 위티엔티셀(WTiNT Cell)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49.txt

제목: 런던대 연구진 "하루에 과일·채소 최소 7접시 먹어라"… WHO 권장량 2배로 늘려야  
날짜: 20140401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496  
ID: 01100201.201404011000004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생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하루 야채 및 과일 섭취량은 5접시(접시 당 80g으로 전체 400g)다. 이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일보다 야채가 4배나 건강에 더 좋다는 점도 확인됐다.<br/>영국 런던대(UCL) 연구진은 영국인 6만5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연구 결과 야채나 과일을 최소 하루 7접시 먹는 사람은 1접시 이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조기사망률이 42% 줄었다. 또 5~7접시를 먹는 사람의 조기 사망률은 36%, 3~5접시는 29%, 1~3접시는 14% 감소했다. 최소 7 접시를 먹는 사람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5%, 심장병 사망률은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방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 7접시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고, 10접시가 최적의 숫자</span>”라고 주장했다. 하루 5접시의 WHO 권장량을 최소 2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를 이끈 오이놀라 예보데 박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아무리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더 먹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글래스고 대학의 나비스 사타르 박사는 “<span class='quot1'>하루 7접시 이상 먹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야채와 과일에 보조금을 지급해 비용을 낮추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에서는 야채가 과일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야채의 경우 접시 당 16%씩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과일은 접시 당 4%에 불과했다. 통조림에 들어간 냉동 과일은 사망률을 오히려 17%나 증가시켰다. 당분 때문이다. 과일 쥬스는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2 플러스 5’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호주는 하루 과일 2접시와 야채 5접시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염병과 공공 보건 저널’에 실렸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0.txt

제목: ‘강한병원’으로 제2도약 선언, 서유성 순천향대병원장  
날짜: 2014033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151  
ID: 01100201.2014033110000015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개원 40주년, 서울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br/><br/>[쿠키 건강]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이라는 순천향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고, 그 정신을 40년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이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강점이 많은 이유죠.”<br/>순천향대학교병원 서유성 원장은 오는 4월 2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강한병원, 좋은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병원 구성원들이 제2의 탄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br/>이를 이해 순천향대병원은 지난 2년 동안 외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병동 리노베이션에 본격 나선다. 특히 순천향대병원은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화두로 10년, 20년 후에도 좋은병원, 강한병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br/>이처럼 순천향대병원 개원 40주년을 넘어 제2도약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서유성 원장은 “순천향대병원 설립자께서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라는 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셨다”며 “순천향이란 이름에서 묻어나오는 느낌처럼 인정이 넘치고 교직원들끼리 우애가 두텁다.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께서도 인간적인 정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고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봤다.<br/>◇1974년 문연 순천향대병원은?<br/>1974년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환자사랑의 순천향(順天鄕) 정신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했다.<br/>설립자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1921~1999)는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인공이자 대표적인 한국의 의료인으로 평가받는다. 1946년 일본 경도부립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까지 서울대의대 내과 조교를 거쳐 미국 코넬의대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마쳤다.<br/>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를 잡은 순천향은 현재의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모체로 1978년 학교법인 동은학원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갖춘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했다. 이어 1979년에는 순천향구미병원 개원에 이어 1982년 순천향천안병원을 개원했다. 지난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7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을 거느리고 전국 4곳에 네트워크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다.<br/>특히 2001년에는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부천병원을 개원해 순천향의료원은 현재 3000병상의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30개 진료과에 750병상을 운용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60여명의 전문교수진을 포함하여 1600여명의 교직원이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br/><br/>◇40년 역사에 이은 강한병원 되도록 노력할 것<br/>서 원장은 “지난 40년 역사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풍부하고, 훌륭하신 교수들도 많다. 또한 사이버나이프를 비롯해 최신 방사선 암치료기인 인피니티 등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증이나 평가에서 상위등급과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어 실력과 경험 모두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br/>특히 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 기울인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 원장은 수익증대를 통한 건실 경영, 공간의 효율적인 구성과 재배치, 조직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신관 오픈을 계기로 외래 검사실, 진료실, 각 센터 등을 리노베이션했다고 설명했다.<br/>이러한 시스템과 병원 체질 개선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이뤄졌다. 서 원장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고민에서 모든 외래 진료가 같은 층에서 이뤄지도록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br/>또한 CT, MRI, 초음파 검사 등 모든 영상의학적 검사도 한 곳으로 모았으며, 곧 선보일 확장된 응급의료센터도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게 된다.<br/>이와 함께 순천향대병원은 올 해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화두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순천향대병원과 서유성 원장은 다섯 가지 혁신을 추진 중이다. 경영혁신, 진료환경 혁신,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혁신, 병원의 위상 혁신, 교직원들의 마음가짐 혁신이 그것이다.<br/>서 원장은 “클리닉, 센터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당일 내원 환자는 당일 진료와 검사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력병의원과 유대도 강화하고 있으며,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의료관광도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제진료센터도 강화하고, 국제협력팀을 만들어서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br/>이외에도 순천향대병원은 통합의료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의료정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15년 초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순천향대병원이 첨단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br/>“우리 병원의 비전이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입니다. 10년 후에 순천향은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좋은병원 강한병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br/>“<span class='quot0'>새로운 병원, 더 발전한 병원, 순천향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병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span>”는 서유성 원장은 “<span class='quot0'>순천향대병원이 진정한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span>”고 강조해다.<br/>한편, 순천향대병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4월 2일 오후 6시30분부터 용산아트홀에서 기념 공연을 펼친다. ‘순천향, 마흔 살의 이야기’ 주제의 이날 공연은 개그맨 서경석씨의 사횔, 인기 가수 바비킴과 JK김동욱 BMK가 각각 토크와 노래를 들려 줄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1.txt

제목: [김양규의 성서 한방보감] 영양 불균형  
날짜: 2014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019  
ID: 01100201.20140329100000019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비만은 영양 과잉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양 불균형이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영양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미량원소가 다 필요하다. 3대 영양소는 많이 필요하고 미량원소는 적은 양만 있어도 된다. 3대 영양소는 소위 타는 영양소이며 미량원소는 태워주는 영양소이다. 타는 영양소가 잘 타기 위해서는 태워주는 영양소가 잘 태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태워주는 영양소인 미량원소가 부족하면 타는 영양소인 3대 영양소가 잘 타지 못한다.<br/>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 되어 이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ATP라는 에너지화가 돼야 하는데, 잘 태워지지 못하면 포도당이 핏속에 다량 남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당뇨도 되고 비만도 된다. 그래서 비만은 영양의 불균형이 원인이다.<br/>당뇨 역시 마찬가지다. 당분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당분을 분해하는 요소를 많이 먹지 않아서 생긴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아무리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분해시키는 마이너 팩터를 많이 먹어주면 예방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량원소들을 의도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br/>암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으면 암이 되기 쉽고 암세포에 원료를 공급해서 증식을 촉진시키는 셈이 된다. 또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민이라는 물질은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원료가 되는데, 이것은 위장 내에서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아질산염은 가공육이나 어육연제품 등에 식품첨가물인 발색제로 첨가되고 있다. 동물성단백질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그 대사에서 비타민 B6를 필요로 하는데,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크산투렌산이라는 중간대사 산물을 만들게 된다. 이 물질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독작용을 한다.<br/>그러므로 동물성단백질의 과잉섭취는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육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다.<br/>결핵 역시 마찬가지다.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공기 중에 결핵균이 많을까만 그런 결핵균을 마신다고 다 결핵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영양의 불균형으로 꼭 필요한 영양이 부족할 때 한방에서 말하는 폐음부족, 원기부족증으로 결핵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 감기 끝이나 오랜 질병의 끝에 기운이 진해져서 생기게 되는데 원인균은 물론 결핵균이지만 몸의 원기 부족 때문에 발병하게 된다. 원인균을 마셔서 다 병이 생긴다면 병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br/>감기 역시 그렇다.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감기가 많은 부분 예방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는 것은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큰 동기가 된다. 물 안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있는데 우린 일상에서 물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는다. 꼭 목이 마를 때가 아니더라도 식간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미네랄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br/>한방에서 건강은 음과 양의 균형으로 본다. 영양 역시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이 맞지 않은 식사를 한다. 그 때문에 생기는 병이 적지 않다. 음식만 조금 신경 써 먹으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다.<br/>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다. 간혹 진리투쟁을 하다 보면 은혜를 잃게 되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거스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런 경건생활이 건강한 경건생활이라 싶다. 한방에서 건강을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확인하게 된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2.txt

제목: 장홍석 서울성모병원 교수, 대한방사선수술학회장에 선출  
날짜: 201403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107  
ID: 01100201.20140329100000107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홍석 교수(사진)가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에 선출됐다.<br/><br/>장홍석 회장은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제9차 대한방사선수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3월까지 1년이다.<br/><br/>지난 2004년 창립된 대한방사선수술학회는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물리사 등 방사선수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로,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감마나이프학회, 사이버나이프연구회, 노발리스 연구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br/><br/>신임 장홍석 회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방사선물리학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기존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 첨단 방사선수술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힘쓰겠다</span>”고 말했다.<br/><br/>198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장 회장은 현재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상과장, 의료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3.txt

제목: 하나통합한의원, ‘췌장암’ 한방 암 면역치료 성과는?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04  
ID: 01100201.201403271000001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 췌장암 4기로 간 전이 진단을 받은 L(54·남)씨. 지난 2008년 갑상선 전절제와 주위 림프절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상복부 불편감과 5~6kg의 체중감소, 눈과 몸, 소변에서 황달증상과 몸의 소양감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L씨는 간수치와 빌리루빈 수치의 이상이 발견됐으며, 2013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 후 한방 암 면역치료를 위해 2013년 4월 12일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았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L씨는 한방 암 면연치료를 위해 한약으로 치종탕, 치종단, 면역단, 면역약침을 시행했으며, 2013년 5월1일 부터 티버스터 복용을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시 L씨는 예정됐던 화학요법은 본인이 포기해 한방 암 면역치료만을 받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한방 암 면역치료 후 L씨는 T.Bilirubin 수치가 9.4에서 2.2로 감소했으며, AST수치도 384에서 54, ALT 수치도 511에서 92로 줄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한방 암 면역치료는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병용되는 면역요법이 많다”며 “암세포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기전의 옻나무 약재를 사용하면 보조적 면역을 넘어 보조적 항암에 근접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티버스터도 이러한 개념으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11종 한의서에 근거해 처방을 내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은 면역요법이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옻나무추출물을 통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차단시켜 기존 3대 항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경우 천연물 성분 자체를 통해 천연물항암제를 개발해 보다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티버스터(T.buster)이다.<br/><br/>실제 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보근 원장은 이와 관련된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br/><br/>또 하나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은 치종단(Ⅱ)인 ‘티버스터(T.buster)’이다. 위 두 환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티버스터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4.txt

제목: 선병원, 몽골에 암·치과치료 국내 의료기술 전수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28  
ID: 01100201.2014032710000012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쿠키 건강] 대전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이 몽골 국립암센터와 선진 의료기술 전수 등을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br/><br/>이번 MOU체결은 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과 이승구 박사(정형외과), 선경훈 선치과병원장 일행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몽골 국립 암센터, 치과센터를 방문해 암 및 치과치료에 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MOU를 통해 선병원은 몽골 국립암센터와 암환자 치료 및 의료진의 교육과 연구, 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 업무를 추진한다.<br/><br/>선병원은 몽골에 암치료 최신 의료기술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료진 연수와 병원 서비스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또 암환자 치료를 위한 화상 컨퍼런스와 협력치료(치료 후 귀국하는 환자에 대한 현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암환자 치료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br/><br/>이날 협약식에서는 선승훈 의료원장이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선병원의 병원경영 차별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소아정형 및 골종양 분야 권위자인 이승구 박사는 ‘골육종 암 치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몽골 의료진 및 복지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br/><br/>선승훈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으로 선병원은 몽골 최대 암 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선병원의 의료서비스 문화도 함께 전수할 계획</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이와 함께 27일에는 국립치과센터를 방문 신축 치과병원의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의료진 연수를 진행키로 했다.<br/><br/>선경훈 선치과병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 방문은 중부권 최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치과병원의 경영 노하우와 1일 보철치료가 가능한 캐드캠 디지털치과에 대한 국립치과센터의 관심과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교정, 임플란트, 보철, 양악 등 14개 분과 시스템과 의료기술을 전수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선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 ‘한·몽골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에 선정, 몽골 의료진에게 척추·관절, 심장, 암분야의 의료기술 연수를 실시했고, 지원부서 80여명에게도 행정 및 서비스 교육을 병행하여 몽골의 의료환경 개선과 인력양성에 기여해 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5.txt

제목: 서울대병원, 美 암전문 시티오브호프 병원과 협력 강화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301  
ID: 01100201.201403271000003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이 미국 암 전문병원인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 측과 암 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br/><br/>서울대병원은 지난 25일 시티 오브 호프 대표단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br/><br/>이번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교수와 간호사, 수련의 등 의료진 및 학생 파견 프로그램 운영, 위암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시티 오브 호프 대표단은 위절제수술을 참관하는 등 서울대병원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위암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br/><br/>이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시티 오브 호프 병원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br/><br/>시티 오브 호프는 미국 ‘국립암센터 지정 종합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로 국립암센터의 지원 하에 새로운 암 예방·진단·치료 방법의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병원이다.<br/><br/>오병희 원장은 “<span class='quot0'>시티 오브 호프 병원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해 기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우수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암 치료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6.txt

제목: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 방사선치료 ‘탁월’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316  
ID: 01100201.20140327100000316  
카테고리: 사회  
본문: IHPBA 2014, 연세의대 윤홍인 교수 연구<br/><br/>[쿠키 건강] "연구 결과 방사선치료(RT)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LAHCC) 환자의 전체생존율(OS)을 개선시켰다. 더욱이 정상적인 간기능과 좋은 행태를 보이는 LAHCC에서 RT는 효과적인 치료이다."<br/><br/>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간담췌학회 학술대회(IHPBA)에 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약학 윤홍인 교수팀은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의 RT 임상적 혜택'을 주제로 연구를 게재했다.<br/><br/>대한간암연구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RT는 증거수준-II에 해당된다. 여기서 환자는 간외 전이가 없어야 하고 Child-Pugh 분류 A-B, 종양 침범이 간조직 3분의 2미만 이어야 한다. 이에 성향점수매칭(PSM)분석을 통해 LAHCC 환자의 OS에서 RT가 가지는 효과를 평가했다.<br/><br/>연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RT를 진행한 829명과 무작위 등록된 코호트 연구군 4522명을 비교했다. 여기서 종양의 병기 I-II, 전이발생, Child-Pugh(B-C), 치료목적이 불분명한 환자를 제외한 각각 109명, 751명 대상으로 1대1 PSM 분석을 실시했다. 이 후 RT 시행 109명과 기타 치료군 109명을 직접 비교했다.<br/><br/>RT에 따른 OS 결과는 종양크기(>5cm), 단일암, 수정된 TNM 병기 III, T3, BLCL 분류 B, C, 간문맥 침범, 주간문맥 침범을 변수로 잡았다.<br/><br/>△먼저 종양크기(>5cm)에 있어 OS 중앙값은 RT군(11.5개월)과 비교군(5.7개월)이었다(HR 1.84 P<0.001).<br/><br/>△단일암에서 RT군(17.6개월)과 비교군(5.5개월)이었다(HR 1.92 P 0.01).<br/><br/>△수정된 TNM 병기 III은 RT군(17.6개월)과 비교군(5.8개월)이었다(HR 2.04 P 0.002).<br/><br/>△T3에서 RT군(17.6개월)과 비교군(5.8개월)이었다(HR 2.06 P 0.001).<br/><br/>△BLCL 분류 B는 RT군(19.6개월)과 비교군(9.4개월)이었다(HR 2.83 P 0.02). BLCL 분류 C는 RT군(10.5개월)과 비교군(5.7개월)이었다(HR 1.29 P 0.09).<br/><br/>△간문맥 침범에서 RT군(10.0개월)과 비교군(5.6개월)이었다(HR 1.27 P 0.13). 주간문맥 침범은 RT군(11.1개월)과 비교군(4.7개월)이었다(HR 2.32 P<0.001).<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7.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결과 발표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387  
ID: 01100201.201403241000003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일본 전이·재발 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br/><br/>아베종양내과 측은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 주제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의 연구 성공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br/><br/>이날 심포지엄에서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별 종양마커 검사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특징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실제 히로유키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1~9월 진행성 전이·재발 암 환자 총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와 복합 면역세포치료를 6회 실시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 이중 암세포가 완전 관해 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 된 환자는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는 22명(56.41%)으로 나타났으며 진행된 환자는 10명(25.64%)에 그쳤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체의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는 약 2~3시간의 성분 채혈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br/><br/>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는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따라서 CTL이 정상 세포를 공격할 확률은 거의 없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br/><br/>아베종양내과에 따르면 암 항원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WT1과 MUC1 펩타이드, 개인별 유전자검사를 하여 환자에게 맞는 암 항원을 찾아 추가해야 한다.<br/><br/>이와 관련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지금까지는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해 치료 효과가 떨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포함해 평균 3~5개의 펩타이드를 사용해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span>”고 전했다.<br/><br/>WT1 펩타이드는 1~449번까지 있으며,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함으로써 암 재발을 방지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8.txt

제목: DNA 검사로 대장암을 잡는다?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3100000034  
ID: 01100201.201403231000000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비침습적 DNA 검사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마운트사이나이병원 Steven Itzkowitz 박사팀은 NEJM 3월 19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대변 채취를 통한 DNA 검사를 실시했을 때 대장암 조기 발견률이 92%, 치료가 가능한 조기 암 발견율 역시 94%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DNA 검사는 평소 대장내시경을 꺼려하던 성인환자를 위해 대체검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연구팀은 50~84세 성인환자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변 샘플을 기반으로한 DNA 검사기기인 콜로가드(Cologuard)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침습적 검사인 분혈잠혈반응 검사(FIT)를 비교·분석했다.<br/><br/>그 결과 콜로가드가 대장암을 발견하는데 에서의 민감도가 92%, FIT는 74%였고, 고도 이형성증 폴립 발견율은 콜로가드가 69%인 반면 FIT는 46%로 나타났다. 단 특이성 부분에서의 민감도는 콜로가드가 87%, FIT 는 95%로 FIT가 8% 더 높았다.<br/><br/>Itzkowitz 박사는 "콜로가드가 대장암과 폴립을 발견하는데 높은 민감도를 보여 대장 내시경을 꺼려하던 환자들이 좀 더 쉽게 검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미국 다트머스의대 Douglas Robertson 교수도 "DNA 검사가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또 미국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는 대장내시경, 결장결 검사, FIT를 권고하고 있는데 DNA 검사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대상에서 포함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br/><br/>한편, 콜로가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앞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59.txt

제목: GSK, 면역항암백신(MAGE-A3) 3상임상에 연이은 '암초'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356  
ID: 01100201.2014032110000035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MAGRIT, 1·2차 종료점 충족 못해<br/><br/>[쿠키 건강] GSK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면역 항암백신이 후기임상에서 두번째 난관과 마주했다.<br/><br/>GSK는 MAGE-A3가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가을 흑색종을 타깃으로 한 해당 연구가 첫번째 장애물에 봉착한 이후 두번째이다.<br/><br/>하지만, 관계자들은 연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이 치료에 혜택이 예상되는 암환자의 부모집단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MAGE-A3는 종양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 항원-3를 목적으로 체내 면역체계의 공격을 자극한다. 관계자는 부모집단 연구가 2015년까지 계속되지만 결과에 있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br/><br/>MAGE-A3의 3상임상인 MAGRIT은 종양 면역치료에서 위약군 대비 무질병생존율(DFS)을 유의하게 올리지 못했다. 1차 종료점은 전체 MAGE-A3 양성 모집군과 위약 비교, 2차 종료점은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MAGE-A3 양성 환자의 비교 결과였다.<br/><br/>이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대조군 연구로 병기 1B~3A로 진단 받은 약 3분의 1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27개월 동안 MAGE-A3와 위약을 13회 근육주사해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여기에 34개국 400개 지역 이상에서 MAGE-A3 양성을 보인 환자 2312명이 등록됐다.<br/><br/>이번 후기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GSK의 주가는 2% 가까이 떨어졌다. 항암 백신에 사용되는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업체인 Agenus 역시 이날 주식장이 개시되자 13%까지 하락했다.<br/><br/>Agenus의 주식은 지난 가을 GSK의 MAGE-A3가 흑색종을 타깃으로한 첫번째 3상임상이 실패하면서 동반 타격을 받은 바 있다.<br/><br/>MAGE-A3는 연이은 실패로 GSK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GSK R&D 총책임자인 Moncef Slaoui는 "이 새로운 치료제가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잠재성이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치료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br/><br/>그는 현재 HGS 인수 당시 획득한 심질환 치료제 다라플라딥(darapladib)과 MAGE-A3 같은 최첨단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br/><br/>다라플라딥은 작년 가을 첫번째 3상임상에서 실패했다. 또 듀켄씨근이영양증(DMD) 치료제인 드리사퍼센(drisapersen)이 작년 후기임상에 실패하면서 제제의 권리를 프로센사(Prosensa)에 반환한 바 있다.<br/><br/>한편, 이번 실패는 항암 백신 시장에 또 한번의 차질로 남았다. MAGE-A3가 연이은 후기 임상실패로 허둥거리는 반면 면역 종양 치료제인 MK-3475와 니볼루맙(nivolumab)은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다.<br/><br/>이와 함께 Merck KGaA는 항암 백신 스티뮤박스(Stimuvax)의 후기임상에 실패했다. 이제제는 현재 테세모타이드(tecemotide)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 환자 모집단을 선정해 피보탈 연구를 재시행하려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0.txt

제목: 건강에 좋은 ‘봄나물’은?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45  
ID: 01100201.20140321100000245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쿠키 건강] 조선시대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을 그린 ‘농가월령가’ 이월령(음력)에는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고들빼기, 씀바귀, 소루쟁이, 물쑥은 이른 봄에 나오는 봄나물들이다.<br/>봄나물은 대부분 먹거리와 약재로 함께 쓰이는 양수겸장이다. 들이나 습지 근처에서 주로 자라는 소루쟁이가 좋은 예다. 어린잎은 먹고 말린 뿌리는 건위제나 피부약, 해열제로 이용한다. 양재근은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도 제시됐다.<br/>물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대개 연한 뿌리와 줄기를 요리해서 먹는다. 흙냄새 같은 독특한 향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고들빼기도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먹으면 쓴맛이 난다. 씀바귀는 언뜻 보기에는 냉이나 고들빼기와 닮았다. 이름처럼 쌉싸름한 맛이 난다. 바로 이 쓴맛이 미각을 북돋워준다. 뿌리를 주로 먹는 씀바귀는 춘곤증에 시달리는 직장인, 수험생에게 유익하다.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어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건강에 좋은 봄나물에 대해 알아본다.<br/>◇달아난 식욕도 불러들이는 맛<br/>봄나물의 맛이 쓴 것은 안에 사포닌이란 쓴맛 성분이자 웰빙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인삼의 약효 성분이기도 하다.<br/>봄나물이라고 하면 달래, 냉이, 씀바귀 등 어릴 때 부른 동요에 등장하는 식물들이 먼저 떠오른다. 이들은 모두 이른 봄에 나온다. 달래는 마늘과 ‘사촌’이다. 달래에는 마늘의 대표적인 항암성분인 알리신이 들어 있어 매운맛이 나지만 동시에 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br/>피로 해소를 돕고 유해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C도 풍부하다. 식욕을 되살리는데도 그만이다. 뼈와 치아 건강을 돕고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이 봄나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달래는 깨끗이 씻은 뒤 고추장, 식초, 깨소금에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것이 좋다.<br/>향이 독특한 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채소로 유명하다. 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춘곤증이 심한 사람에게 냉이를 추천하는데, 냉이는 피로를 해소하는 비타민 B1과 노화 방지와 피로해소, 감기예방의 기능을 하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냉잇국이나 냉이 된장찌개는 멀찌감치 달아난 식욕을 불러들이고 활력을 되찾게 한다. 냉잇국은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 잘근잘근 씹히는 맛이 있다.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시금칫국에는 조갯살, 아욱국에는 마른 새우가 어울리듯이 냉잇국에는 쇠고기를 넣어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난다. 냉이를 무치거나 국을 끓일 때는 잡티를 깨끗이 골라내고 물에 씻을 때는 살살 주물러 풋내를 빼야 한다. 삶아서 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고 부드러워진다. 된장도 조선된장을 써야 제맛이 난다.<br/>◇칼슘,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쑥<br/>달래, 냉이, 씀바귀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봄나물이 더덕, 두릅, 쑥이다. 세 나물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도 대개 3~5월에 시장에 나온다. 셋 중 가장 먼저 출시되는 더덕은 씹을수록 진한 향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구워 먹지만 봄에 나는 연한 뿌리는 잘게 찢어 매콤하게 무쳐 먹어도 좋다.<br/>4월께 나오는 두릅은 대개 잎(새순)을 먹는다. 잎 크기가 성인의 엄지손가락만 할 때는 연해서 먹기 좋지만 이보다 더 커지면 질겨진다. 두릅은 단백질이 풍부한 나물로 보통은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만 튀김이나 물김치를 담가 먹어도 별미다.<br/>쑥은 봄나물 중 가장 늦게 시장에 나온다. 5월 단오에 채취한 것이 약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쑥은 과거부터 한방이나 민간요법의 약재로 널리 쓰였다. 맹자는 “<span class='quot1'>7년 묵은 지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라.</span>”는 말을 남겼다. 중국의 고의서인 ‘본초강목’에는 “쑥은 속을 덥게 하고 냉을 쫓으며 습을 없애준다.”고 기술돼 있다.<br/>영양적으로 칼슘,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웰빙 성분이다. 그러나 향이 너무 강한 탓에 쑥을 주재료로 만든 음식은 쑥 튀김 정도다. 보통은 국이나 떡에 넣어 먹는다.<br/>◇버릴 부분이 없는 약초, 민들레<br/>이 외에도 봄철에 자주 먹는 봄나물로는 돌나물, 망우초, 민들레가 있다.<br/>돌나물은 석상채라고도 불린다. 대개 맛이 쓴 새순을 먹는다. 봄에 돌나물을 초무침이나 물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생즙은 피로를 풀어준다. 망우초(근심을 잊게 해주는 풀)라고 불리는 원추리는 봄나물 중 거의 유일하게 단맛이 나는 채소다.<br/>봄에는 어린 싹을, 여름에는 꽃을 김치로 담가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다. 원추리에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 겨우내 지친 몸에 활기를 되찾아준다.<br/>봄 들녁을 곱게 장식하는 민들레는 국화과 식물이다. 영어명인 ‘dandelion’은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다. 톱니 같은 잎을 가져서다. 보통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야생화’지만 건강 전문가들에겐 ‘약초’다. 민들레는 버릴 것이 없다. 꽃은 따서 봄 내음이 가득한 술을 담그는 재료로 쓴다. 잎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br/>특히 잎에 든 베타 카로틴은 유해산소를 제거해 노화와 성인병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다. 또 잎을 먹으면 소변 보기가 쉬워진다. 그 효과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뇨제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다. 뿌리는 훌륭한 간 기능 개선제다. 뿌리에 든 콜린은 간 영양제로 알려져 있다.<br/>당뇨병 치료에도 유용하다. 동물실험에선 민들레 뿌리에 풍부한 이눌린이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뿌리를 고혈압 치료에 이용해왔다.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채취한 민들레의 약성이 가장 뛰어나다.<br/>파프리카, 양송이, 양상추, 청경채 등은 봄나물은 아니지만 봄의 에너지를 듬뿍 머금은 봄채소들이다. 봄나물처럼 칼륨,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해 봄의 나른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샐러드를 만들어 생으로 먹는 것이 봄나물이나 봄채소를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하는 방법이다. 최대한 많이 먹으려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다.<br/>\*도움말=임대종 원장(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1.txt

제목: 밀리터리 서비스 마저…안랩 ‘예비군 민방위’ 스미싱 주의보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418  
ID: 01100201.2014031910000041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쿠키 사회] 건강검진 청첩장 동창회 공지에 이어 이번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이다. 안철수연구소 기업 ‘안랩’이 19일 예비군·민방위 훈련 일정 통보를 미끼로 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br/>안랩은 3월 첫주 스미싱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2030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일정을 알려면 누르라며 무차별 뿌려진 스미싱 문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br/>안랩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계속 주제가 바뀌는 스미싱 문자를 알리고 있다. 3월 들어 악용된 사례는 암 검진, ‘사랑가득~’ 안부 묻기, 장녀 결혼, 동창회 불참시 벌금, 면세점 여인의 날 이벤트, 아이 안전 지킴이 등등을 자처한 메시지다. 여기에 붙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털리게 된다.<br/>1~2월엔 소치올림픽,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발렌타인데이, 설날 안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이 등등에 심지어 “고객님 메일이 불법 사용으로 조회되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스미싱까지 있었다.<br/>안랩은 “<span class='quot0'>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장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사회 공학적 기법이 주를 이룬다</span>”며 즉시 삭제를 당부했다.<br/>사진=안랩 트위터(@AhnLab\_man)<br/>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2.txt

제목: 카엘젬백스, 식약처에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32  
ID: 01100201.201403191000003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V1001’의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br/><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전립선비대증 호르몬 조절제로서 이미 특허를 출원했으며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화학치료제인 도세탁셀을 병용 투여한 실험 군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및 암세포 이동성 억제에 대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세계 전립선암 치료 시장은 2012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립선암 시장은 최근 2012년 750억원 규모로 2년 전 대비 66% 급속한 성장을 했으며, 제약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3.txt

제목: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부서장 신정범 상무 임명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37  
ID: 01100201.20140319100000337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에는 이희정 이사<br/><br/>[쿠키 건강] 한국로슈는 신임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에 전(煎)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 신정범(사진) 상무를, 신임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에 이희정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br/><br/>신임 항암제 부서장으로 임명된 신정범 상무는 2010년 스페셜티 케어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로 입사했으며, 당해 신설된 Commercial Excellence의 부서장으로 임명된 후 영업 마케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생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며 한국로슈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br/><br/>특히 조직 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정범 상무는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및 한국릴리에서 영업부, 마케팅 및 기획 전략 부서를 거쳤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경영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br/><br/>신정범 상무는 “로슈가 독보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항암제 사업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혁신적인 항암제를 공급함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으로 임명된 이희정 이사는 2009년 한국로슈에 입사해 스페셜티 케어 부문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0년 스위스 로슈 본사로 발령, 신진대사 프랜차이즈 부문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국제적인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의 사업 개발 및 도매 팀 부장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끌어 오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희정 이사는 대웅제약 영업 및 전략 기획 부문에서 근무했으며,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br/><br/>이희정 이사는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하는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의 부서장을 맡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로슈가 더욱 신뢰 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4.txt

제목: 항암제 개발 ‘문샷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91  
ID: 01100201.201403191000003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스트라제네카, MD앤더슨 면역·종양 프로젝트 참여<br/><br/>[쿠키 건강] 아스트라제네카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메드이뮨社가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하는 면역-종양 연구 프로젝트 "문샷(moon-shot)"에 참여한다. 문샷은 "우리는 십년 안에 달에 갈 것이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은 없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는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1962년 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됐다.<br/><br/>이번 조약으로 메드이뮨은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와 함께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br/><br/>프로젝트는 생존율과 관련 근간에 사망위험이 큰 8개 암종(급성골수성백혈병(AML), 골수이형성증(MDS),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악성 흑색종, 폐암, 전립선암, 삼중음성 유방암 및 난소암)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다기능팀(CFT)이 참여해 혁신적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메드이뮨은 향후 임상시험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종양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 특정 체내 면역세포의 종양 사멸 능력을 올리는 개념이다. MD앤더슨은 메드이뮨의 일부 면역 치료 실험약물이 해당 환자에서 어떠한 면역 반응을 도출하는지 평가하게 된다.<br/><br/>그동안 MD앤더슨은 BMS 흑색종 치료제 여보이 개발에 책임 연구자였던 Jim Allison이 참가하는 한편 6개 문샷프로그램에 4000만 달러를 조성하는 성공가도를 달렸다.<br/><br/>현재 모든 참여 그룹은 자금을 묶어두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PD-1과 PD-L1을 이용한 신개념 블록버스터 제제의 주도적 연구는 메드이뮨을 포함 머크, BMS, 로슈가 경쟁하고 있다.<br/><br/>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세포사멸-1(PD-1) 단백질과 암세포에 발현되는 세포사멸 리간드-1(PD-L1)로 이들이 결합하면 종양을 체내 면역체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메드이뮨은 이 분야 연구에 상승세를 나타냈다.<br/><br/>메드이뮨 종양 사업부 사장인 Ed Bradley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이프라인 중 4개 실험약물이 대부분 암환자 치료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프로젝트 연구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메드이뮨의 성과를 기다리는 많은 분석가들은 이들이 2017년까지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 선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대부분의 R&D 사업부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연구 비중을 높인 본부를 영국 캠브리지로 옮겼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5.txt

제목: 한방 암 면역치료로 암 환자에게 희망을  
날짜: 201403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230  
ID: 01100201.201403181000002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하나통합한의원 ‘티버스터’ 양한방 병행 치료 성과<br/><br/>[쿠키 건강] # 평소 당뇨가 있던 S(81·남)씨는 지난 2011년 10월 췌장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2년 10월 담도 전이로 재수술 후 병기 췌장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담도 주위에서 재발 소견 진단을 받고 2013년 8월1일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아 한방 암 면역치료를 받았다. S씨는 치종탕과 치종단, 티버스터의 한약과 함께 약침과 왕뜸으로 면역치료를 시행했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S씨의 경우 한방치료 1개월 뒤인 8월 29일 종양표지자 CA19-9 수치가 변화(9750→7780)됐으며, 종양표지자인 CEA 수치도 개선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013년 10월 5일 영상의학과 진단(CT) 결과에서 관해평가상 안정상태(SD)를 유지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2012년 12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던 K(57·남)씨는 복부통증과 다양한 소화계통 증상으로 2013년 1월 하나통합한의원을 방문했따. 당시 K씨는 제심타빈과 타세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한 단계였으며, 환자 본인이 원해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됐다. K씨는 젬스타빈과 타세바의 항암치료와 함께 치종탕과 티버스터, 면역약침 등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26일 기존 항암치료를 받던 병원 진단 결과 췌장과 간에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소견을 들었다.<br/><br/>특히 박상채 원장은 “기존 항암치료와 한방 암 면역치료를 꾸준히 병행한 K씨는 2013년 4월 24일 진단 소견에서도 췌장 종양 크기의 감소, 간의 병변 크기 감소 등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K씨는 티버스터 복용 2개월 차에 식욕부진 소실 , 통증 감소 등 호전 반응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일반적으로 암세포 휴지기에 신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 올리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한방 암 면역치료’의 원리이자 목적이다. 이는 암 세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한방치료에 의해 보완된 몸으로 2차 항암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것을 뜻한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각종 암에 적용되는 한방치료와 면역치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증치료가 가능하다”며 “하나통합한의원이 시행하는 면역치료와 항암치료 방법은 우루시올(urushiol·옻나무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치종단과 치종탕이 있으며, 약침치료와 뜸, 침, 식이요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실제 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보근 원장은 이와 관련된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br/><br/>또 하나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은 치종단(Ⅱ)인 ‘티버스터(T.buster)’이다. 위 두 환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티버스터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보근 원장은 “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 의료진이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 티버스터에 대한 임상결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연령·병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치종단(Ⅱ) ‘티버스터’는 구분에 관계 없이 단독치료 3개월 후 시행한 1차 관해평가에서 67% 이상, 단독치료로 12개월 후 시행한 2차 관해평가에서 36% 이상 안정상태(SD)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r/><br/>K씨의 경우처럼 한방 암 면역치료와 기존 항암치료를 병행해 치료에 성과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박상채 원장은 “최근 한방 암 면역요법이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점이 알려지고, 면역약침, 경락약침 등의 혈맥약침 등이 개발되면서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병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의 ‘후코이단’, 미래 항암제로 주목  
날짜: 20140318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3  
ID: 01100201.2014031810000003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통식품 미역이 미래 항암제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산 미역포자엽(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br/>지난 1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월드저널 온라인판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수록됐다. 미역 등 갈조류의 항암활성, 특히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기능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채택돼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사이언티픽월드저널은 바이오의학 및 환경과학 논문을 주로 다루는 생활과학분야 학술지로 2001년부터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br/>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논문의 제목은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6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미역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항암과 관련해 어떤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했다.<br/>그 결과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암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요법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논문에 따르면 갈조류의 황산다당류인 후코이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아포토시스)을 유도하는 특이 활성을 지닌다.<br/>또 인체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고,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혈소판에 점착하는 것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이 있다.<br/>갈조류의 색소성분인 후코산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한 항암활성을 나타낸다.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이러한 활성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고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때문에 갈조류의 종자를 확보하고,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br/>우리나라 역시 2005년 해양수산부, 완도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사업을 벌여 후코이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후코이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붙은 후코이단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완도, 고흥, 기장 등 우리 연안에서 자라는 미역을 활용할 경우 황산기 함유량이 대단히 높은 질 좋은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인근해의 미역을 활용해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품질지표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즈쿠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미국의 후코이단이 최대 16% 정도의 황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후코이단의 품질력은 압도적인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미역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항암제로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의 ‘후코이단’, 미래 항암제로 주목  
날짜: 20140318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572  
ID: 01100201.201403181000005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통식품 미역이 미래 항암제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산 미역포자엽(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br/>지난 1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월드저널 온라인판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수록됐다. 미역 등 갈조류의 항암활성, 특히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기능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채택돼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사이언티픽월드저널은 바이오의학 및 환경과학 논문을 주로 다루는 생활과학분야 학술지로 2001년부터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br/>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논문의 제목은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6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미역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항암과 관련해 어떤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했다.<br/>그 결과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암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요법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논문에 따르면 갈조류의 황산다당류인 후코이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아포토시스)을 유도하는 특이 활성을 지닌다.<br/>또 인체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고,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혈소판에 점착하는 것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이 있다.<br/>갈조류의 색소성분인 후코산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한 항암활성을 나타낸다.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이러한 활성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고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때문에 갈조류의 종자를 확보하고,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br/>우리나라 역시 2005년 해양수산부, 완도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사업을 벌여 후코이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후코이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붙은 후코이단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완도, 고흥, 기장 등 우리 연안에서 자라는 미역을 활용할 경우 황산기 함유량이 대단히 높은 질 좋은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인근해의 미역을 활용해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품질지표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즈쿠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미국의 후코이단이 최대 16% 정도의 황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후코이단의 품질력은 압도적인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미역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항암제로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해림후코이단은 웹사이트(www.fucoidanmall.or.kr)에서 후코이단 무료 샘플신청을 받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8.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암세포만 골라 없애는 광역학치료 대중화의 길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1  
ID: 01100201.201403181000000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역학 치료기술은 ‘광감각제’라고 불리는 약제와 이 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적합한 파장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약제를 인체에 투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필요한 부위에 광선을 쬐어 원하는 부위의 치료를 하는 기술이다. 광감각제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표적 침착돼 빛에 노출 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암세포 표적치료의 특성이 있다. 적당한 파장의 레이저와 함께 암세포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암제와 함께 결합체를 만들거나 수용체나 암특이 항체를 부착하면 원하는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이상적으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br/>광역학 치료 역사는 갈릴레오와 그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탈리아 파도바대학에서부터 유래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광역학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더딘 광역학 치료용 광감각제 개발과 고가의 레이저 발생 장치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주로 1세대 광감각제만 진료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기술 진보로 다양한 광감각제와 레이저 발생 기술, 빛을 전달하는 기술이 발달돼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가 예측된다.<br/>기존 암 치료는 고식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수술치료는 국소요법으로서 국소적인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나 전신성인 경우는 수술 자체가 어렵다.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미세전이와 수술 중 암세포 전이를 막을 수 없고 수술 시 마취 영향에 따라 면역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항암치료는 전신요법으로 세포사를 유도하나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일어나면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인 방사선치료법은 국소요법으로 치료기전에 있어 세포괴사와 세포사를 동시에 일으켜 효과는 좋으나 항암치료와 마차가지로 어느 정도 용량을 넘으면 더 이상 인체에 조사할 수 없다. 반면, 광역학치료는 국소요법으로 개발됐으나 전신요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전으로는 세포사, 세포괴사와 국소면역작용을 일으킨다. 사용 횟수 제한이 없고 고식적 치료뿐 아니라 대증요법을 통해 증상완화를 이뤄 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혀나 성대, 직장 등의 경우 기능을 유지하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고식적인 방법과 병합해 사용 가능하다.<br/>광감각제는 1∼3세대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개발됐다. 최근 초음파에 반응하는 광감각제까지 개발돼 초음파 조사만으로 암병변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광감각제는 발생하는 레이저 빛의 파장에 따라 630나노미터를 중심으로 1세대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약물로 포토프린이 있다. 67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클로린(chlorin e6) 기반의 2세대, 나노와 관련해 파장에 관계없이 3세대 약물이 있다. 레이저 발생 기술은 과거 한 가지 기기가 하나의 파장인 레이저빛을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파장을 가변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br/>환자 치료에서 광역학 치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과 병합하거나 이들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좋은 임상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등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소요법으로 개발된 광역학 치료법이 전신요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치료 가능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각 분야에서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여러 곳 있다. 현재 광역학 치료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규제와 힘든 여건이 있지만, 이와 같은 치료법이 하루속히 대중화돼 많은 사람이 광역학 치료를 통해 암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도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br/>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원광대 산부인과 교수)<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6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한피부암학회, 피부암 치료·연구·인식 개선 위해 왕성한 활동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3  
ID: 01100201.2014031810000002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피부암은 일상생활에서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span>” 임상 현장에서 피부암 치료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피부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김일환 대한피부암학회 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사진 왼쪽). 김 회장은 “<span class='quot1'>피부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인식이 낮아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로 피부암 발생빈도가 늘고 있어 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피부암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와 함께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는 피부암학회는 지난 2005년 6월 설립된 대한피부과학회 산하의 피부암연구분과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피부암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3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05년 10월 대한피부암연구회(초대 회장 조광현)가 창립됐다. 이후 2009년 6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로 승격돼 피부암학회로 정식 출범했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1'>피부암학회는 피부과 전문의는 물론 피부 병리분야 전문의들도 아우르는 학회로, 회원 100여명이 연간 1회 이상의 학술대회와 다양한 학술 연구활동,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피부암학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피부암’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도 개선도 포함됐다. 특히 피부의 특성상 피부암은 매우 다양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최선의 방법임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피부 병변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김 회장은 “피부암은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암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피부암 인식 개선 정책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부암학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학술연구와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학술연구 분야의 경우 국내 피부암 환자 치료에 맞는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내 피부암 정복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부암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사업 일환으로 피부암학회는 올해 ‘피부암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지역별 병원에서 피부암을 주제로 대국민 인식 개선 건강강좌를 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피부암 예방과 치료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피부암학회가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인의 피부암’ 책자도 이러한 질환 알리기의 일환이다.<br/>또한 피부암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 차단’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일환 회장은 “<span class='quot2'>피부암 예방에서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자신의 신체 부위에 몰랐던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에 이상한 변화가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동성제약 ‘광과민제’, 中企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1  
ID: 01100201.201403181000000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감각제 개발을 위한 국내 의료진과 제약기업의 공동 연구과제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말 ‘광과민제(광감각제) 및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사용하는 광역학 항암 치료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br/>이번 개발 과제는 동성제약과 원광대학교 산부인과 안웅식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이번 중기청 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약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제품과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모색하는 지원제도이다.<br/>연구를 담당하는 안웅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과제는 광과민제와 관련 동성제약이 주관하는 두 번째 연구로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기존 광감각제와 비교해 레이저빛의 파장이 650∼900 나노미터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인체에 투여 시 기존의 1세대 광감각제보다 조직침투가 깊어 보다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이번 과제는 항체, 함암제와 결합한 새로운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제작함으로써 임상적 이용에 한층 다가섰다는 평가다. 특히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광의학 치료용 광감각제 연구와 관련해 최근에는 정보통신(IT)·바이오(BT)·나오(NT) 기술 등의 융합 의료 개발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광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광의학적인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광의학적인 암의 치료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광역학 치료는 광과민물질을 주입한 후 조직에서 빛의 작용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광과민물질(광감각제)이 체내에 주입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광역학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광역학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산소, 광감각제, 가시광선이다. 치료 효과는 선택적으로 종양세포 내에 응집되는 광감각제의 특성, 가시광선의 조직 내 투과력, 광감각제의 조사된 가시광선의 흡수력에 따라 결정된다.<br/>광감각제는 주변의 정상조직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구성된 악성 조직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가시광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감각제는 조직 내 산소와 상호작용해 매우 짧은 반감기와 작용 반경을 가지는 활성화 산소를 생성한다. 이 활성화 산소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미세혈관의 장애를 초래해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지니고 종양 세포를 파괴한다.<br/>안웅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적절한 병변의 치료를 위해서는 광감각제의 종류와 용량, 약물과 빛 간의 시간, 방사 강도, 빛의 양 및 파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1.txt

제목: 큐리언트, 항암후보물질 네이처에 게재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449  
ID: 01100201.201403181000004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큐리언트의 항암후보물질(Q701)에 대한 암전이 효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와 '사이백스(SciBx)'에 잇달아 게재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br/><br/>큐리언트는 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로부터 지난해 2월 항암후보물질을 Q701을 라이선싱해 내성암 치료관련 개발을 수행중이다.<br/><br/>Q701은 악슬 키나제(Axl kinase) 저해제로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악셀 울리히(Axel Ullrich)박사 연구팀과 엘디씨(막스플랑크연구소 중개연구기관, LDC)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br/><br/>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엘디씨의 이번 연구결과는 암세포가 아닌 면역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면역 활성을 높여 항암효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적응증 연구다.<br/><br/>면역세포가 NK세포(Natural killer cell)에 발현되어 있는 티에이엠(TAM, Tumor-associated macrophages) 수용체를 억제해 세포의 면역학적 활성을 증가시켜 NK세포의 항암면역활성을 통해 암 전이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이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br/><br/><br/><br/>이 회사는 지난해 8월에도 내부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인 내성 결핵치료제 관련 개발성과가 세계적 의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誌에 실리는 등 개발중인 과제의 우수성이 소개된 바 있다.<br/><br/>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큐리언트가 개발 중인 내성암 치료 후보물질이 항암 면역 활성화를 통해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항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항암제 개발과 약제내성암 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개념 항암제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2.txt

제목: [건강나침반] 삶의 질 높이고 고통 줄이는 통합면역치료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2  
ID: 01100201.2014031810000004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학저널 ‘NEJM’에 2010년 발표된 ‘Early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Non-Small-Cell Lung Cancer’ 논문은 암 치료의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이성 폐암 환자가 완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벼운 공격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공격적인 ‘표준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보다 삶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생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암 치료 시 암 ‘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표준치료’보다 암 환자 ‘몸’을 중시하는 치료가 오히려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에서 불고 있는 통합암치료의 열풍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술, 방사선, 항암과 같은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했지만 지속적인 전이와 재발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 전역 55곳의 통합 암센터들에서는 침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들이 시술되며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br/>몸무게 65㎏의 성인의 경우 60∼70조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에 1000∼1만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면역감시체계’에 의해 인지·제거되고, 통제돼 암 발생을 억제한다. 통합면역암치료에서 주목하는 점은 면역감시체계 회복 및 강화다. 면역감시체계는 건강한 신체에서는 온전히 정상 기능을 발휘해서 암을 억제하지만, 흡연, 바이러스, 화학물질, 방사선, 스트레스와 같은 발암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암 억제력을 넘어선 발암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한다.<br/>통합면역치료는 암 치료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암 수술 전후 면역치료= 수술을 앞둔 암 환자는 수술 준비기간 동안 2∼4주간의 면역치료를 받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신속한 회복을 도와주고, 수술을 이미 받고 체력적 고갈로 수면, 식사, 대소변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암 병행 치료=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가 가져오는 심한 체력저하나 오심, 구토, 손발 저림 등의 부작용으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기 내외의 암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고 일정한 횟수의 항암치료를 받아낸다면 5년 생존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항암치료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통합면역치료와 병행해 치료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항암을 마칠 수 있다. △방사선 병행 치료= 방사선 치료기간 동안의 피로, 오심, 구토, 통증, 화상을 흔히 호소한다. 방사선치료로 생기는 체력저하와 부작용은 통합면역치료를 병행할 경우 기력을 유지하고 증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항암방사선 부작용 치료= 오심구토, 변비설사, 탈모, 빈혈, 암성피로, 항암제유발 신경병증, 두경부암 구강건조, 개구장애, 빈혈, 방사선 장마비, 방사선 피로 등의 경우에는 각 증상에 대한 종양침구치료, 온열요법, 공기압치료, 봉독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로 회복을 도와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게 된다. △진행암 집중면역치료=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항암제와 방사선치료의 반응율이 극히 미미하고 부작용이 현저히 예상될 경우 과감히 통합면역암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자 수행상태 개선, 종양관련 증상 조절 등으로 몸의 면역이 강화되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생존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암과 허약암 치료=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경우 면역암치료를 통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 70∼80대 고령의 암 환자는 기대수명이 길지 않고 대체적으로 암의 진행이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면 암을 지니고 있는 몸을 보살피는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이재발 억제 면역치료= 공격적인 암치료를 통해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 면역체계가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된다. 신속한 면역력 상승을 통한 암세포 억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암 치료 종료 1년이 가장 중요하다.<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3.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세계 첫 유방암 항체시밀러… 셀트리온 ‘허쥬마’ 국내서 판매 시작  
날짜: 201403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0  
ID: 01100201.201403181000000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 최초의 유방암 항체시밀러 ‘허쥬마’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 셀트리온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쥬마에 대해 최종 판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br/>이번 허가에 따라 허쥬마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판매가 가능해진다.<br/>허쥬마의 판매허가 승인은 중증질환인 항암제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영역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세계 최초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승인이기 때문이다. 허쥬마는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의 기능을 억제해, HER2가 과발현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표적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br/>이에 따라 유방암 치료제인 허쥬마는 연간 63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시장의 규모는 대략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유방암 항체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마무리한 회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당분간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셀트리온은 허쥬마의 개발을 위해 30개월에 걸쳐 15개국에서 임상1·3상의 다국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 임상결과는 세계최대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등에서 발표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br/>다국적 기업 등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셀트리온은 유일하게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허가에 연이어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선도기업임을 확실히 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아냄으로써 세계적인 바이오의약기업으로서 이름을 알린 바 있다.<br/>고가인 항체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는 비싼 약가가 문제가 돼 왔다.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는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회사와 유럽 보건당국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br/>셀트리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허쥬마 발매에 따라 국내의 경우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은 30% 자동 인하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4.txt

제목: 치매·당뇨·암·파킨슨병 등 유발 단백질 응집 시키는 새 원인 규명  
날짜: 20140317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069  
ID: 01100201.201403171000000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치매 당뇨 암 파킨슨병 등을 일으키는 단백질 응집 현상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냈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숙명여대 화학과 함시현(사진) 교수팀이 단백질과 물의 상호 작용이 단백질 응집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하고 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br/>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 몸 안에서 응집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독성을 띨 수 있다. 이런 단백질 응집 현상은 주변 세포들의 기능 장애와 세포 사멸을 일으켜 당뇨나 암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br/>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대로 단백질 주변 물의 구조와 분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단백질이 왜 얼마나 응집하는지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몸 안에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응집을 분자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br/>함 교수는 “<span class='quot0'>단백질 신약 개발은 단백질 응집이 걸림돌이 돼 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대규모 제약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번 논문은 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4월호 표지논문은 물론 ‘주목할 만한 논문’에도 선정됐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5.txt

제목: 암환자에 동반된 당뇨병, 사망률 높인다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227  
ID: 01100201.201403141000002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당뇨병학(Diabetologia)’ 3월 13일 온라인판에 관련 연구 발표<br/><br/>[쿠키 건강] 당뇨병과 암이 동반된 환자들의 사망률이 당뇨병이 동반되지 않은 이들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스테노당뇨병센터 Kristina Ranc 박사팀은 당뇨병학(Diabetologia) 3월 13일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에서 "경구용 약물이나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모든 당뇨병 동반 암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연구는 덴마크에서 1995~2009년 암으로 진단받은 42만61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4만2205명은 암으로 진단받은 시기에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었다. 총 사망률을 평가한 결과 당뇨병을 동반한 이들에서 사망률이 높았고, 이는 경구용 약물과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br/><br/>특히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 진단을 받은 시기에 당뇨병 유병기간이 2년인 이들을 분석했을 때, 암으로 진단받은 후 1년째 사망률은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비동반군 대비 3.7배, 여성은 4.4배 높았고, 진단 9년째 평가에서는 각각 5배, 6.5배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br/><br/>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암으로 진단받은 시점에서 공격적인 당뇨병 치료를 받은 이들의 예후와 생존률이 더 좋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c 박사는 "경구용 약물이나 인슐린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종양내과와 내분비내과 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치료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br/>한편, 그는 "당뇨병 동반 암 환자들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률이 높고, 암 관련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암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혈당 강하젼략이 암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6.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28일, ‘암 진료·연구 현황’ 내용 학술 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351  
ID: 01100201.201403131000003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노동영)은 오는 28일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Toward world leading cancer hospital’ 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br/>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각 분야 권위자가 좌장 및 발표자로 참여한다. 특히 심포지엄은 국내 암 진료 및 연구 현황을 실제적으로 접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br/><br/>심포지엄은 ▲간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강좌 시리즈 ▲부인암·위암·췌장/담도암 및 종양내과 관련 서울대학교암병원의 우수 연구 성과 발표 ▲세계 선도의 암병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임상의학과 기초과학 간 연구협력 사례 발표 등 네 개의 세션과 14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br/><br/>노동영 원장은 “<span class='quot0'>서울대암병원은 2011년 개원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암 관련 지식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의과학계가 이룬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7.txt

제목: 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가드’ 도입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188  
ID: 01100201.2014031310000018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엑세스사와 국내 판권 계약… 암환자 대상 임상 유일제품<br/><br/>[쿠키 건강] 한미약품이 항암보조제로 쓰이는 구내염 치료제를 도입한다.<br/><br/>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엑세스사와 구내염치료제 ‘뮤가드(MuGard)’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시판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밝혔다.<br/><br/><br/><br/>뮤가드는 암 환자 치료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을 통해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항암제 투여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입 안 또는 목 안의 점막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돼 입이 마르거나 허는 증상이 동반된다.<br/><br/>이 제품은 무향무취의 가글제로 사용이 간편하고 암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 두경부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치료군의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궤양성 구강 점막염 증상 완화 및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br/><br/>또 뮤가드는 항암보조용 외에도 일반 구내염, 발치 등 다양한 적응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br/><br/>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그동안 국내에서 상용화된 구내염치료제는 암 환자 대상의 임상자료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으로 입증된 뮤가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스티븐 루한더 엑세스사 회장은 “한국 제약시장의 선두인 한미약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미약품이 뮤가드의 한국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1988년에 설립된 엑세스사는 미국 나스닥 장외증시 상장사로 항암제 및 항암 보조 치료제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이다. 뮤가드 외 천연비타민 B12의 흡수 기전을 기반으로 한 나노 고분자 전달 기술 등을 개발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8.txt

제목: 미국 USPSTF “멀티비타민 심혈관·암 예방 근거 없다” 결론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412  
ID: 01100201.2014031210000041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관련 권고문 미국 내과학저널(AIM)에 실어<br/><br/>[쿠키 건강] 미국 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가 멀티비타민에 대해 심혈관 또는 암 예방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미국내과학회저널(AIM)에 실었다.<br/><br/>그동안 비타민은 유용성이 있다는 연구와 없다는 연구가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 저널 게재를 계기로 없다는 것으로 확정 결론을 낸 셈이다.<br/><br/>USPSTF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또는 미네랄 보충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타민, 멀티비타민 또는 미네랄 등이 심혈관 예방 또는 암을 예방해준다는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타카로틴 보충제와 비타민 E는 혜택과 위험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br/><br/>USPSTF는 베타카로틴 보충제의 경우 흡연자의 암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이 이득보다 더 컸으며, 비타민 E 보충제 또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암, 또는 사망률면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br/><br/>이같은 결론에 따라 USPSTF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이나 비티민 E 보충제를 복용하는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79.txt

제목: 아프리카 대륙,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 배출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493  
ID: 01100201.2014031210000049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쿠키 국제] 아프리카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br/>프랑스에서 발간된 이 보고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석탄과 땔감의 소비가 늘어나 아프리카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입자의 5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AFP 통신이 11일 전했다.<br/>지난 2005년 아프리카 대륙이 배출한 대기 오염 유발 인자는 5%의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유기 탄소(20%), 블랙카본(10%), 일산화탄소(10%), 비메탄계 탄화수소(10%) 등이었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 공동 연구진이 밝혔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규제가 따르지 않으면, 2030년에 이르러 아프리카에서 공해 배출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공해 입자는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오토바이 연료, 난방과 조리를 위한 연료, 석탄, 땔감, 동물분뇨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span>”고 설명했다.<br/>또 “아프리카 인구가 2100년까지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광산이나 유전,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br/>연구진은 서부와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륜자동차를 덜 이용해야 하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남부 아프리카에선 석탄 사용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혈관과 폐에 침입해 천식과 알레르기,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 입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암 유발 물질로 분류됐다. WHO는 매년 2백만 명이 실내외에서 오염된 미세 입자를 흡입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0.txt

제목: 오는 17일,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319  
ID: 01100201.2014031110000031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발표<br/><br/>[쿠키 건강] 국내 암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 백신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br/><br/>이와 관련 한국ACC바이오는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병원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박사)을 초청해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해 열린 제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게서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치료방식이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연구팀은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했다. 그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이란 성과를 얻었다. 이는 치료 사전·사후 각각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암 관련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알아낸 결과다.<br/><br/>이 항암면역치료의 핵심은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종류별 종양마커 기능검 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인체 내 1% 미만인 수지상세포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 효과적</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했다. WT1 펩타이드는 1번부터 449번까지 있으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아베종양내과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br/><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 14일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일본 삿포로)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치료 임상연구결과’를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1.txt

제목: 제13회 보령암학술상 울산의과대학 강윤구 교수 수상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181  
ID: 01100201.201403111000001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령암학술상 제13회 수상자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강윤구(사진)교수가 선정됐다.<br/><br/>강 교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연구, 교육을 선도하며 최근 새로 정립된 이 질환에 대한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됐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되며 강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br/><br/>강 교수는 Korean GIST study group의 회장 및 GOLS(GIST Opinion Leader Summit)의 운영위원으로서 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연구를 주도했으며, 또한 국제 임상연구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 새롭고 효과적인 항암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br/><br/>최근에는 이마티닙 및 수니티닙 등 표준치료에 실패한 GIST 환자들에서 다시 이마티닙을 투여하면 위약에 비해 진행의 위험을 50% 감소시킬 수 있음을 위약대조 3상연구인 RIGHT study를 통해 입증하여 Lancet Oncology에 게재했는데, 이로서 모든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서도 이마티닙을 재투여해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br/><br/>또한 논문 68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특히 그 중 1편은 Lancet에, 4편은 Lancet Oncology 등 세계적으로 최정상급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다.<br/><br/>현재 위암에 대한 약물요법에 관한 임상연구, 위암, 간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한 실험실적 연구, 위암, 간암, GIST 환자에서 유전체 분석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br/><br/>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span class='quot0'>강윤구 교수님뿐 아니라, 종양학 분야에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암정복에 한발짝씩 다가가고 있다</span>”고 말하고 “<span class='quot0'>보령암학술상이 암 연구 활동을 더욱 진작시키고, 격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건강한 사회구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span>”는 바람을 밝혔다.<br/><br/>보령암학술상은 2002년 국내 종양학 분야 연구에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종양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2.txt

제목: 지멘스헬스케어, 유럽영상의학회(ECR)서 첨단 의료장비 선봬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419  
ID: 01100201.201403111000004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지멘스 한국법인 헬스케어 부문은(대표 박현구)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6차 유럽영상의학회(ECR: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학술대회’에서 최신 의료영상 기술과 IT 기술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br/><br/>지멘스 헬스케어는 올해 새로운 16-슬라이스 CT 스캐너 소마톰 스콥(Somatom Scope)과 진단의 정확성 및 속도는 한층 높이고 의료영상 촬영시 제한점을 줄인 장비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br/><br/>◇16-슬라이스 CT 스캐너 ‘소마톰 스콥(Somatom Scope)’ 공개<br/><br/>우선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멘스 헬스케어가 선보인 16-슬라이스 CT 스캐너인 소마톰 스콥(사진)은 임상용 다목적 CT로, eCockpit 기술 패키지를 통해 시스템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도 탑재됐다.<br/><br/>이와 함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해 현존 장비 중 가장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 새로운 절전 기능으로 장비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였으며, 발열량이 적어 동급의 이전 모델과 비교할 때 최고 65%까지 에너지를 절약해 기기 전체 수명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eCockpit 기술 패키지는 eSleep, eMode, eStart 기능 등이 포함됐으며, 스캐너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전체 작동 수명 내내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암 검진, 외상 진단, 인터벤션 영상의학, 혈관 촬영 등 여러 임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br/><br/>◇MRI, 소음과 움직임 잡는 기술<br/><br/>지멘스 헬스케어는 이번 유럽영상의학회에서 환자 움직임에 관계 없이 빠르게 촬영이 가능한 복부 영상촬영 기술과 장비의 소음을 한층 줄인 MRI 기술도 선보였다.<br/><br/>지금까지의 MRI는 연조직의 대비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주로 신경과 근골격 검진에 사용됐는데, 새로 선보인 지멘스 헬스케어의 ‘FREEZEit’은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복부 부위의 동적 측정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장기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동 및 중환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br/><br/>또한 지멘스 헬스케어는 MRI 검진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Quiet Suite’를 내놨다. Quiet Suite는 MRI 검진에 최적화된 HF 펄스를 사용해 영상 품질 및 검진 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다. FREEZEit과 Quiet Suite는 모두 지멘스 헬스케어 MRI 장비 ‘MAGNETOM Skyra 3T’에서 이용할 수 있다.<br/><br/>◇초음파 영상도 HD 시대, 초음파진단기 ‘HELX Evolution’ 시리즈<br/><br/>새로운 초음파 기술로는 의료진을 배려한 21.5인치 HD 화질의 LCD 모니터로, 이전 모델보다 화면이 60% 더 커진 영상화면을 제공하는 HELX Evolution 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br/><br/>초음파 애플리케이션 방식인 Virtual Touch IQ(VTIQ)은 ARFI(탄성측정초음파) 영상촬영 기술을 기반으로 유방이나 갑상선 등의 조직 경직도를 각각 수치화해 보여주므로, 조직 내의 이상 증상의 위치와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외에도 지멘스 헬스케어는 새로운 지능형 콘셉트를 적용한 최신 X-레이 시스템인 MAX(Multiple Advances in X-ray)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의학과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화질을 크게 높이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AX 시스템은 고유한 방식으로 x-레이 디텍터(검출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어깨 부상을 당한 환자가 영상 촬영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면, MAX 시스템이 X-레이 튜브의 정확한 각도를 인식해 촬영조정이 수월해졌다.<br/><br/>박현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지멘스 헬스케어는 매년 영상의학 분야에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3.txt

제목: 국내 의료진, 복강경 위암수술 안전성 세계 최초 입증  
날짜: 20140311  
기자: 한상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395  
ID: 01100201.2014031110000039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br/><br/>모든 위암에 관계 없이, 개복 수술과 장기생존률에 차이 없어<br/><br/>[쿠키 건강] 복강경 위암 수술이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고, 수술 합병증과 사망률 등에서 개복 수술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위암 복강경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 추적 조사한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 교수(사진 왼쪽)와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오른쪽)는 ‘복강경 위암 수술의 장기 결과’ 논문을 통해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 약 3000명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br/><br/>연구팀은 19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위암 치료를 위해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2976명(복강경 위 절제술 1477명, 개복수술 1499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장기 성적을 위암 병기별(1A~3C)로 분석했다.<br/><br/>분석 결과 병기에 관계없이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동일한 생존율을 보임을 확인했다. 또한 수술합병증과 사망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복강경 위암 수술 안전성 세계 최초 입증<br/><br/>위암 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이 흔히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장기 생존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세계 복강경 위암 수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해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br/>이번 연구는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주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김형호)과 아주대병원(한상욱), 동아대병원(김민찬 교수), 신촌세브란스병원(형우진 교수), 여의도성모병원(김욱 교수), 서울대병원(이혁준 교수), 동산병원(류승완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조규석 교수), 서울성모병원(송교영 교수), 전남대병원(류성엽 교수) 등 10개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했다.<br/><br/>연구 제1저자인 김형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복강경 위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장기성적에 대해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에서 복강경 위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세계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고, 장기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함에 따라 복강경 위암 수술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span>”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br/><br/>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배를 열지 않고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 도입은 혁신 그 자체였다는 평가다. 개복 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월등히 작아 출혈이나 합병증이 위험이 적은데다, 미용적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수술이 위암 표준 수술법인 개복 수술의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전문의마다 안전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개복 수술은 오랜 역사로 그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복강경 수술은 그런 장기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br/><br/>◇해외 연구자들도 주목<br/><br/>이번 연구는 암연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를 통해 발표됐음,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임상종양 리뷰지(Nat Rev Clin Oncol)’에서도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조명해싸.<br/><br/>미국의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병원(Memorial Sloan-Kettering Center) 비비안 스트롱 교수(Vivian E. Strong)는 임상종양학회지 논설(editorial)을 통해 “한국의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는 잘 분석된 대규모 케이스 사례 연구를 통해 최소 침습적 접근인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며, 개복 수술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입증했다”며 “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도 매우 기대된다”고 평가했다.<br/><br/>이에 대해 한상욱 교수는 “<span class='quot1'>복강경 수술이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발과 관련된 장기 성적이 없어 복강경 수술에 둘러싼 논란에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 의료진에 의해 복강경 위암 수술이 표준술식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br/><br/>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는 김형호 교수를 총괄 책임연구자로 복강경 위암 수술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임상연구(KLASS-01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이 연구는 국내 16개 병원 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 비용대비효과, 환자 삶의 질, 면역력 그리고 장기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5년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위암에서 복강경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4.txt

제목: 생일상의 미역국이 다이어트 특효식품…알긴산과 미네랄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적  
날짜: 201403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000230  
ID: 01100201.201403101000002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생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생일날에나 챙겨먹었던 미역국을 더 자주 먹어야 할 것 같다.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가 다이어트 특효식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br/>보통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체중조절 효과를 느낄 수 있다.<br/>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다이어트에 적극 활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br/>최근 영국 뉴캐슬 대학 윌콕스 박사 등은 국제 학술저널인 푸드캐미스트리를 통해 해조류에 함유된 알긴산이 췌장 리파아제 효소의 활동을 저해시켜 지방흡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br/>췌장 리파아제 효소는 중성지방을 분해시켜 이를 우리 몸이 흡수하도록 만드는데, 이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면 지방세포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r/>이뿐만이 아니다. 국립 타이완 대학의 우 박사 등은 최근 국제저널인 마린드럭에 발표한 논문에서 갈조류의 색소인 후코산틴이 신진대사의 속도를 향상시켜 건강에 치명적인 백색지방을 태운다고 설명했다.<br/>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많이 먹을 경우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 흡수가 저해되며, 이와 더불어 몸에 축적된 백색지방이 제거된다는 것. 그야말로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br/>실제로 최근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br/>이미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앞 다투어 알긴산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br/>휴온스가 내놓은 알룬, JW중외신약의 제이메이드정, 삼진제약의 액티브슬림 등이 현재 출시된 대표적인 알긴산 다이어트 의약품으로 꼽힌다.<br/>식품회사들 역시 미역과 다시마를 활용한 제품들 출시에 적극적이다.<br/>해림후코이단이 선보인 ‘미역귀인(美力貴人)’은 미역귀(미역포자엽), 뿌리다시마, 김, 파래 등 100% 국내산 해조류를 분말로 만들어 즉석에서 스프처럼 마실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br/>또 여기에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역귀 추출 후코이단까지 첨가하여 가치를 더 높였다.<br/>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센터 정일훈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이 체중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조류를 가까이 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갈조류에는 알긴산, 후코이단, 후코산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5.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암 치료 시장의 FDA-제약사 검은 카르텔  
날짜: 201403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090  
ID: 01100201.20140307100000090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암 없는 세상/G. 에드워드 그리핀(포북·2만8000원)<br/>오늘날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암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내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지고 있다.<br/>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그 이유를 값싸고 항암 효과도 좋은 ‘레이어트릴’과 같은 고농도 비타민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기에 나선 암 치료 시장의 검은 카르텔 구조에서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말하자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국립암연구소(NCI)와 거대 제약사, 심지어 정치권력까지 끌어들여 복잡한 카르텔을 형성, 사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큰 돈 안 들이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비타민요법, 레이어트릴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어트릴은 살구와 복숭아씨에서 추출한 성분 ‘아미그달린’(비타민17)을 농축시켜 만든 주사제다. 미국과 멕시코, 독일 등에서 대체의학요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존 비어드 메모리얼재단 과학팀장 에른스트 그렙스 주니어 박사가 1970년대 초 명명했다.<br/>저자는 최근 40여 년간의 의·과학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암 치료 시 레이어트릴을 활용하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암 권력으로 변모한 FDA와 거대 제약사들의 상업적 음모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석혜미 옮김.<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6.txt

제목: 전이성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63  
ID: 01100201.2014030610000016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전이성대장암 및 두경부암 표적항암제인 한국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가 2014년 3월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br/><br/>이는 정부와 얼비툭스 판매사인 머크 주식회사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얼비툭스는 국내에서 2005년 희귀의약품으로서 처음 승인된 이후 10년 만에 보험 급여가 된 것이다.<br/><br/><br/><br/>얼비툭스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표적항암제 중 유일하게 생체지표가 있는 표적항암제로 투여 전에 유전자 검사(Biomarker test)를 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맞춤 치료제이다. FIRE-3 연구에 따르면 얼비툭스는 KRAS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게 있어 다른 표적항암제보다 생존 기간 연장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br/><br/>얼비툭스는 두경부암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표적항암제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한 약제이기도 하다.<br/><br/>얼비툭스의 국내 판매사인 머크는 “2005년 희귀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10년 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전이성 대장암 및 두경부암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존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7.txt

제목: 아스트라제네카-보건산업진흥원,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 시행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82  
ID: 01100201.2014030610000018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Oncology Research Program)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연구진의 12개 항암분야 초기 중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항암분야는 한국 환자들의 다양한 의학적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암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사망원인 1위 또한 암이다.<br/><br/>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암환자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21만8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암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br/><br/>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항암 분야 연구진으로부터 초기 연구 프로젝트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연구 주제는 항암 분야의 중개연구에 관한 것으로, 지원자는 4월 15일까지 연구개발 예비 제안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br/><br/>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개발팀(Oncology iMed)은 예비 제안서를 검토, 심사해 5월 중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진은 해당 기관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지원금을 받게 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중 일부를 전임상 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br/><br/>또한 우수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개발팀의 기술자문 및 협력, 전세계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br/><br/>정기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프로그램이 국내 연구진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한 한국 연구진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span>”고 밝혔다.<br/><br/>리즈 채트윈(Liz Chatwin)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암은 한국 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과 전 세계 암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약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도 한국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프로세스 초기단계부터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06년 글로벌제약사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연구개발 및 임상교류에 대한 양해각서’을 체결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국내 연구진의 기초 연구를 지원한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Virtual Research Institute)’ 등을 진행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두 번째 MOU, ‘Partnering with Korea’를 체결해 한국 보건의료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해 오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8.txt

제목: 암환자, 종양침구학 검증되고 안전한 치료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253  
ID: 01100201.201403051000002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중암암등록본부가 2012년 발표한 ‘2010년 암등록통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만 2,053명으로 지난해보다 98.5% 증가했다.<br/><br/>암생존자 100만명 시대를 넘어 암유병자 110만명에 달한다.<br/><br/>암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후 지속적이고 주관적인 암 관련 피로(Cancer ? related Fatigue)를 호소한다.<br/><br/>하지만, 수술과 무차별적인 항암제에 의존하는 현대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암 관련 증상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없고, 공격적인 암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 한방 침치료 등 보완대체의학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br/><br/>뒤이어 암제로 유발된 골수억제 동물모델에서 침치료가 과립구집락자극인자와 과립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의 분비를 촉진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br/><br/>이후 항암치료 및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널리 시술됐다. 현재는 미국의 다나파버암센터, MD앤더슨암센터, 존스홉킨스암센터, 메모리얼슬로언-캐터링암센터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통합 암센터에서 암환자에게 침치료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br/><br/>부산 양한방 통합 암치료기관인 방선휘한의원의 방선휘 박사는 “<span class='quot0'>침치료에 대해 무지한 상당수 의사들의 통념 때문에 많은 암환자들이 침치료를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교육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침으로 암을 다스리는 종양침구학은 전 세계 의학계에서 새롭게 각광 받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span>”라고 설명했다.<br/><br/>방선휘 박사는 “종양침구학은 분명 신속하고 검증됐으며, 안전한 치료법이다. 암환자를 위해 더 활발한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암 발생률과 암 생존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암 성장을 억제하고 암 관련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한방 면역 항암 치료의 가치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89.txt

제목: 국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기승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291  
ID: 01100201.2014030410000029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쿠키 건강] 국가 건강검진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건보공단은 지난 2월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는데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된다. 또 ‘검진표 재중’ ‘본인외 개봉금지’가 표기된 창봉투 형식으로 개별발송하고 있다.<br/><br/>반면 스미싱문자메시지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통지서 확인.’ 문구와 함께 악성앱이 깔리는 URL이 포함돼 있어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br/><br/>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건보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0.txt

제목: 남 돕는 훈련이 암 생존자 삶의 질 높여  
날짜: 2014030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012  
ID: 01100201.2014030310000001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극복 후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사진) 교수팀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 10개 병원에서 추천받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자 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br/>윤 교수팀은 환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34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36명)으로 나눠 두 달 동안 각각 관찰했다.<br/>‘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를 ‘건강코치(Health Coach)’로 만드는 훈련으로 건강교육, 리더십, 코칭 등 3가지에 초점을 두고 4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에선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리더십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건강 코치 훈련이 이뤄졌다. 2단계와 4단계에선 바로 전 단계의 훈련을 복습해 체득하게 했다.<br/>그 결과, 건강코치 훈련을 받은 실험군은 정신적 건강 점수가 연구 개시 당시 81.4점에서 두 달 후 85.4점으로 개선됐다. 특히 정신적 활력 점수가 연구 개시 때의 71.5점에서 77.8점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반면 대조군의 정신적 건강 점수는 같은 기간 83.9점에서 81.0점으로 되레 나빠졌다. 정신적 활력 점수도 72.4에서 71.0으로 떨어졌다.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험군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좋은 습관(7HP) 중 ‘지속적으로 쇄신하라’ 점수가 12.8점에서 13.5점으로 좋아진 반면 대조군은 12.8점에서 12.6점으로 나빠져 대조를 이뤘다.<br/>연구결과는 암 전문 잡지 ‘아시아태평양암예방저널’(APJCP)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1.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질병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진짜 안전한걸까?  
날짜: 201403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184  
ID: 01100201.2014030310000018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아마비, 간염 등 무서운 질병을 막아내는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증상이 가볍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논란은 그 양상이 좀 다르다. 지난해, 일본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의학자들이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br/><br/>◇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br/><br/>일단, 자궁경부암 백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보자. 백신의 원리는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체(세균 혹은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한 뒤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br/><br/>이때 제조과정서 백신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화학물질이 흔하게 사용된다, 수은의 일종인 티메로살(thimerosal)과 포름알데히드를 희석한 포르말린(formalin) 그리고 알루미늄(aluminium)다. 티메로살과 포르말린은 면역반응만 유도한 채,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하지는 못하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세균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용도다. 알루미늄은 면역강화제로서 백신의 항체 생산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중 ‘알루미늄’이 이번 일본발 백신 부작용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br/><br/>백신 회의론자들은 백신의 성분 중 알루미늄 일부가 자가면역질환을 유도하고, 특히 뇌손상과 치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백신제제로 사용된 지 60년이 된 성분이다. 세월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자궁경부암 백신 외에도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백신은 뇌수막염백신, A형·B형 간염백신, DTP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GACVS)는 2003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알루미늄이 포함된 전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위험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br/><br/>일본에서 파생된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세계산부인과불임학회(COGI)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들은 올해 2월 자궁경부암 백신의 유효성을 논한 국제회의에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은 현재까지 전세계에 2억 도즈 이상 공급됐으며 높은 효과를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br/><br/>◇자궁경부암 백신, 안전하게 맞기<br/><br/>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등 여성 생식기암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HPV 백신 접종은 이 같은 다양한 암을 비롯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파괴하는 생식기 사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br/><br/>그래도 근육통이나 접종부위 부종 등 경미한 부작용이 무섭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억하자. 첫째, 백신을 접종하기 전, 몸 컨디션을 꼭 확인하자. 특히 열이 있다면 접종을 미뤄야 한다. 둘째, 최근에 자신이 아팠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접종 시 의사에게 꼭 알려라. 마지막으로 항체 형성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므로 접종 다음날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2.txt

제목: 고기 없이 밥 못 먹는 당신, 대장암 키운다  
날짜: 201403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2100000008  
ID: 01100201.20140302100000008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 환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은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부산물로, 이들의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이 그렇다.<br/>고지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식습관으로의 변화는 대장암 증가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지 오래다. 잘못된 식습관이 대장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따라서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대장암의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br/>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 후 직장에 모아 두었다가 항문을 통해 대변의 형태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양 성분의 소화 및 흡수보다는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유독한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노폐물이 모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br/>대장암은 대장벽에 비정상 악성종양 세포가 자라는 것을 말한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 특히 식사와 관련성이 많아 질환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육류 섭취량에 따라 대장은 암 발병률이 높은 환경에 놓이며, 암 세포의 발생 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채소류 섭취를 늘려야 한다.<br/>◇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는 대장에 치명적<br/>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붉은색 고기로 구분된다. 닭고기와 같은 흰색 고기에 비해 붉은색 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조리 혹은 섭취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지방의 과다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r/>따라서 지방이 많은 붉은색 고기의 과다 섭취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철분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br/>대신 붉은색 고기 섭취를 줄이고 흰색 고기나 생선, 두부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붉은색 고기를 조리할 때에는 가능한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기름을 가능한 최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br/>◇암 발생률은 음주량과 정비례…충분한 채소 섭취는 필수<br/>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수명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적당을 넘어선 과음이 생활화되면 대장 뿐 아니라 식도나 간의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 습관적인 음주 혹은 한꺼번에 마시는 과음은 췌장암과 결장암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인다.<br/>채소는 어떤 형태로 섭취하던지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생채소를 먹을 때에는 드레싱이나 쌈장 등의 양념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야한다. 특히 드레싱은 지방 및 당으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나물은 살짝 익혀내는 과정에서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부피도 줄며, 약간의 기름과 양념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br/>하지만 비빔밥 등에 들어가는 껍질 및 줄기류의 고섬유질 채소는 섬유질 성분이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시켜 부종이나 변비, 심하면 장폐색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br/>과일 중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대장에 가장 좋다. 블루베리 내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2.5배로 소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케 하는 효과가 있다.<br/>아사이베리의 경우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에 12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베리 중의 베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 역설했으며, 넘버원 슈퍼푸드로까지 선정되었다. 항산화 능력의 촉진이 장의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아사이베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br/>◇커피가 대장암에 약이라고?<br/>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최고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 가량 발병 확률이 낮았다고 밝혔다.<br/>국내의 연구진 또한 커피에 포함된 페놀릭파이토케이칼 성분이 대장암과 피부노화 억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대장암과 커피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였다. 커피의 원두는 레드베리의 씨로, 다른 베리류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황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막아 우리 몸의 노화와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br/>정순섭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은 다른 장기보다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일상에서의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한 대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3.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암 피하려면 주 4~5회 콩 식품 섭취를  
날짜: 20140301  
기자: 의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1100000079  
ID: 01100201.201403011000000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혹시 발암 위험신호가 아닌가 싶어 안절부절못합니다. 이들은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구해 먹는 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br/>이런 암 염려증 환자들은 물론 암 예방을 바라는 일반인도 귀가 솔깃할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콩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br/>한국유방암학회는 최근 총 227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음식 섭취가 한국인의 유전성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당 4∼5개씩 콩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주당 1개 이하만 먹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2’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콩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선 발병 위험이 3분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콩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br/>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span class='quot0'>콩 식품을 자주 먹으면 유방암 외에도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물리치고, 위암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콩류에 풍부한 식물성 여성호르몬 ‘이소플라본’의 항산화 작용이 이들 암 억제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습니다.<br/>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4.txt

제목: 타인 건강 돌보는 훈련, 암 생존자 삶의 질 높인다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222  
ID: 01100201.201402281000002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br/><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 윤영호 교수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국내 10개 병원에서 추천 받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장기 암 생존자 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br/><br/>‘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은 암 생존자를 '건강코치(Health Coach)’ 로 만드는 훈련(training)이다. 건강코치는 암 재발 위험이 있는 암 환자가 주도적 건강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br/><br/>훈련은 건강교육, 리더십, 코칭 등 3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리더십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3단계부터 본격적인 건강코칭 훈련이 이뤄진다. 2단계와 4단계는 바로 전 단계의 훈련을 실습하고 피드백 받는 단계로, 다자간 전화회의를 통해 훈련 받은 내용을 체득한다.<br/><br/>연구팀은 2011년 암 장기 생존자 70명을 ‘건강 파트너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실험군(34명)과 실시하지 않는 대조군(36명)으로 나눠 8주간 관찰 후, 두 집단의 삶의 질을 비교했다.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연구팀은 9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점수화했다.<br/><br/>그 결과 실험군의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이 81.4에서 85.4으로 좋아졌다. 특히 정신적 활력이 71.5에서 77.8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반면 대조군의 정신적 건강은 83.9에서 81.0로 나빠졌으며, 정신적 활력도 72.4에서 71.0으로 떨어졌다. 또한 암 위기 후 긍정적 성장(PTGI) 역시 실험군은 70.6에서 75로 크게 좋아졌지만, 대조군은 70.3에서 68.9로 나빠졌다.<br/><br/>프로그램은 암 생존자의 삶의 태도도 진취적으로 바꿨다. 실험군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7HP) 중 ‘지속적으로 쇄신하라’ 점수가 12.8에서 13.5로 좋아진 반면 대조군은 12.8에서 12.6으로 나빠져 대조를 이뤘다.<br/><br/>이번 연구는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건강교육에 리더십과 코칭이 결합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br/><br/>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의학과 인문학이 접목된 획기적인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 권위지인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2013년 12월호에 발표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5.txt

제목: 이집트 군부, 에이즈 100% 정복 선언… “그런데 어째 좀”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126  
ID: 01100201.20140228100000126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쿠키 과학] 이집트 군부가 “에이즈를 정복했다”고 선언했다. 의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27일 미국 뉴스채널 CNN에 따르면 이집트 암치료검진센터의 이브라힘 압델 아티 소장은 지난 23일 열린 치료기 설명회에서 “에이즈와 C형 간염을 100% 정복했다. 위대한 과학적 개가”라고 주장했다.<br/>치료기는 피를 뽑아 정화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16시간 안에 고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압델 아티 소장은 이집트 군부의 수장인 압델 파타 엘 시시 국방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군부도 이 치료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했다.<br/>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엘 시시 장관에게 충성경쟁을 벌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연구진 안에서도 “<span class='quot0'>발표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span>”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6.txt

제목: 미국도 갑상선암 급증…과잉진단 탓?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345  
ID: 01100201.20140226100000345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조기에 적극적인 검사 결과 국내 갑상선암이 급진적으로 늘어난 것과 같이 미국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br/><br/>미국 다트머스의대 Louise Davies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 20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span class='quot0'>미국내 갑상선암에 대한 무분별한 검사 등의 진단으로 암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연구팀은 SEER 프로그램을 이용해 1974~2008년의 갑상선암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은 물론 과잉진단 및 치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1975년에 10만명 당 4.9명 꼴이였던 갑상선암 환자수가 2009년에는 10만명 당 14.3명으로 9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과거 CDC가 같은 기간동안의 갑상선암 유병률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과는 다소 상반된 수치를 보였다.<br/><br/>연구팀은 “데이터를 보면 2001~2010년 갑상선암은 연간 1.2%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간암이 20여년동안 연간 2.4% 유병률이 많아졌다. 이는 주요 암의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br/><br/>책임연구자 Davies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급진적 증가세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잉진단과 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임상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pan>”고 말했다.<br/><br/>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클리브랜드의대 Allan Siperstein 교수는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은 연구”라며 “이전 연구들과 비교 해봤을 때도 갑상선암 유병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꼭 과잉진단 때문만은 아니다. 사망률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미국 시카고의대 Raymon Grogan 교수도 “<span class='quot2'>참고한 데이터는 미국 국민만을 대상으로한 자료로 정확성이 떨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전 세계적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만 봤을때도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이에 논문 공동저자인 다트머스의대 Welch 교수는 “<span class='quot1'>하지만 지난 30여년동안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무분별한 검사가 시행된 것은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과잉진단 및 치료를 줄이기만 해도 갑상선 종양을 재분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한편,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과 비교했을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br/><br/>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본부가 2013년 12월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23.7%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2011년 데이터만을 단독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그 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3'>첨단 영상진단기기의 발전 덕분에 미세한 신체변화까지도 집어낼 수 있게 돼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갑상선암까지 진단하게 되면서 생긴 기현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7.txt

제목: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임상3상 환자등록 완료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42  
ID: 01100201.2014022610000024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일양약품이 개발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한 임상 3상 환자등록을 2월 26일부로 완료했다.<br/><br/>지난 2011년 8월부터 2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서울 성모병원 등 국내 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한 슈펙트는 약 2년 6개월 만에 환자등록을 완료하고 정해진 치료 기간을 마치는 데로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br/><br/>이에 따라 일양약품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 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돼 매출성장은 물론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슈펙트 임상3상 환자등록 완료의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발된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출시를 앞두게 된 것이자 향후, 전세계 백혈병 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r/><br/>특히 일양약품 슈펙트의 특장점은 경쟁약물에 비교되는 우수한 효능 효과와 경제적인 약가로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와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br/><br/>이미 슈펙트는 거대 백혈병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약효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당사와 중국 고우시 정부가 투자 설립한 양주일양 유한공사를 통해 신약판매 및 기술이전에 관한 중국수출 계약을 완료했으며,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동의 라이프파마사(GCC 6개국 포함 총 13개국 영업망)와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br/><br/>한편, 슈펙트는 2003년 백혈병 유도체 개발을 시작으로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거쳐 2012년 1월 국산 18호 신약으로 승인 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출시 당시 1일 약값(800mg) 6만4000원, 1개월(4주) 약값 179만2000원의 경제적 약가로 다국적사와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또한 기존 치료제보다 주요세포유전학적 반응율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슈펙트는 초기반응도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도 글로벌 제품과의 간접 비교결과, 우수한 유효율을 보여 일양약품의 신약기술력이 검증 받은 대한민국 대표 슈퍼 백혈병 치료제이자 세계 4번째 개발된 신약이다.<br/><br/>단일과제로는 최대 규모인 4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슈펙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혈액학회저널 블러드(Blood)지와 세계적 뉴스 제공업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지에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 된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8.txt

제목: 미래에셋생명, 오는 7월까지 '다이렉트보험 체험존' 운영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31  
ID: 01100201.20140226100000231  
카테고리: 경제  
본문: [쿠키 경제] 미래에셋생명이 다이렉트보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이렉트보험 체험존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br/>미래에셋생명은 고객들이 직접 다이렉트보험을 체험하고, 장점을 알 수 있게 하고자 여의도 본사 사옥 1층에 위치한 커피숍 ‘브라운벤치’에 다이렉트보험 체험존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고객들은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다.<br/>또한 2월 28일까지 체험존을 통해 보험료를 알아본 고객에게는 룰렛 게임으로 영화관람권 등 모바일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br/>미래에셋생명 차승렬 e-Biz팀장은 “체험존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보험의 장점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험 마케팅과 온라인에서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br/>한편 2013년 6월에 출시된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보험은 온라인 보험 업계 최다인 7개의 상품(암, 정기, 어린이, 저축, 연금저축, 건강출산, 건강제대보험)을 인터넷 홈페이지(direct.miraeasset.com)에서 판매 중이다.<br/>다이렉트보험은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며, 가입절차가 간편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낮춰 환급률이 높고, 암보험은 보험료 인상 없이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대 남녀가 다이렉트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1만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499.txt

제목: 전립선암 후유증 발기부전, 치료 방법은?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354  
ID: 01100201.2014022510000035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서양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br/><br/>하지만 정작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곳에 있다. 전립선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생존율 또한 높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암에 속한다. 그러나 수술을 위해 전립선을 떼어내면 요실금, 발기부전, 사정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기가 되지 않아 수술 후 남성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br/><br/>박성훈 세움비뇨기과 원장은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발기부전에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br/><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이나 암수술 후 발병하는 발기부전은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심리적인 문제와 부부관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발기부전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한번 치료할 때 확실하게 완치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특히 박 원장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 중 비교적 확실한 방법은 바로 ‘팽창형보형물삽입술’이다. 이는 음경의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성적 쾌감이나 음경의 감각도 그대로 유지되며 의지에 따라 발기가 가능하다.<br/><br/>박성훈 원장은 “<span class='quot1'>수술을 받는 것은 좋지만 무턱대고 병원을 선택하지 말고, 음경 보형물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과 평생시술 책임제 및 보증서를 발행하는 곳인지 확인한다면 더욱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비뇨기과 전문의인 박성훈 원장은 coloplast사(社) 글로벌트레이닝을 받았으며, 발기부전보형물 디지털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세움비뇨기과는 발기부전 수술에 필수적인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균조작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수술복과 소독포 같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과학적인 감염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0.txt

제목: 국립암센터 26일, ‘암 질환 중심-바이오 빅데이터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2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199  
ID: 01100201.201402241000001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오는 26일(수) 오후 1시부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국회 바이오 빅데이터포럼(대표 권은희, 김성주, 윤명희, 이원욱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암 질환 중심 바이오-빅데이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 맞춤의료에 관한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미래 R&D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도 논의된다.<br/>심포지엄 1부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 주제로 ▲국립암센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방향 및 비젼(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 ▲해외 빅데이터 기반 암 유전체 응용 사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열홍 교수)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삼성생명 보험연구소 양혜영박사) 등이 발표된다.<br/>이어 2부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에 관한 미래 전략’ 주제로 ▲암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IT기반 빅데이터 R&D(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선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질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응용(질병관리본부 조성범 과장) ▲국립암센터 빅데이터 기반 암 유전체 응용 전략(국립암센터 암유전체연구과 허철구 과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1.txt

제목: 건강관리협회가 알려주는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2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2100000111  
ID: 01100201.20140222100000111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암 경험자 130만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 4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히 암에 대한 정보도 차고 넘친다. 문제는 잘못된 암 정보. 맞지 않은 정보는 자칫 암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아 보자.<br/><br/>◇휴대전화 사용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밝히던 그간의 입장을 뒤엎고 휴대전화의 암 발병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10년 이상)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매일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병률이 40%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내용도 인정했다. 이에 WHO는 음성통화 대신 ‘핸즈프리 키트’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대한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br/><br/>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통화 연결 중에 전자파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지하철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통화하면 정지 상태보다 평균 5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증가했다.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기기 출력이 증가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때도 개방 공간에서 통화하는 것보다 평균 7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세졌다. 밀폐된 장소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출력이 증가하는 것이다.<br/><br/>◇술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br/><br/>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서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 주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주의 양과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루 40~80g의 술을 10년 동안 마신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br/><br/>◇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br/><br/>아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유방암 발병률이 여성 유방암 발병률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남성의 평균 진단연령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고 대체로 예후도 여성 유방암보다 좋지 않다.<br/><br/>◇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br/><br/>대표적인 속설 중 하나다. 대장암 전문의인 김재황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는 “진료한 대장암 환자 중 육류를 자주 먹었다고 말하는 환자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면서 식습관과 대장암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익히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육식을 하는 경우는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암환자에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육식을 하되 살코기를 위주로 해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br/><br/>◇유기농 식품만 먹으면 암을 피할 수 있다?<br/><br/>유기농 식품과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미국 보건당국도 화학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나 호르몬, 방부제 등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먹으라고 권고했다.<br/><br/>다만, 모든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발암성분도 포함된 만큼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령, 사과나 상추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산, 알로에의 샤프롤, 파슬리에 들어 있는 소랄렌, 버섯에 있는 셀레릴 하이드라진, 마늘에 들어 있는 이소시오시아네이트 등은 천연 발암물질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기농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미량의 독성 성분이 쌓여 해가 된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2.txt

제목: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와츠앱 인수… 라인·카카오톡 비상  
날짜: 20140221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108  
ID: 01100201.2014022110000010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신저 중 하나인 와츠앱(WhatsApp)을 전격 인수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인, 카카오톡 등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다.<br/>페이스북은 19일(현지시간) 와츠앱을 190억 달러(20조36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는 성명을 통해 “와츠앱은 10억명의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br/>인수대금 중 4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120억 달러는 페이스북 주식으로 제공된다. 또 인수 종료 시점부터 4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30억 달러어치를 와츠앱 임직원에게 주기로 했다. 와츠앱 공동설립자이자 CEO 잰 쿰(사진)은 페이스북 등기이사로 합류한다.<br/>이로써 쿰은 가난한 이민자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어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태어난 쿰은 유년기 대부분을 전기도, 뜨거운 물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보냈다. 가난을 피해 16세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끼니를 위해 무료 식권인 ‘푸드스탬프’에 의지해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자 어머니에게 나오는 국가 보조금으로 모자가 연명했다.<br/>쿰은 중고책방에서 구한 컴퓨터 서적을 읽으며 희망을 키웠다. 1997년 야후에 들어간 그는 여기서 만난 브라이언 액튼과 2009년 와츠앱을 만들었다. 이번 인수로 20년 만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자가 됐다.<br/>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의 인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와츠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다. 월 사용자가 4억500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는 매일 와츠앱을 이용한다. 1년에 1달러를 내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신규 가입자가 매일 100만명씩 늘고 있다.<br/>와츠앱 인수금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을 살 때보다 19배 많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br/>페이스북도 지난해 11월 모바일 메신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곤 아직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와츠앱은 유럽, 인도 등 상당수 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br/>페이스북은 와츠앱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라인, 카카오 그리고 중국 위챗 등이 버티고 있는 아시아 시장까지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라인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위챗을 비롯한 자국 업체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북미, 유럽은 와츠앱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br/>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이번 인수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span class='quot0'>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대형 글로벌 업체가 뭉치면서 국내외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pan>”고 우려했다.<br/>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3.txt

제목: 을지대학교병원, 로봇수술 300례 시행  
날짜: 201402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8100000173  
ID: 01100201.2014021810000017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을지대학교병원이 중부권 최초로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수술 300례을 시행했다.<br/><br/>로봇수술로 진행한 암수술 300례 중 갑상선암 및 종양이 122례(40.6%), 직장암 및 결장암이 90례(30%), 전립선암 및 비뇨기계질환이 87례(29) 순이었다.<br/><br/>복강경 수술로봇 시스템인 다빈치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이곳을 통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팔을 넣고 의사가 로봇 조작 장치(콘솔)에서 수술할 때와 같은 손동작을 하면 이 손동작이 로봇팔로 그대로 전달돼 수술을 하게 된다.<br/><br/>또한 기존 로봇 수술장비와 다르게 수술부위를 10~15배로 확대한 고화질의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신경이나 혈관 손상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김창남 교수 을지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의사의 자유로운 손목 관절 움직임을 손 떨림 없이 재현해 기존 복강경 수술로는 까다로웠던 암수술을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로봇 수술은 기존 개복술(배를 여는 수술)에 비해 흉터가 현저히 작고 입원 및 회복기간이 짧으며 예후가 좋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4.txt

제목: 수술 전 MRI검사, 직장암 진행 예측 가능한가?  
날짜: 2014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115  
ID: 01100201.201402141000001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연구 결과 미국대장항문학회지 게재<br/><br/><br/><br/>[쿠키 건강] 대부분의 직장암 환자들이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거치게 된다. 현재 국제적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임상적 병기가 암 침윤 정도(T-stage) 3기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근치적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br/><br/>그러나 이러한 정밀 검진 장비들이 얼마나 예측 정확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외과 의사들은 MRI의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데 그 정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br/><br/>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연구팀(제1저자: 박준석, 장윤진 (영상의학과), 교신저자: 최규석)은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span class='quot0'>직장암 조직에서의 MRI의 진단 정확도</span>”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술 전 2차원 영상 이미지로 보이는 림프절을, 수술이 끝난 후 절제된 실제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1:1 매칭(matching)을 시킬 수 있는 가였다.<br/><br/>연구팀은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외초음파를 이용한 ‘침 정위술 실험 기법’(ex-vivo sono-guided needle localization)을 개발했다. 이 기법은사진에서 보이던 림프절을 종양에서부터 거리와 방향을 추정해 초음파를 이용해 찾은 후 세침을 이용해 위치를 고정하는 기법이다.<br/><br/>연구 결과 MRI는 암의 침윤 깊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확도 82.5%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림프절 전이의 예측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냈다.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 방법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감수성(sensitivity)과 양성 예측율(positive predictive value)이 60% 내외에 그쳐, 현재의 진단 방법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br/><br/>본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윤 정도가 2기 이하라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MRI에서 의심되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어 불필요한 합병증과 의료비 증가가 문제 돼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수술 전 MRI에 의한 림프절 전이 여부만으로 수술전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과잉치료(overtreatment)가 될 수 있다는 학설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직장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br/><br/>이 연구 결과는 미국대장항문학회 공식 학회지인 ‘Disease of the Colon and Rectum’ 1월호에 게재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5.txt

제목: [인터뷰-조병준 원장] “체내 독소 해독이 질병 예방·치유 지름길”  
날짜: 2014021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027  
ID: 01100201.201402141000000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대인은 무수히 많은 질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건강을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br/>신경락빛사랑한의원 조병준 원장은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 그 질병이 걸리는 원인은 한방에서는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 이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절치 못한 인스턴트 및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와 DNA를 공격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과로 등은 젖산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이 체내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축적돼 결국 질병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br/>“결국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면 이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br/>조 원장은 “체내에서 축적된 독은 결국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땀을 흘릴 기회가 적은 현대인이 식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대소변으로도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니 체내 독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배출이 안 되는 독소들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br/>“면역 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의 일부분도 장에서 분비하니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며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성 독소가 나가야 하니 소변 배출도 함께 중요합니다.”<br/>그렇다면 식생활 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무엇일까. 조 원장은 “해독식이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효소가 들어 있는 야채와 과일, 현미밥과 삶은 고구마 1개 정도에 김치, 오이, 당근, 깻잎, 배추속, 상추, 양배추, 고추, 양파 등을 장에 찍어 드시면 훌륭한 해독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소식(小食)을 해야 하고 생야채 중심의 반찬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r/>“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잘 씻어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것으로도 식사대용 및 해독식이 됩니다. 토마토와 아몬드를 3대 1 비율로 소스를 만들면 이 소스가 장에 들어가 발효하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br/>조 원장은 “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되는 것”이라며 “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설명했다.<br/>체내 독소 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질병이 호전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것에 보람이 크다”고 환하게 웃었다.<br/>김무정 선임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6.txt

제목: 연세대 최강열·김태열 교수팀, 암 줄기세포 활성화 과정 첫 규명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310013459764  
ID: 01100201.20140213100134597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세포의 기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앞으로 암 줄기세포 표적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발암 유전자 ‘라스 단백질’이 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연세대 최강열(생명공학과) 김태열(의과대학) 교수팀이 규명했다고 밝혔다. 라스 단백질과 암 줄기세포 활성화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br/>연구진은 대장암 발생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APC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돌연변이 라스 단백질이 암 줄기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PC는 생체 내에서의 발생·성장·항상성 유지 등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전달체계인 ‘윈트신호전달계’를 저해하는 유전자로 변이가 생기면 암을 일으킨다. 돌연변이 라스 단백질을 가진 대장암 세포는 정상 라스 단백질을 가진 대장암 세포보다 암 줄기세포 인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온라인판에 실렸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7.txt

제목: 국제개별화의료학회 6월, 일본 삿포로서 18회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02  
ID: 01100201.201402121000003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율을 발표했던 국제개별화의료학회(맞춤의료학회)가 오는 6월 제18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추가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하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지난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 74.4%에서 치료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에 따르면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은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6회 실시한 결과, 74.4%에서 치료 성과를 보였다.<br/><br/>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 대상으로 진행됐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기존에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 2~3시간 성분채혈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본 병원은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는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했다</span>”고 말했다.<br/><br/>수지상세포는 나뭇가지 모양을 띠고 있으며 단구세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계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지상세포로부터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정보를 가진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CTL이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은 거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아베종양내과는 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했다. 1번부터 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B임파구와 헬퍼T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게 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현재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분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낮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서는 암 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모두 활용해 치료효과를 높였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1'>또한 수지상세포를 동결해 보관하는 방식도 치료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 매번 소량만 채혈하는 방식으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해 이를 보완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제18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추가 임상연구결과에 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8.txt

제목: 차세대 폐암치료제 ‘지오트립’ 국내 허가, 아레사·타세바에 도전장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484  
ID: 01100201.2014021210000048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항암제 시장 본격 진출<br/>1차 치료제로 국내 시판 허가, 정부 보험급여 가능 여부에 촉각<br/>[쿠키 건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항암제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표적항암치료제와 차별화된 차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지오트립’이 국내에 상륙했다.<br/>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제인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정이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오트립은 1일 1회 40 mg 요법으로 사용한다.<br/>◇진행성 폐암, 조기발견 어려워 5년생존율 극히 낮아= 보통 폐암은 조기 발견 어려우며 5년 생존율이 극히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br/>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다수 환자가 폐암 조기에 발견하기보다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검진을 통해 알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진행성 폐암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며 폐암 진단 환자 5년 생존율 여전히 7% 밖에 안된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암들에 비해 폐암의 생존율이 상당히 예후가 불량하고 낮은 편</span>”이라며 “이는 제일 큰 숙제거리다”고 덧붙였다.<br/>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소세포폐암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절제술이 가능한 1~3A기 환자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보통 비소세포폐암은 3A기 이후에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며 1기 또는 2기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항암화학요법은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원화시키는 것이 치료 목적으로 반응이 좋은 환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지난 30~40년간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유방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의 완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폐암치료제가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폐암의 생존율이 다른 암처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1세대 비소세포폐암 이어 2세대 항암제 ‘지오트립’ 등장= 현재 폐암 치료를 위한 1차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의약품이 있다. 국내에서는 1세대 EGFR 치료제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레사’, 로슈의 ‘타세바’가 있다. 이들 치료제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해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들이다.<br/>이들 시장에 차세대 치료제 지오트립이 지난달 허가를 받고 새롭게 등장했다. 이번 지오트립 출시는 기존치료제와 다른 2세대 표적항암제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오트립은 기존 표적치료제와 달리 수용체와의 친화도가 높아 수용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용해 암 세포의 신호전달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장기간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내성발현의 위험을 줄여 치료 반응률을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r/>지오트립의 식약처 허가는 현재 EGFR 활성변이가 확인 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요법인 페메트렉시드와 시스플라틴 병용치료와 그 효과를 비교한 대규모 3상 임상인 LUX-Lung3 등의 임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LUX-Lung3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오트립은 현행 표준 치료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을 약 4개월 가량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트립정 치료군은 약 1년동안 종양이 성장하지 않고 생존한 반면, 대조군인 화학요법 치료군은 무진행생존기간이 6.9개월에 그쳤다.<br/>조병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지오트립 치료군은 유의한 호흡곤란 개선 효과를 보였고 통증 개선 경향 및 기침 횟수도 감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화학 치료요법 대비 기침이 악화되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시간도 유의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임상 결과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br/>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치료제가 정부에 보험급여로 인정될 지의 여부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오트립이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되도록 회사 측도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협의를 해 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기간은 약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09.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복강경 위암 수술 3천례 돌파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15  
ID: 01100201.201402121000003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망률(0.03%), 합병증(11.3%) 수술 성적 뛰어나<br/><br/>[쿠키 건강]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10일 기준으로 복강경 위암 수술 3000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br/><br/>지난 2003년 5월 첫 수술을 실시한 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김형호·박도중·안상훈 교수팀)는 지난달 10일 복강경 위암수술 3002건을 시행했다.<br/><br/>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4567건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 위암 수술 후 수술에 따른 사망률은 0.03% (1건)을 기록했다. 또한 수술부위 감염, 출혈 등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개복(18.7%)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11.3%)에서 더 낮았다.<br/><br/>이러한 성과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위암수술 사망률 1등급 의료기관으로 평가 받았고, 2012년 기준 복강경 위암수술 후 입원일수 8.6일로 전국최저입원일수를 기록했다.<br/><br/>◇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다기관 연구 주도<br/><br/>현재 조기위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은 조기회복, 통증감소, 흉터 최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가 있다. 세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규모 다기관 연구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br/><br/>현재까지는 위암에서 개복수술이 표준수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복강경 위암수술의 장기생존과 관련된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김형호 교수가 총 책임연구자로 국내 16개 병원 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 비용대비효과, 환자 삶의 질, 면역력 그리고 장기생존율을 비교하는 다기관 임상연구(KLASS-01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오는 2015년이면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오고 위암에서 복강경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전체 위암환자 90% 난이도 높은 전복강경수술 시행<br/><br/>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체 위암환자의 약 90%를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 절제와 문합을 위해 상복부에 4~6cm 정도의 절제가 필요했지만, 절개창 없이 체내에서 위 절제와 문합을 모두 시행하는 전복강경수술로 모든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br/><br/>여기에서 더 발전해 기존 5~6개의 포트를 사용하는 복강경위암수술에서 축소포트위암수술(3개의포트) 및 단일절개 복강경위암수술(1개의 포트)을 적용하고 있다. 병원 측은 “배꼽에 2~2.5㎝의 단일절개만으로 수술하는 순수 단일절개 복강경위암수술은 2013년 10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100례를 시행해 가장 많은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김형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위암 수술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물론 감시림프절연구, 이중통로근위부위절제술 및 순수단일절개위암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한국의 복강경 위암 수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외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진단 및 검사를 진행하는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와 항암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와 간호인력, 연구원들이 함께 하는 다학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0.txt

제목: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2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158  
ID: 01100201.20140210100000158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암 경험자 130만명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 4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히 암에 대한 정보도 차고 넘친다. 문제는 잘못된 암 정보이다. 올바르지 못한 정보는 자칫 암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br/><br/>▲휴대전화 사용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그렇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밝히던 그간의 입장을 뒤엎고 휴대전화의 암 발병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br/><br/>이와 함께 장기간(10년 이상)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매일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병률이 40%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내용도 인정했다. 이에 WHO는 음성통화 대신 ‘핸즈프리 키트’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대한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br/><br/>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통화 연결 중에 전자파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지하철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통화하면 정지 상태보다 평균 5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증가했다.<br/><br/>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기기 출력이 증가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때도 개방 공간에서 토오하하는 것보다 평균 7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세졌다. 밀폐된 장소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 출력이 증가하는 것이다.<br/><br/>▲술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아니다.<br/><br/>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서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 주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주의 양과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루 40~80g의 술을 10년 동안 마신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br/><br/>▲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아니다.<br/><br/>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유방암 발병률이 여성 유방암 발병률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남성의 평균 진단연령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고 대체로 예후도 여성 유방암보다 좋지 않다.<br/><br/>▲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아니다.<br/><br/>대표적인 속설 중 하나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 중 육류를 자주 먹었다고 말하는 환자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다만, 익히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육식을 하는 경우는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암환자에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육식을 하되 살코기를 위주로 하여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br/><br/>▲유기농 식품만 먹으면 암을 피할 수 있다?=아니다.<br/><br/>유기농 식품과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미국 보건당국도 화학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나 호르몬, 방부제 등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먹으라고 권고했다.<br/><br/>다만, 모든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발암성분도 포함된 만큼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령 사과나 상추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산, 알로에의 샤프롤, 파슬리에 들어 있는 소랄렌, 버섯에 있는 셀레릴 하이드라진, 마늘에 들어 있는 이소시오시아네이트 등은 천연 발암물질이다.<br/><br/>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기농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독성 성분이 쌓여 해가 된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 도움말=이대일 원장(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1.txt

제목: 김현구 교수, 美학회서 싱글포트 흉강경 폐절제술 성공사례 발표  
날짜: 201402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264  
ID: 01100201.201402101000002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김현구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교수(사진)가 지난 1월 29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흉부외과학회(Society of Thoracic Surgeon)에서 싱글포트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br/><br/>김 교수의 폐절제술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로서, 지난 201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소 2.5~4cm가량의 단 한 곳만을 절개해 수술하는 싱글포트(single port) 흉강경을 이용해 폐암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성공시켰다.<br/><br/>이후 최첨단 3D 흉강경 장비를 도입해 싱글포트 폐암수술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선도해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110례 이상 수술에 성공하며 폐암 완치를 돕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이에 김현구 교수는 오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아시아 싱글포트 흉강경 수술 심포지엄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술법과 노하우를 아시아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전수할 예정이다.<br/><br/>한편, 현재 김 교수는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탐색 기반의 흉강경 영상유도 폐암수술 기법 개발’과 ‘폐암에서 림프관을 통한 나노기반의 국소항암치료제 개발’ 등 국책연구를 총괄하며 미래 폐암 신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영상유도 폐암 수술법은 싱글포트로 보다 작게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폐암조직만을 미세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진보된 수술법으로, 초기 폐암환자가 보다 간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암 재발 및 전이를 막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강점</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2.txt

제목: 김현구 교수, 美 흉부외과학회서 폐암수술 성과 발표  
날짜: 201402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9100000031  
ID: 01100201.201402091000000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과, 세계가 주목<br/><br/>[쿠키 건강]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사진)가 최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아다.<br/><br/>9일 고대구로병원에 따르면 김현구 교수는 지난달 29일 미국흉부외과학회(Society of Thoracic Surgeon) 학술대회에서 가슴의 한 곳만을 절개해 흉강경으로 수술하는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했다.<br/><br/>김 교수의 수술법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흔치 않아 전세계 의료진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김현구 교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수술법과 노하우도 전수해 우수한 수술역량을 알렸다.<br/><br/>이에 앞서 김현구 교수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소 2.5~4㎝가량의 단 한 곳만을 절개해 수술하는 싱글포트(single port) 흉강경을 이용해 폐암조직만을 떼어내는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br/><br/>이후 최첨단 3D 흉강경 장비를 도입해 싱글포트 폐암수술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선도해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110례 이상 수술에 성공하며 폐암 완치를 돕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이와 함께 김 교수는 뛰어난 임상 및 연구역량으로 주요 국제 학회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현구 교수는 는 오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아시아 싱글포트 흉강경 수술 심포지엄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술법과 노하우를 아시아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전수할 예정이다.<br/><br/>특히 김현구 교수는 현재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탐색 기반의 흉강경 영상유도 폐암수술 기법 개발’과 ‘폐암에서 림프관을 통한 나노기반의 국소항암치료제 개발’ 등 국책연구를 총괄하며 미래 폐암 신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김현구 교수가 개발하고 있는 영상유도 폐암 수술법은 싱글포트로 보다 작게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폐암조직만을 미세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진보된 수술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초기 폐암환자가 보다 간편하게 수술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암 재발 및 전이를 막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강점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3.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의료서비스 협약  
날짜: 201402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7100000244  
ID: 01100201.20140207100000244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쿠키 건강] 방선휘한의원(대표원장 방선휘)는 지난 6일 대전 라미아호텔에서 전통 한방 종양학을 바탕으로 암치료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센터장 조종관)와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br/><br/>방선휘한의원은 암치료의 세계적인 흐름인 양한방 통합암치료를 선도하는 부산지역의 면역치료 한의원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방선휘한의원과 동서암센터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은 양 기관 순환 진료 서비스 등 진료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br/><br/>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환자 진료 협력, 환자 의뢰, 진료지원, 환자 치료 결과 공유,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의 교류 활동을 강화한다.<br/><br/>이와 함께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방선휘한의원에 매뉴얼, 세미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교육 등에 대한 초청 등 다양한 의학 정보 공유 업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부산 방선휘한의원 간 의료기술 협력 및 자문, 최첨단 의료시설, 장비 등의 견학에 대해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br/><br/>특히 양 기관은 통합의학과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임상시험 및 통계자료 등의 연구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br/><br/>방선휘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치료 현장에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한방면역치료의 발전 및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근거 중심의 신뢰성 있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임 한방암치료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br/><br/>방선휘한의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울산,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면역암치료 로컬센터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한방 통합암치료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료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 것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4.txt

제목: 비타민 D 효과, 기대해도 될까?  
날짜: 2014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140  
ID: 01100201.201402051000001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VITAL 연구…비타민 D 복용 5년 효과<br/><br/>[쿠키 건강] 미국에서 비타민 D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여러 메타분석에서 더 이상의 비타민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대세를 이루는 터라 VITAL 연구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br/><br/>이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하버드공중보건의대 조안 맨슨(JoAhn Manson) 교수(브링험여성병원)는 “<span class='quot0'>비타민 D 보충제의 만성질환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VITAL 연구는 설계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연구의 질이 높아 비타민 D와 관련된 의문점에 중요한 해답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br/><br/>VITAL 연구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보충제의 암,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상 연구다.<br/><br/>50세 이상 미국 성인 남녀 2만명을 비타민 D+오메가-3 복용군, 비타민 D 복용군, 오메가-3 복용군, 위약군으로 나눴고 해당 군에서 매일 비타민 D3 보충제(콜레칼시페롤) 2000IU과 오메가-3 지방산 840㎎을 함유하고 있는 오마코 1캡슐을 복용하도록 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군에게 1일 800IU 복용을 허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타민 D 투여용량이나 빈도가 낮아 생리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것이 맨슨 교수의 주장이다.<br/><br/>과거 비타민 D 보충제 복용 혜택을 단기간 평가한 데 그쳤다면, 추적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뼈 건강이나 심혈관질환, 암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당뇨병, 인지기능, 우울증, 감염률을 포함 다양한 평가항목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이 연구의 강점이다.<br/><br/>이미 1만6000명이 넘는 참여군이 베이스라인에 혈액검사를 통해 혈청 25-hydroxyvitamin D 수치를 평가했고 4000명이 추적검사를 마쳤다. 5000명이 넘는 흑인이 참여군에 포함돼 인종간 다양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br/><br/>2017년 상반기 발표될 VITAL 연구 결과가 기존의 메타분석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5.txt

제목: 빛이 부족할 때와 과할 때 발생하는 질병은?  
날짜: 201402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348  
ID: 01100201.20140205100000348  
카테고리: 사회  
본문: [쿠키 건강]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5분만 호흡하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되는 공기와 5일만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물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급한 것으로 본다면 두 요소가 먼저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본질은 햇빛으로부터 나온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빛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br/><br/>◇빛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병<br/><br/>▲일조량 부족으로 걸리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우울증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은 일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조량에 따라 인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변하면서 생체리듬이 조절되는데 일조량이 줄어드는 밤 시간에 멜라토닌의 양이 늘어난다. 이는 수면 조절 호르몬으로서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빛 부족 외에도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등의 불균형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br/><br/>▲빛을 보지 못하면 ‘다발성 경화증’=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겨울철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신경 조직이 퇴화하는 것으로, 중추신경 조직의 염증성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쇠약감, 신체 말단부위나 한쪽 안면의 감각이상, 시력장애, 보행장애, 배뇨조절 곤란, 현기증, 감정적 불안정 등이 나타난다.<br/><br/>▲비타민D 부족하면 ‘전립선암’=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결국은 악성종양이 되는 질환이다. 슈왈츠박사는 1990년에 처음으로 전립선암과 비타민D의 관계를 밝혀냈다. 슈왈츠 박사에 의하면 비타민D가 적은 인구일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 또한,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암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비타민D가 전립선암 발병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타민D는 80~90% 정도가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만들어진다.<br/><br/>◇빛이 과할 때 생기는 질병<br/><br/>▲야간의 인공조명이 유해한 ‘유방암’=유방암은 악성종양이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암으로 일반적으로 유관과 유소엽의 상피 세포에 생긴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br/><br/>선진국일수록 유방암 환자가 많은데 이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사회적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야간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리는데, 이는 밤에 인공조명과 같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경내분비 전문의인 블래스크 박사는 실험을 통해 멜라토닌이 유방암과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다.<br/><br/>▲밤에 켜두는 조명이 ‘근시’를 부른다=빛은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빛의 노출은 근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빛 노출이 눈의 각막과 홍막에 영향을 끼쳐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떨어진다. 근시에 영향을 주는 빛은 어두운 빛, 번쩍거리는 빛, 적외선, 자외선, 너무 강하거나 약한 조명 등이다.<br/><br/>▲피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햇빛은 ‘피부암’의 원인=피부암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총칭하는 말이다. 피부암의 원인은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하얀 피부, 소아의 주근깨, 피부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자외선이 환경요소로 작용해 피부암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외선 과다 노출은 피하고 방사선이나 지속된 열에 의한 노출도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야외활동을 피하면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br/><br/>\*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6.txt

제목: “이, 이럴수가…” 세계 과학계 발칵 뒤집은 일본 30세 女과학자  
날짜: 201401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30100000111  
ID: 01100201.201401301000001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과학] 서른살의 무명 일본 여성 과학자가 개발한 ‘제3의 만능세포’를 놓고 전 세계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과학계는 잘 만하면 수백 년의 생물세포학 역사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며 가히 충격적인 연구성과로 평가하고 있다.<br/>주인공은 일본 고베(神戶) 소재의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사진) 연구주임.<br/>영국 과학지 네이처는 30일 오보카타 연구주임 등이 개발한 만능세포 ‘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자극야기성 다성능획득) 세포’ 논문을 실었다.<br/>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입증한 STAP 세포는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생명과학 상식을 뒤집는 혁신적인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STAP 세포는 그동안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았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에 비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데다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암 발생 우려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노벨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토(京都)대 교수가 2006년 개발한 iPS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주입해 만들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금까지 개발된 또 다른 만능세포인 배아 줄기세포(ES세포)는 수정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br/>STAP 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쥐의 비장에서 채취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홍차 정도의 약산성 용액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배양하면 수일 후에 만능세포가 만들어진다. 연구팀은 이 세포를 쥐의 피하조직에 이식해 실험한 결과 신경, 근육, 장(腸) 세포 등 어떤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임을 확인했다.<br/>만능세포를 만드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상식을 뒤엎은 것이다. 외부 자극으로 세포의 역할이 재설정되는 초기화가 식물이 아닌, 동물 세포에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증명됐다.<br/>다만 이번 발견이 사람의 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의 확인 연구가 남아있다.<br/>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실리자 “혁명적, 충격적인 연구 성과”라는 절찬이 이어졌다.<br/>STAP세포 개발의 주역인 오보카타 씨는 와세다(早稻田)대 이공학부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무명의 젊은 여성 과학자로, 작년 봄 네이처에 논문을 투고했다가 한차례 퇴짜를 맞았다. 과거 수백 년의 생물세포학 역사를 우롱하는 논문이라는 이유에서다.<br/>하지만 오보카타 씨는 “STAP세포는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라는 신념하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완해 다시 도전, 이번에 네이처 권두논문으로 실렸다는 후문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7.txt

제목: 숙면, 전립선암 발생위험률 낮춘다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8100000257  
ID: 01100201.201401281000002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숙면을 취하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하버드의대 Sarah C. Markt 교수팀은 최근 미국암연구학회(AACR)전립선암재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잠을 충분히 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전립선암 발생위험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특히 멜라토닌은 밤에 더 많이 생기는데 멜라토닌 수치가 높을수록 밤에 숙면을 취했다는 의미다.<br/><br/>연구팀은 아이슬란드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규모 연구모집에 등록한 아이슬란드 남성 928명을 대상으로 멜라토닌 수치를 측정, 7년동안 비교분석했다. 대상군 가운데 111명은 전립선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이 중 24명은 진행된 암을 가지고 있었다.<br/><br/>추적결과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수치가 정상 이하인 사람보다 전립선암의 발병 확률이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행 전 측정한 환자들의 6-sulfatoxymelatonin 요비율이 17.14ng/㎖이었다. 환자들은 수면약을 복용한 경험, 숙면을 취하는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보다 낮았다.<br/><br/>책임 연구자 Sarah C. Markt 교수는 "수면 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들이 멜라토닌 분비량에 영향을 주거나 분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24시간 주기를 가지고 있는 서케디안 리듬(the circadian rhythm)과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생성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br/><br/>연구에 참여한 Chan 박사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남성은 전립선 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멜라토닌 보중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br/>한편 Markt 교수는 "수면 방해 및 낮은 멜라토닌 수치가 암 발병률과 밀접한 연관이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8.txt

제목: 분당차병원 조경기 교수, ‘악성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401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8100000262  
ID: 01100201.2014012810000026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쿠키 건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연구팀은 재발된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면역세포치료제인 자가살해세포 투여 후 치료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자주도 1/2상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고 28일 밝혔다.<br/>교모세포종은 뇌의 교세포에서 발생한 종양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주위조직으로 침습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고, 깊은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소적인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발이 잘 되며 재발될 경우 기대수명이 수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무한 상태다.<br/>이 연구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는 본인의 말초혈액에서 암을 억제하거나 사멸할 수 있는 림프구만을 분리한 후 더욱 강력한 림프구세포인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T세포(Natural Killer T Cell), T세포를 선별한다. 여기에 특이적 항원과 질병, 감염에 맞서 싸우도록 자극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 증식한 후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br/>2주에 한번씩 면역세포치료제를 주입하며, 6주를 주기로 항암요법을 병행하는데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역세포치료제를 주입하지 않는다. 피험자가 최대로 투여 받을 수 있는 면역세포치료제의 주입 횟수는 24회다.<br/>대상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MRI 검사에서 재발성 교모세포종으로 확진됐으며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분당차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19.txt

제목: 일동후디스-대한비만학회 MOU 체결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289  
ID: 01100201.2014012410000028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친환경 로하스 식품전문기업 일동후디스와 대한비만학회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br/><br/>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10%에 가까운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된 심뇌혈관 질환과 각종 암 등 치명적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br/><br/>이번 MOU체결로 대한비만학회와 일동후디스는 장내 세균총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실험연구 결과를 임상연구 영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평생건강과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은 물론, 영양 및 기능성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br/><br/>또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과 제품개발 관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0.txt

제목: 이화의료원,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173  
ID: 01100201.20140124100000173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23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br/><br/>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 브랜드를 평가해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br/><br/>시상 주최 측은 “<span class='quot0'>최근 발표되는 각종 암 및 질환의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그 이름을 올리며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질 높은 의학 서비스와 함께 첨단 장비 도입과 미국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제2부속병원 개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009년 이대여성암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유방암·대장암·급성심근경색증·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br/><br/>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은 병원 방문 당일 진료 및 검사가 시행되는 원스톱 서비스, 암 진단 후 1주일 내 시술, 레이디병동 등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시설이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많은 병원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 최대 병원경영 학술대회인 ‘2013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대학병원 혁신 성공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br/><br/>이순남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 수상은 이화의료원의 꾸준한 병원 혁신 활동과 특성화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올해 성공적인 JCI 재인증과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1.txt

제목: 바이오니아-사노피, 항암신약 공동연구 추가 계약 체결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179  
ID: 01100201.201401221000001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와 유전자기술 전문기업 바이오니아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원천 기반 기술인 새미알앤에이(SAMiRNA)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암의 치료제 개발 관련하여 추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br/><br/>양 사는 지난 2012년 바이오니아가 개발한 SAMiRNA 기술을 활용, 아시아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간암 등 고형암 분야의 표적 항암신약 후보 발굴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간 바이오니아 주도로 신개념의 RNAi 신약물질인 SAMiRNA를 이용, 사노피가 발굴한 타깃 암 유전자에 대한 비임상 동물모델 연구를 진행해 왔다.<br/><br/>이번 추가 계약은 지난 2년간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검토한 SAMiRNA 기술을 사노피의 추가 항암 타깃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공동연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노피 본사 R&D 연구진이 바이오니아의 SAMiRNA치료제를 사용해 난치성 암 질환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br/><br/>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번 추가 공동연구 계약은 바이오니아의 SAMiRNA기술의 수준과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사노피가 선별한 추가 항암 타깃에 SAMiRNA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돼 기존의 공동연구 부분이 포함된 기술이전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승주 사노피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소장인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추가계약은 사노피가 그간 추구해 온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span>”라며 “<span class='quot1'>사노피는 아시아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술을 가진 학계 및 바이오 기업 등과 꾸준히 협력해 왔다</span>”고 말했다.<br/><br/>또한 “이번 바이오니아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간암 등아시아 지역의 호발 난치성 암 치료 분야에서 유전자 간섭기술(siRNA)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2.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담배를 꼭 끊어야 하는 이유  
날짜: 201401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8100000050  
ID: 01100201.2014011810000005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 코너에서는 물론 그동안 건강 관련 기사를 쓰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누차 전한 바 있습니다만, 애연가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더 그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br/>담배를 꼭 끊어야 할 이유가 삼성서울병원 폐암센터 박근칠 교수팀에 의해 다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JCO)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br/>장기간 흡연 행위는 폐암 발병 원인의 약 25∼30%를 차지할 만큼 고(高)위험 암 유발 인자로 꼽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전자 변형 때문이랍니다.<br/>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게 되면 몸속에 퍼져 있는 여러 유전자가 제멋대로 변형돼 암세포가 발아(發芽)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흡연에 의한 유전자 변형은 이번에 확인된 것만도 400여개나 됩니다.<br/>더 큰 문제는 일단 유전자의 형질이 바뀌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에 따른 폐암은 마땅히 치료할 약도 없는 실정입니다.<br/>결국 담배는 처음부터 안 피우는 게 좋고, 현재 피우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것만이 체내 유전자 변형을 막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br/>연말연시 금연선언을 하고 지금 담배 끊기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은 그 결심, 이번엔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3.txt

제목: [인터뷰] 박영근 VGX인터 대표 “백신산업의 패러다임, DNA백신 통해 재편될 것”  
날짜: 201401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280  
ID: 01100201.201401171000002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선진국 유수의 제약사들은 앞 다퉈 ‘바이오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바이오 신약은 일반 신약과는 그 의미가 다른데, 기존 약이 화학 합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바이오 신약은 생명공학을 이용한다. DNA→RNA→Protein이라는 생명공식이 밝혀지면서 바이오 신약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br/><br/>바이오 신약의 장점은 질병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면역체계 내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성 신약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바이오 신약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DNA백신’이 주목받고 있다.<br/><br/>DNA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균을 직접 넣어 만든 1세대 백신과 달리 병원균의 DNA 일부분을 넣어 만든 것으로 항체 형성뿐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온 병원균을 직접 죽이는 T세포까지 생성한다. 1세대 백신이 보이지 않는 병을 예방했다면 DNA백신은 이와 더불어 걸린 병에 대한 치료효과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br/><br/>이 같은 DNA백신 개발에 도전장은 낸 곳은 국내서 단 한 곳, VGX인터내셔널 사다. 박영근 VGX인터내셔널 대표를 만나 세계 의약품 시장의 흐름과 DNA백신 개발에 대해 물었다.<br/><br/>박 대표는 “DNA백신은 1980년 대 말 이론이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임상을 시작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다보니 많은 발전은 이뤄온 지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내서는 개발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br/><br/>DNA백신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충분한 양의 DNA백신이 세포 내로 전달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05년 전기천공장치를 활용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DNA백신의 효과를 증명하는 임상연구가 이뤄졌다.<br/><br/>현재 VGX인터내셔널 사는 미국 이노비오 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궁경부암 치료하는 DNA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표는 “<span class='quot0'>현재 임상2상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치료백신은 우수한 임상 1상 연구결과로 이미 미국 내 의학계 및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큰 주목받고 있으며 최종 성공 시 60억불 규모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VGX인터내셔널 사가 설립 초기부터 DNA백신 개발에 주력했던 것은 아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그만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이 어려운 DNA백신 개발로 고개를 돌린 이유에 대해 박영근 대표는 “<span class='quot1'>세계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한국 제약업계의 최대 고민이자 과제는 ‘신약 개발’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갖는 명성과 입지는 두터운 편은 아니다. 이 분위기를 역전할 만한 대박 신약이 나오려면 이전 약품보다 약효가 월등히 뛰어나야 하는데, 1세대 백신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DNA백신에 주목한 이유다. DNA백신은 개발 그 자체는 어렵지만 제품화에 성공만 한다면 국내 백신산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DNA백신의 적응증은 대부분은 암, 면역체계 이상, 난치성 만성질환 등이다. 최근 VGX 인터내셔널사가 국내서 착수한 임상실험도 만성 C형간염 치료백신(VGX-6150)이다. 이에 대해 박영근 대표는 “<span class='quot1'>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한 블록버스터급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본 제품은 향후 5년 내에 제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br/><br/>DNA백신 개발과 관련해 VGX인터내셔널 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VGX인터내셔널 사의 기술력은 인정하고 상호협력을 제안해왔다. 박 대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개발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기쁘다.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이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국내 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외국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국내기업으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DNA백신을 만들어 국내 백신산업의 세계화를 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4.txt

제목: 찬송가 주해 강좌를 연 김은희 횃불트리니티 콘서바토리 원장  
날짜: 20140117  
기자: 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113  
ID: 01100201.20140117100000113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횃불트리니티 콘서바토리 김은희 원장이 최근 찬송가 주해 강좌를 열었다. 그는 찬송가를 주해하면 찬송의 울림이 더 깊어진다고 강조했다.<br/>찬송가도 성경처럼 주해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찬송가 주해는 찬송가 가사를 주해로 풀어내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교리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찬송가 가사를 주해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찬송가를 주해하면 연주를 할 때 곡의 해석도 달라진다고 말했다.<br/>김 원장은 미국에서 성경 주해 강의를 들으며 찬송가 주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는 곧바로 찬송가 가사를 주해했다. 이 찬송가를 연주하자 남다른 은혜가 됐다. 가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자 연주가 곧 설교가 되는 느낌이었다. 실제 연주를 들은 청중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br/>찬송가 주해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할 때 피아니스트가 곡을 해석해 연주하는 것과 같다. 다만 주해는 이보다 더 깊이가 있다. 단순한 기교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br/>“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학적 교리적 간증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주해하고 연주한 음반을 내놓았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음악이 설교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이 주해 찬송 연주를 듣고 암이 나았다는 감사 전화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울증을 앓는 환자에게도 힘을 준다</span>”고 말했다.<br/>김 원장의 찬송가 주해 강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룬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고 피아노 전공자여도 원리를 알지 못하면 주해 찬송가를 연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강좌를 통해 그 원리를 가르친다고 말했다.<br/>또 콘서바토리 연주자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한 연주를 가르친다. 피아노는 물론 바이올린, 첼로, 오르간 반주를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성악도 가르친다. 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쉽게 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발성법과 성가 지휘법도 가르친다.<br/>10주간씩 일 년에 4회의 연주자 과정이 있다. 10명씩 그룹수업으로 진행되고 개인 지도도 있다.<br/>“등록은 수업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순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디 같은 단기 속성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와서 두 시간 정도 배웁니다. 좀 더 심화 과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일대일 개인지도를 하면 됩니다.”<br/>수업은 오전 오후가 있다. 직장 반은 작년 4월에 시작했다. 직장은 일대일로 개인지도한다. 현재 60명 수업 받고 있다. 지도자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이 있다. 김 교수는 주해 찬송가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주를 통해 교회 음악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br/>“샘을 파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와서 예배의 풍성함을 반주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찬송가 연주법을 전수하고 싶습니다.”<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5.txt

제목: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교수, 폐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규명  
날짜: 201401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203  
ID: 01100201.201401131000002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국내 의료진이 폐암을 일이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는데 성공했다. 또한 비흡연자에서 흔한 폐압과 달리 흡연자가 주로 많은 편평상피폐암의 경우 동양인과 서양인 사잉의 인종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규명했다.<br/>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사진) 연구팀은 국내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 104명의 유전체 전부를 미국 브로드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br/>아시아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근칠 교수 연구팀 연구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br/>해당 연구결과는 임상종양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임상 종양학(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됐다.<br/>◇흡연으로 폐암 발생…변형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금연’이 최선<br/>전체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에 이어 2번째로 흔한 편평상피세포 폐암은 특히 흡연자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도 104명 중 99명이 20년 안팎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피웠던 경험이 있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은 5명으로 4.8%에 불과했다.<br/>연구팀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중 96%인 100명에게서 주요 유전자 변형이 발견됐다. 2만 여개에 달하는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평균 400여개가 손상을 입거나 변형으로 제 모습을 잃었다.<br/>이 가운데 우리 몸을 보호해 왔던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의 경우 전체 환자의 80%(84명)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FGFR3과 TACC3 유전자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이번 연구에서 보고했다.<br/>이들 두 유전자의 경우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흡연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유전자 재배열 및 융합을 일으켜 폐에서 세포증식과 분열을 반복하도록 작용한다.<br/>연구팀은 “흡연에 따라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문제는 유전자 변형과 결합 등이 시작돼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이 15% 안팎으로 낮은 폐암에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이 온 경우 꼭 맞는 표적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br/>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것이 유전자 변형을 막고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의미다. 다만 FGFR3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인 상태여서 이번에 박근칠 교수팀에 의해 밝혀진 FGFR3-TACC3 결합에 따른 폐암은 조만간 표적 항암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br/>이에 대해 박근칠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표적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난치성 폐암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래도 흡연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폐암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새해에는 반드시 금연을 통해 폐암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6.txt

제목: ‘더 지니어스 2’ 비겁한 ‘방송인 연합’ …그들의 플레이가 기대된다  
날짜: 201401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2100000030  
ID: 01100201.20140112100000030  
카테고리: IT\_과학>콘텐츠  
본문: [쿠키 연예] ‘더 지니어스 2: 룰 브레이커’(이하 ‘지니어스 2’)의 ‘룰 브레이커’는 ‘친목’인가.<br/>11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더 지니어스 2’ 6화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로 카드를 교환해가며 카드 자원을 독점해야 승리하는 ‘독점 게임’이 메인 매치로 진행됐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던 해커 이두희는 ‘방송인 연합’ 앞에서 맥도 못 추고 탈락했다. 바로 친목 때문이다.<br/>은지원은 게임 시작 전 다른 참가자들과 ‘방송인 연합’을 결성해 방송인이 아닌 일명 ‘비방송인’들을 게임에서 탈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게임의 룰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지 않고 편법으로 상대를 탈락시킨 것이다. 결국 비방송인인 이두희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진행해야 하는 게임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감춘 은지원 때문에 게임에 참가해 보지도 못하고 꼴찌를 했다.<br/>물론 이는 다른 게이머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독점 게임’에서 하나의 게임 진행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지원과 조유영, 이상민, 노홍철 등은 처음부터 이두희 한 사람을 탈락자로 지정하고 게임 내내 그를 몰아세웠다.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임 방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다가 답답해서 암 걸리겠다” “은지원 때문에 동맥경화 걸릴 듯”이라며 실시간으로 SNS 등에 분노를 표출했다.<br/>‘지니어스 2’의 재미는 게임 룰 위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를 쓰며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러나 참가자들끼리의 ‘친목’이 형성된 이후로는 ‘쾌감’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저 답답함만이 존재한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일명 ‘방송인 연합’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교활함과 상대를 몰아가는 단체행동, 상대방의 신분증을 감춤으로서 게임에 다른 게이머를 참가하지도 못하게 하는 비겁함. 그들이 배척하던 ‘비방송인’무리가 모두 탈락했을 때, ‘방송인 연합’의 플레이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7.txt

제목: 국내 첫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부산 기장에 착공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306  
ID: 01100201.201401101000003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생활] 인체 내 암세포만 파괴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가 본격 도입된다.<br/>부산 기장군은 10일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 중입자가속기 사업부지에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조감도)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br/>착공식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철구 원장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수용 원장, 부산시 이영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새누리당 김세연·박민식·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탄소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비를 말한다. 중입자 치료 시스템과 연결해 가속된 탄소입자를 체내 깊숙한 곳에 침투시켜 암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암 치료기이다.<br/>중입자가속기는 치료 과정에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기간이 짧은(30~40회→3~4회)것은 물론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암 등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세계적으로도 5곳(일본3, 독일2)만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 3곳(일본1, 중국1, 이탈리아1)이 도입 추진 이다.<br/>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자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중입자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br/>8만81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352㎡ 규모로 2016년말 개원예정인 치료센터는 국비 700억원, 시·군비 500억원, 의학원 750억원 등 1950억원이 투입된다.<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4월 착공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과 더불어 방사선 의·과학산업 벨트의 핵심 기반시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유치할 계획인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원과 전력 반도체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과 연구,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8.txt

제목: 김우경 의료부총장 “그동안 쌓은 실력과 내실로 저평가된 패러다임 바꿀 것”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259  
ID: 01100201.201401101000002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span class='quot0'>전쟁이 터지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듯, 병원이 어려운 이 시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span>”<br/><br/>제12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김우경 의료원장이 1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취임일성을 밝혔다.<br/><br/>국내 대형병원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내실을 통해 고려대의료원을 세계 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다.<br/><br/>김 의무부총장은 이날 “<span class='quot1'>국내 분위기에서는 병원 규모가 곧 실력으로 평가되다보니 내실이 탄탄함에도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대·보과대가 모두 BK21 plus에 선정된 점, 산하 두 병원(구로·안암)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은 실력과 내실이 탄탄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span>”라고 강조했다.<br/><br/>지난해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의무부총장은 우선적으로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며 “<span class='quot1'>매출액 대비 연구비를 8%대로 증가시킬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굵직한 국책과제를 연이어 수주한 것에 대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군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실제로 안암병원은 김열홍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유전체 맞춤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줄기세포기반 재생의료, IT 융합연구를 중점연구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구료병원은 백신의 대가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를 필두로 백신 국산화와 새로운 바이러스·세균 백신의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br/><br/>또한 올해부터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1단계 착공을 시작했으며 구로병원은 암 전문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안산병원도 본관증축 공사를 완공해, 이를 계기로 고려대의료원은 400여병상이 추가로 확보된다.<br/><br/>한편 언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고대구로병원장은 역임했던 김우경 의료부총장은 “언론에서는 ‘빅5’만 중점적으로 다뤄지다보니 고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2년여의 임기 동안 저평가되고 있는 이 같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br/><br/>끝으로 그는 “핵심적인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탁월하고 선도적인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29.txt

제목: 정부, 2017년까지 97개 사업 추진… 창업·물가분석·방범 ‘해결사’ 빅 데이터 활용 확 늘린다  
날짜: 20140108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057  
ID: 01100201.20140108100000057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범죄기록과 유동인구, 주민신고 정보, CCTV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장소·시간대별 범죄확률을 예측한다. 기존 관서 및 행정동 위주로 짜여진 경찰의 치안활동은 범죄 위험 예측분석 결과를 반영해 ‘치안 블록’ 단위로 개편된다. 이를 바탕으로 순찰차를 사전에 배치하는 등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펼쳐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케 한다. 최근 경찰이 도입하기 시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기법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순환 속도가 빨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br/>앞으로는 비행·범죄·성매매 위험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의 조기발견과 이들을 위한 상담 등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해당 점포의 과거 개·폐업 이력, 추정매출, 입지분석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점포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찾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br/>정부는 7일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7년까지 97개 빅 데이터 활용사업이 추진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통화량 분석을 통해 심야 버스의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 전역을 지름 1㎞ 1252구역으로 나눠 심야시간의 통화량을 분석해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노선별, 요일별로 유동인구 패턴을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검증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은 곳에 심야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돼 승객들이 밤늦도록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환자진료기록정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재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촘촘한 부작용 정보 수집을 통해 의약품의 위해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된 내용 중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한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br/>올해에는 암 정복을 위한 유전정보 연계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발 등 2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완료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의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의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도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br/>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0.txt

제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의학부 총괄에 김똘미 상무 선임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190  
ID: 01100201.20140108100000190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쿠키 건강]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기존까지 본사 R&D 소속으로 혁신 신약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김똘미 상무(41, 사진)를 지난 1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의학부를 총괄하는 메디컬 디렉터(Medical Director)로 임명했다고 밝혔다.<br/><br/>신임 김똘미 상무는 2013년 1월 사노피 본사 R&D 소속으로 입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차세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뛰어난 연구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 인정 받았다.<br/><br/>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번 선임을 통해 자사가 표방하는 ‘환자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암 등의 치료 영역에서 자사의 차별화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br/><br/>또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직접 환자를 진료한 임상경험과 제약업계에서 신약 개발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환자들의 미충족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유수 병원의 연구진과 긴밀한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김똘미 상무는 “<span class='quot0'>제약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임상시험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의학부를 이끌게 돼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회사가 국내 R&D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공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br/><br/>김 상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및 내분비내과 전문 전임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에 입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동,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 등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의학부 리더로서 경력을 쌓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1.txt

제목: 류머티즘 관절염, 뼈·연골 파괴 원인 첫 규명  
날짜: 20140108  
기자: 황인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098  
ID: 01100201.201401081000000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류머티즘 관절염’에서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원인이 학계 최초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는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머티즘 활막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공격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br/>류머티즘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인 활막세포가 암처럼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지닌다.<br/>연구팀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 유전자를 분석해 공격성과 파괴성이 큰 ‘페리오스틴’과 ‘트위스트’라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활막세포에 이 두 유전자를 제거하면 뼈와 연골 손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사실을 증명했다.<br/>이에 따라 류머티즘의 새로운 치료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병든 류머티즘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나아가 치료제 개발을 통해 류머티즘 질환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률 감소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류머티즘 질환 치료의 1인당 직접비용은 연간 800여만원이다. 류머티즘 질환 관련 사망률은 일반인의 배에 달한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인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관절염이 완치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span>”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결과는 의학 및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2.txt

제목: 지난해 국내 신약 1품목…개량신약 19품목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311  
ID: 01100201.2014010810000031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혈압·당뇨 복합제 개발 두드러져…물 없이 복용가능한 구강붕해정 개발도 활발 [쿠키 건강] 지난해 신약 12품목, 개량신약 19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13 하반기 의약품 심사정보에 따르면 2013년 1월~11월 의약품 심사현황을 보면 신약 12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41품목 및 희귀의약품 18품목 등 총 171품목이 허가됐으며,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신약은 19품목이었다.<br/><br/>자료제출의약품 141품목은 각각 새로운 염(또는 이성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 25품목,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 6품목, 새로운 조성의 의약품 31품목, 새로운 제형 및 새로운 투여경로의 의약품 31품목, 유효성분의 함량만의 증감으로 허가된 의약품 48품목이었다.<br/><br/>201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에 대해 단일성분 의약품에 의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도록 복합성분 의약품(복합제)이 개발된 점이 두드러졌다. 또 종전 일반 정제에서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복용 편의성을 증대시킨 구강붕해정제(구강붕해필름) 개발이 활발했다<br/><br/>지난해 신약 12개 중 1개만 국내 개발<br/><br/>지난해 국내 개발되거나 허가된 신약은 총 12품목(제조 3품목, 수입 9품목)으로 2012년(13품목, 이중 국내 신약은 3품목) 및 2011년(21품목) 보다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제조사에서 개발된 신약은 ‘듀비에정0.5mg’(로베글리타존황산염) 1품목으로 총 20개의 국내 개발 신약을 보유하게 됐다.<br/><br/>허가·심사된 신약의 약효군별로는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6품목(당뇨병용제), 종양용약 3품목, 중추신경계용약 1품목, 알레르기용약 1품목, 골관절염 치료제 1품목으로 나타났다. ‘퍼마곤주 80mg, 120mg’(한국페링제약, 2013년 4월18일 허가)은 ‘데가릴렉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호르몬 의존성 진행성 전립선 암 치료제로 피하 주사 후 데포 형으로 바뀌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유리하며 안드로젠 박탈 요법이 권장되는 전립선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br/><br/>‘네시나정 6.25mg, 12.5mg, 25mg’(한국다케다제약, 2013년 5월31일 허가)은 ‘알로글립틴벤조산염’을 주성분으로 다이펩티딜펩티다제-4 억제제(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DPP-4 억제제)로 작용하며, 몸의 상승된 혈중 포도당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br/><br/>‘듀비에정0.5mg’(종근당, 2013년 7월4일 허가)은 ‘로베글리타존황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과산화소체증식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s, PPAR)에 작용하는 치아졸리디온(Thiazolidinedion, TZD) 계열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이다.<br/><br/>‘콜벳정25mg’(동아에스티, 2013년 7월10일 허가)은 ‘아그리티모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면역글로불린 및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해 항염증작용을 한다.<br/><br/>‘스티바가정40mg’(바이엘코리아, 2013년 8월22일 허가)의 활성성분인 ‘레고라페닙’은 종양에 관여하는 multiple kinase의 억제제로 작용하는 전이성 항악성종양제이며, ‘아질렉트정’(한국룬드벡, 2013년 9월13일 허가)은 ‘라사길린메실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발성 파킨슨병의 치료제, ‘시노비안주’(엘지생명과학, 2013년 10월15일 허가, 주성분 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되는 관절강 주사제이다.<br/><br/>‘포시가정 5mg, 10mg’(한국비엠에스제약, 2013년 11월26일 허가)은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제로 주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주요 수송체인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2)를 선택적이며, 가역적으로 저해해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신장에서 포도당을 배설시킨다.<br/><br/>개량신약 19품목…한국인 대상 임상 눈길<br/><br/>▲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br/><br/>‘카나브플러스정 120/12.5mg’ 및 ‘카나브플러스정 60/12.5mg’은 국내 신약으로 허가된 ‘카나브정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 ?10.9.9 허가)’의 주성분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복합성분 의약품으로 혈압 조절을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대조군(피마살탄)에 비해 우월성이 입증됐다.<br/><br/>‘보그메트정 0.2/250mg’ 및 ‘보그메트정 0.2/500mg’은 주성분 ‘보글리보스’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성분의약품으로 ‘메트포르민염산염’ 투여군 대비 복합성분의약품 투여 시 치료효과의 우월성을 입증했다.<br/><br/>▲유효성분의 새로운 염으로 최초 허가된 전문의약품<br/><br/>‘올메탄정 22.08mg, 올메신에스정, 올모스에프정 22.08mg 및 올메세틸정 22.08mg’은 올메텍정(올메사탄메독소밀)과 활성성분은 동일하나 에스테르기가 ‘메독소밀’에서 ‘실렉세틸’로 치환된 ‘올메사탄실렉세틸’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됐다. ‘올메사탄 렉세틸’은 국내 최초의 에스테르기 변경으로서 한국인 대상 임상약리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덱시드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은 기허가된 ‘티옥트산’의 R-체만을 분리한 ‘알티옥트산’의 트로메타민염을 주성분으로 한국인 대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기허가와 다른 새로운 효능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br/><br/>‘줄리안정15mg, 네노마정 15mg, 컨덴시아정15mg 및 클로잭정’ 4품목은 국내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을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새로운 효능인 조루증치료제로서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제제개선을 통해 제형·함량·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br/><br/>‘실로스탄씨알정(실로스타졸)’은 종전 실로스타졸로서 성인 1회 100mg을 1일2회 복용하는 제제를 성인 1회 200mg을 1일1회 복용하도록 서방성 제제를 개발해 제제를 개선했다. 주성분인 ‘실로스타졸’은 PDE3 억제제로서 만성동맥폐쇄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및 뇌경색 발증 후 재발 억제 등에 사용된다.<br/><br/>희귀의약품, 종양용약·항악성종양제 주류<br/><br/>희귀의약품은 총 18품목이 심사됐는데 종양용약, 항악성종양제가 총 8품목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HIV-1 감염 치료제 ‘스트리빌드’(주성분: 엘비테그라비르) ▲골수 섬유화증의 치료제 ‘자카비정’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불가능한 전이성 기저세포암 또는 국소진행성 기저세포암(수술 후 재발한 환자 중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치료제 ‘에리벳지캡슐’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의 치료제 ‘카프렐사정’ ▲재발성 또는 불응성 말초성 T세포림프종(PTCL)의 치료제 ‘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 ▲혈액투석환자에서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불충분한 소양증 개선에 사용하는 ‘레밋치연질캡슐’(날푸라핀염산염)’ ▲성인 쿠싱병 환자 치료제 ‘시그니포주’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지질 저하제 및 식이요법에 대한 보조제 ‘카이남로프리필드시린지주’(미포멀슨나트륨)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환자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빈도 감소 및 장애 지연 ‘오바지오필름코팅정’(테리플루노마이드) ▲IgE를 매개로 한 알러젠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알레르기용약 ‘스타로랄설하액(화분)초기치료단계’와 ‘스타로랄설하액(화분)유지치료단계’ ▲재발성-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최초의 임상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MRI상 다발성 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재발빈도 감소 ‘코팍손프리필드주’(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 등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3.txt

제목: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의 길 열리나…뼈·연골 파괴되는 기전규명  
날짜: 201401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216  
ID: 01100201.201401071000002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만성염증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기전이 처음으로 밝혀졌다.<br/><br/>7일 보건복지부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김완욱 교수·유승아 박사)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황대희 교수·유성용 박사)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마티스 활막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기전이 최초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의 유전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의 후보유전자를 찾아내었다.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periostin)과 트위스트 (TWIST)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활막세포에서 페리오스틴이나 트위스트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듬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병든 류마티스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지녔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대한류마티스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일인당 직접비용은 연간 800여만원, 류마티스 질환 관련 사망률 일반인의 2배에 달한다.<br/><br/>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통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김완욱 교수는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암과 같이 공격적으로 변한 활막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현재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6년 간의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인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게 됐고 이를 통해 관절염이 완치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의학 및 과학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4.txt

제목: 안국약품, ‘암 조기진단’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2  
ID: 01100201.20140107100000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안국약품은 지난해 ‘안국 대변혁, 선진화 전략’이라는 경영지침 아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국내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이루어 보다 앞서가는 선진화 전략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br/>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은 S-암로디핀과 R-암로디핀이 50:50의 비율로 혼합된 라세믹 물질인 암로디핀에서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는 S-암로디핀 성분만을 순수하게 분리해 만든 ‘국내 최초의 암로디핀 이성체’ 개량신약으로 4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2006년에 발매를 시작했으며,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50억원을 상회하는 거대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니코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테오브로민’ 단일성분의 비마약성 말초작용 진해제로 기침억제 효과에 대해 세계적인 특허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0년 유럽 파트너사인 영국 SEEK 그룹과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해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허방그룹과도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유럽과 중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또한 시네츄라는 서양의 생약인 아이비엽과 동양의 생약인 황련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진해거담제 천연물신약이다. 현재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최근에는 미국 그라비티바이오와 ‘시네츄라’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개발 등록 및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레토프라는 안국약품이 자체 개발한 ‘S-판토프라졸’ 성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개량신약으로 2012년 발매됐으며, 미국에서 발간되는 소화기 분야의 SCI학술지에 레토프라의 유효성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레보살탄은 CCB계열의 이성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에 ARB계열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발사르탄 성분을 조합한 고혈압치료 복합제로 발매 3년 만에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br/>특히 안국약품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진단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암의 조기진단 키트 개발에 매진해 왔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내에 위치한 안국약품 바이오진단연구소는 국내 제약사로서는 최초로 ‘다중 바이오마커 발굴기술’에 대한 국내외 원천 특허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5.txt

제목: 녹십자, 백신·암 진단 시약… ‘건강산업 글로벌 리더’ 비전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29  
ID: 01100201.201401071000000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는 자체연구소의 효율극대화, 산학협력,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제휴 등을 기본방향으로 국내외에 광범위한 R&D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br/>녹십자의 R&D조직은 제품화에 초점을 맞춰 중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종합연구소, 연구과제 및 출시 제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학본부, 국내외 우수 의약품 라이선스 인/아웃 및 비임상과 인허가를 진행하는 개발본부로 구성돼 있다.<br/>녹십자 종합연구소는 30여년이 넘는 연구활동을 통해 간암 및 대장암 진단 시약,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등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br/>특히 지난해 개발한 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뽑히는 등 고가의 기존약이 누리던 세계적인 독점을 깨고 국가보험재정 절감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경제, 과학적 파급효과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 안티트롬빈Ⅲ, 그린플라스트, 아이비 글로불린 등을 개발했으며 이 중 다수 품목이 회사의 주력 매출원으로 성장했다.<br/>녹십자와 녹십자 R&D센터 가운데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 목암생명공학연구소는 1984년 녹십자 B형 간염백신 상업화에 따른 국내외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유전자재조합 B형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수두백신 등의 백신제제와 유전자재조합 인터페론, G-CSF 등의 단백질 치료제 및 HIV, HCV 진단제제 등의 상업화를 달성했다. 설립 이래 30여 년간 쌓아 온 190여 편의 등록 특허와 140여 편의 학술논문은 연구소의 뛰어난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현재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희귀질환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인적, 기술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br/>녹십자는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2020년 국내 매출 2조원, 해외 매출 2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Top 50에 진입한다는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독점을 깨고 최근 출시된 헌터라제가 수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시장에서 녹십자가 목표로 하는 50%의 점유율을 기록한다면 한 품목만으로 이미 해외시장 목표매출 2조원의 4분의 1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6.txt

제목: 한미약품, R&D 집중 투자… 글로벌 신약 창출 도전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7  
ID: 01100201.201401071000000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R&D 투자 1위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은 매년 15% 가까운 R&D 투자율을 고수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신약 창출에 도전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바이오신약과 차세대 표적항암제 그리고 치료효율을 극대화하는 복합신약으로 구성돼 있다.<br/>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은 2006년 자체 개발에 성공한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현재 활발한 해외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랩스커버리는 약효 지속시간이 짧아 매일 주사해야 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해 약효 지속시간을 최대 월 1회까지 늘려주는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이 기술을 적용해 당뇨병치료제, 인성장호르몬, 호중구감소증치료제, C형간염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임상을 미국,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br/>차세대 표적항암제 중심의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도 활발하다.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암에 효과를 보이는 표적항암제 HM781-36B는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을 타깃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EGFR변이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항암제 HM61713은 폐암환자 대상의 1상과 건강인 대상 다민족 1상 임상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제약회사인 카이넥스사와 공동으로 다중 표적항암제인 KX2-391에 대한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궁암, 유방암 등 광범위한 암을 타깃으로 미국과 홍콩 등에서 추가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br/>한편, 한미약품은 아모잘탄, 낙소졸, 로벨리토 등 국내 복합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7년간 14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과 ARB 계열 오잘탄을 결합한 복합신약 아모잘탄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아모잘탄은 현재 ‘코자엑스큐’란 브랜드로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MSD를 통해 전 세계 51개국에 수출된다.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을 글로벌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모잘탄이 최초이고 현재로도 유일하다. MSD와의 계약을 통해 입증된 한미약품의 복합신약 개발 역량은 GSK, 사노피 등 글로벌 최상위권 제약회사들과의 복합신약 공동개발 계약으로 이어졌다. 또 NSAIDs 대표 치료제인 나프록센과 항궤양제인 에소메졸을 복합한 진통소염 복합제 낙소졸은 지난해 11월 발매 이후 한 달도 안 돼 관련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또 한 번 한미약품 복합제 개발능력을 과시하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7.txt

제목: 유한양행, 신약 연구개발 과제 20여건 활발히 진행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5  
ID: 01100201.201401071000000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한양행의 R&D는 해외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은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개발 및 공동연구 과제 약 20여건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br/>유한양행은 단기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의 출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진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혁신적인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통해 글로벌 R&D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R&D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br/>유한 R&D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표적질환으로는 자체 신약 ‘레바넥스’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화기계 질환, 당뇨와 동맥경화증을 중심으로 한 대사·순환계질환, 관절염과 호흡기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면역·염증성 질환, 그리고 항암제 분야 등이 있다. 레바넥스는 유한양행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신약으로 활성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가역적 위산펌프 길항제(APA)이다. 2005년 9월에 십이지장 궤양 적응증으로 신약허가를 획득했으며, 2006년 5월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적응증을 확장했다. 중국 지준사 및 인도 Zydus Cadlia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br/>또 유한은 다년간 축적된 소화기질환치료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약효와 안전성이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인 YH12852를 도출했다. 현재 GLP비임상 평가 및 차별화된 약리기전 도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받아 하반기 임상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다.<br/>유한은 현재 수술 이외에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성퇴행성 질환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한이 보유하고 있는 YH14618은 척추 부위에 직접 주사해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기전을 갖고 있다. 현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br/>이외에도 류머티스관절염 치료 항체 ‘YHB1411-2’, 치주질환치료제 ‘YH14642’,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치료제 신약, 당뇨치료제 신약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항암제 분야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을 이용한 항암제와는 다른 면역항진을 통한 항암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타깃항암제와 암 전이를 억제하는 전이억제제 및 진단키트를 동시 개발해 동반진단을 통한 맞춤 치료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암세포의 대사 경로를 억제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항암제 개발의 타당성도 검토 중에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8.txt

제목: 종근당, 토종신약으로 글로벌 공략… 난치병 정복 십자군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9  
ID: 01100201.201401071000000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종근당이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글리타존계 당뇨병치료제 신약 ‘듀비에정’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해외에서 진행되는 고도비만치료제 ‘CKD-732’의 임상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차세대 글로벌 신약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br/>◇글로벌 신약 탄생 눈앞에= 최근 미국 자프겐(Zafgen)사에서 내놓은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2013년 비만주간’ 학술회의에서 고도비만 치료제 ‘벨로라닙(beloranib)’의 임상 2a상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 것. 벨로라닙은 종근당이 자프겐사에 기술을 수출해 해외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CKD-732’의 성분명이다.<br/>종근당은 199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신생혈관억제효과를 갖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CKD-732의 항비만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새로운 비만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다. 2009년 새로운 기전의 비만치료제로서 CKD-732의 개발 가능성을 눈여겨보던 자프겐사에 기술을 수출해 공동개발을 시작했으며, 2011년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013년 2a상(초기 임상)을 완료하고 미국에서 임상 2b상(후기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br/>CKD-732는 2011년 3월 미국 제약 연구저널인 ‘R&D Directions’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적 신약에 선정됐으며, 9월에는 미국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 저널에 게재되는 등 향후 기대가 큰 세계적인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br/>◇난치병 정복으로 삶의 질 높인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특정센터 연구지원 사업에서 ‘항암신약 연구개발센터’로 지정되는 등 항암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근당은 항암제 신약 캄토벨의 개발 경험을 확대해 신규 기전의 다양한 항암제 개발로 이어가고 있다. 종근당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CKD-516’은 혈관 내피세포의 골격 단백질의 활성 저해를 통해 종양혈관만을 선택적으로 막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항암제 및 항암요법과 병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종근당은 CKD-516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암제 및 기타 항암 요법과의 병용전략을 연구 중이며, 특히 종양 주변 세포에만 적용되는 기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 CKD-516의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CKD-516은 낮은 용량에서 효능이 탁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종양세포에 대한 약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우수성을 바탕으로 종근당은 지난 10월 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CKD-516의 경구제제에 대한 전임상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br/>◇토종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글리타존계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정이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 듀비에정은 2003년 항암제 신약 캄토벨에 이어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신약이자 전 세계에서 15년 만에 개발된 글리타존 계열의 국산 신약으로 의미가 매우 큰 약물이다. 듀비에정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에 비해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다. 현재 당뇨병 세계시장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하고 국내시장은 5000억원 이상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종근당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토종 당뇨병 치료제 신약 듀비에정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국산 신약의 자존심을 높일 계획이다.<br/>사망률이 높은 암에서부터 비만, 당뇨병까지, 종근당에서 개발 중인 신약은 삶의 질과 직결된 만성질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는 난치병을 겨냥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루어진 최적의 연구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신약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39.txt

제목: 알츠하이머 극복의 길 한국에서 열리나  
날짜: 201401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229  
ID: 01100201.201401061000002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엘젬백스 항암백신 효능, 국제학술지 실려<br/><br/>[쿠키 건강] 항암백신 및 항염증제 개발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항암백신 ‘GV1001’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국제 학술지인 ‘Neurobiology of Aging’에 발표됐다고 6일 밝혔다.<br/><br/>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한양대학교 신경내과 고성호 교수(現 하버드대학교 교환 교수)연구팀이 쥐의 뇌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구한 내용으로, 카엘젬백스의 ‘GV1001’이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 신경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염증반응을 통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이는 알츠하이머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GV1001은 사람 체내에 있는 16개의 아미노산 사슬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펩타이드 단백질로, 황산화 기능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은 감소시키고 생존을 유지하는 단백질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br/><br/>이번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고성호 교수는 “GV1001은 세포질 내에서 다양한 항염 및 세포 보호 효과를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GV1001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br/><br/>김상재 카엘젬백스 대표는 “젬백스는 지난 25년간 신약 연구에 매진해 의미 있는 결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 치료제에 집중됐던 GV1001의 항암 효능을 다양한 암 치료 분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치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GV1001의 의학적인 가능성은 물론 상업적 가치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한편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약 40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시장크기는 약 550조원 규모다. 노령화 인구증가, 초기 진단 기술의 발전, 기존 치료제에 면역치료제를 추가하는 처방 등에 힘입어 향후 치매 치료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며 5년 내에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40.txt

제목: 중소 무역업체 이메일 해킹 기승  
날짜: 20140106  
기자: 이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129  
ID: 01100201.20140106100000129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중소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 정보를 빼낸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무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5일 “<span class='quot0'>지난해에만 47건이 발생해 모두 41억원 피해를 입었다</span>”며 주의를 당부했다.<br/>사기범들은 주로 해외 거래처를 가장해 이메일을 보내면서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과 공모한 일당은 세제 원료를 수출입하는 리비아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으로 알아냈다. 이 계정으로 국내 거래 업체에 가짜 이메일을 보내 거래대금 3000만원을 가로챘다. 8월에도 국내 의류업체 이메일을 해킹한 뒤 러시아 거래처라고 속여 6400만원을 받아낸 사기꾼들이 붙잡혔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해 업체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대금 결제를 독촉 받고서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입금계좌 변동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받으면 전화·팩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또 경찰이 지난해 말 2개월간 실시한 ‘악성 사기범’ 집중 단속에서 모두 557명이 붙잡혀 172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검거된 한 사기범은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650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억18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 작업반장은 부하직원들에게 “<span class='quot2'>어머니 암 수술비를 빌려주면 인사고과를 잘 주겠다</span>”고 속여 9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br/>이 같은 사기 피해자는 6707명, 피해액은 3650억원에 달했다.<br/>이도경 기자 yido@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41.txt

제목: “새해에는 금연하세요!”  
날짜: 201401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3100000183  
ID: 01100201.201401031000001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새해를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한 ‘후두암 공개강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천성모병원 옴니버스홀에서 개최한다.<br/><br/>이번 강좌는 이비인후과 주영훈 교수가 ‘흡연과 후두암’에 관한 주제 강의를 통해 후두암의 예방법과 치료법 등 후두암과 관련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천성모병원 알콜의존치료센터 손성현 팀장의 ‘금연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 이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후두암, 구강암 무료 검진과 금연 상담도 실시된다.<br/><br/>후두는 목의 식도와 기도의 입구 부위에 위치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후두부에 발생하는 암이 후두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의 1.1%를 차지하는 등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담배, 심한 음주, 여러 공해물질의 자극, 바이러스 감염, 그 밖의 외부자극 등이 원인이 돼 암으로 진행되는데 그중 흡연은 가장 확실한 후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중 흡연하는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6.5배, 여자는 5.5배 후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주영훈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후두암의 79.0%,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 허혈성 심질환의 45.0%, 방광암의 38.6%, 뇌졸중의 35.3%, 췌장암의 32.3%, 당뇨병의 25.4% 등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를 통해 금연 결심도 세우고, 후두암에 대한 정보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42.txt

제목: 조아제약, 형질전환 복제돼지 다수 확보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238  
ID: 01100201.201401021000002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hG-CSF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향후 바이오베터 개발해 시장 진출 예정<br/><br/>[쿠키 건강]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이용한 EPO(Erythropoietin) 및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의약품 연구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조아제약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br/>조아제약은 지난해 1월부터 ‘돼지 유즙에서 hG-CSF(Human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인간백혈구 증식인자) 발현이 가능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대한 연구에 돌입해 2014년 1월 현재 hG-CSF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br/><br/>hG-CSF는 원래 인체 혈액에 있는 단백질로 백혈구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항암치료에 의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진 암환자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필수 의약품으로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구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감소돼 감염에 취약해 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hG-CSF를 주입하면 백혈구 감소를 막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hG-CSF 관련 세계시장규모는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br/><br/>조아제약은 이번 연구에서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형질전환용 벡터를 이용해 hG-CSF를 보유한 형질전환 세포주라인을 구축해,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식작업을 진행한 결과 hG-CSF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br/><br/>향후 돼지 유즙에서 hG-CSF의 분리 정제법이 확립되면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진행 중인 ‘다중기작 서방출형 수화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약물의 약효를 강화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바이오베터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br/><br/>조아제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EPO 및 인간성장호르몬 연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프로젝트인 hG-CSF까지 연구를 확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이식작업을 통해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충분한 숫자의 hG-CSF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확보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조아제약은 2012년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와 영장류 및 미니돼지 형질전환 연구를 통한 바이오신약 및 질환모델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체계 확립 등에 대한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br/><br/>조아제약은 200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체세포 복제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2005년에는 유즙에서 EPO(Erythropoietin)를 발현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했으며, 2007년에는 형질전환 복제 유산양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br/><br/>또한 EPO연구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사업의 지원을 받아 목적단백질 연구를 수행한 결과 목적단백질을 제공하는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고 그 돼지의 유즙으로부터 인간성장호르몬의 발현을 확인했으며 비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543.txt

제목: [글로벌 IT 거물] “SNS열풍 예측 못해” 후회하는 슈미트  
날짜: 20140101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1100000032  
ID: 01100201.2014010110000003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br/>슈미트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SNS 열풍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구글은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등 뛰어든 사업 대부분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했지만 SNS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구글의 SNS인 구글플러스는 여전히 가입자와 사용빈도에서 페이스북에 크게 밀리고 있다.<br/>슈미트는 “<span class='quot0'>굳이 변명을 하자면 구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빴다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제때 뛰어들지 못한 것은 내 책임</span>”이라고 덧붙였다.<br/>슈미트는 2014년을 “모바일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모바일이 이기는 추세였다면 2014년은 모바일이 승리를 굳히는 해라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br/>슈미트는 “빅 데이터와 지능형 기계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는 때가 왔다. 이는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전학의 발전으로 개인 DNA 정보를 활용한 암 진단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br/>그는 내년에 구글이 어떤 제품을 전면에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와 로봇에 미래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br/>김준엽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